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 영 애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조명

- 여성문인과 실학자를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 영 숙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조명

- 여성문인과 실학자를 중심으로 -

주 영 애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 영 숙

인 준 서

박영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0월

심사위원장	최 배 영	
심사위원	황 경 애	
심사위원	김 선 주	
심사위원	주 영 애	
심사위원	안 혜 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여성의 역할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주도하기보다는 남편을 돕는 아내의 역할과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시대적으로 전통사회 여성의 리더십이 고찰된 경우는 지극히 적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고, 국가 주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의 여성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며, 특히 전통사회 여성의 리더십 연구는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조선시대는 역사 속에 궁중 인물을 제외하면 남성들에 비하여 이름을 남긴 여성의 존재는 매우 적었다. 당시는 유교문화로 인하여 남성위주의 가부장제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로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역량을 드러내기는 어려웠던 시기였다. 따라서 교육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성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했으며, 규방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시대적인 영향으로 조선의 여성들은 꿈과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이 아닌 가족이나 사회를 돕는 협력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자신의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았던 조선시대 여성리더들이 있었다. 최근 여성 역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역사 속에서 영향력을 끼친 조선시대 여성 인물들에 관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조선시대는 근대를 지나 현대로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여성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규명해 가는데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각종 사료, 유물, 관련연구 등 문헌고찰을 통해 조선시대의 여성 리더십의 자료를 사례별로 모아, 修己와 治人으로 분류하여 생활문화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修己는 개인생활 영역으로, 治人은 가정생활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여성 리더 중에서 여성 문인인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 이매창과 여성실학자인 장계향, 임윤지당, 김만덕, 사주당 이씨, 빙허각 이씨, 강정일당 등 10인의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여성들은 조선 시대의 가부장적인 유교사회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역량을 키워 비범하게 자신의 삶을 펼쳐 왔으며, 족적을 남겨 제 학문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 인물들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문인인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 이매창의 경우 이들이 여성문인으로 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여성실학자인 장계향, 임윤지당, 김만덕, 사주당 이씨, 빙허각 이씨와 강정일당은 일생동안 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여성실학자에게서 나타난 역량 중에서 핵심역량을 연구한 결과 여성의 修己리더십에서는 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책임감,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능력, 관계관리 능력, 사회적 인식능력의 핵심역량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었고, 여성의 治人리더십에서는 구성원성장, 공동체형성, 모델링, 자부심, 이상적목표, 비전과 사명감, 장애초월, 변화,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의 핵심역량을 발휘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셋째, 조선시대의 여성리더십 핵심역량이 현대에도 유용함을 알기 위하여 현대의 여성리더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조선시대의 여성리더십이 현대의 여성리더들에게도 유용함을 밝힐 수 있었다. 현대 여성리더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여성의 修己리더십과 핵심역량은 셀프리더십에서 자기개발이고, 여성의 治人리더십과 핵심역량은 변혁적리더십의 비전과 사명감이라고 판단되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시대와 상황에 따른 리더십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삶에 나타난 여성의 修己리더십과 여성의 治人리더십은 현대 여성리더들에게도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앞으로 생활문화 창조에 기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현대 여성리더들이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영역에서 나타낸 자기개발의 셀프리더십과 비전과 사명감의 변혁적리더십은 현대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여성리더십의 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II. 연구방법	5
1. 연구자료 선정 및 분석	6
2. 용어의 정의	8
III. 여성리더십	15
1. 여성리더십의 개념	15
2. 여성리더십의 특성	17
3. 여성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	21
IV.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	25
1.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의 의의	25
2. 조선시대 여성문인의 삶과 리더십	30
1) 신사임당	30
2) 황진이	35
3) 허난설헌	41
4) 이매창	47
3. 조선시대 여성실학자의 삶과 리더십	53
1) 장계향	53
2) 임윤지당	59

3) 김만덕	65
4) 사주당 이씨	70
5) 빙허각 이씨	76
6) 강정일당	82
V.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조명	88
1. 여성문인의 리더십 유형과 생활문화적 의의	88
1) 여성문인의 리더십 유형	88
2) 생활문화적 의의	92
2. 여성실학자의 리더십 유형과 생활문화적 의의	95
1) 여성실학자의 리더십 유형	95
2) 생활문화적 의의	101
3.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의 핵심역량에 대한 재조명	103
1) 여성의 修己리더십 핵심역량	104
2) 여성의 治人리더십 핵심역량	113
4. 현대 여성리더 사례를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여성리더십	123
1) 연구문제	123
2) 면접조사 방법 및 연구사례	123
3) 연구사례 분석	129
VI. 결론 및 제언	147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부록 1> 연구 동의서

<부록 2> 여성문인 연구 면접 목록

<부록 3> 여성리더 연구 면접 목록

표 목 차

<표 1>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	8
<표 2> 여성리더십의 유형과 역량	17
<표 3> 여성리더십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	22
<표 4> 생활문화에 관한 연구와 하위영역	28
<표 5> 생활문화에 나타난 수기와 치인	29
<표 6> 신사임당의 삶에 나타난 수기와 치인	35
<표 7> 황진이에의 삶에 나타난 수기와 치인	40
<표 8> 허난설헌의 삶에 나타난 수기와 치인	46
<표 9> 이매창의 삶에 나타난 수기와 치인	52
<표 10> 장계향의 삶에 나타난 수기와 치인	57
<표 11> 임윤지당의 삶에 나타난 수기와 치인	65
<표 12> 김만덕의 삶에 나타난 수기와 치인	69
<표 13> 태교신기의 내용	74
<표 14> 사주당이씨의 삶에 나타난 수기와 치인	75
<표 15> 빙허각 이씨의 삶에 나타난 수기와 치인	81
<표 16> 강정일당의 삶에 나타난 수기와 치인	87
<표 17> 여성문인의 리더십	88
<표 18> 여성문인의 리더십 유형	92
<표 19> 여성실학자의 리더십	96
<표 20> 여성실학자의 리더십 유형	101
<표 21> 여성의 修己리더십 핵심역량	104
<표 22> 여성의 治人리더십 핵심역량	114
<표 23>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생애와 업적	125
<표 24> 면접사례의 일반적 사항	12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여성은 자신의 인생과 삶을 주도하기보다는 남편을 돕는 조력자이자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로서의 소임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여성의 리더십이 연구되거나 고찰된 경우는 남성의 리더십 연구와 견주어 볼 때 지극히 적었다.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는 ‘양성평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배경과 여성의 사회적 주변화를 여성발전의 전략으로한 성 주류(gender mainstreaming)화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이영란, 2011), 2001년에 시작된 여성부는 2005년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인권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에 집중해 왔다. 이제 우리사회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양성평등 목표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016년도 여성가족부의 비전은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실천 과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 여성의 일터 복귀 및 고용유지 지원과 양성평등 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기반 강화에 두고 있다 (<http://www.mogef.go.kr>).

오늘날은 위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듯이 그 어떤 시기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리더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여성이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서 학문 분야에

서도 여성리더십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리더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대는 이미 여성의 역할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참여로 인해 양성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보다 균형있는 여성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양성 평등의 제도적 개선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 차별이나 유리천장과 같은 다양한 장벽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여성만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모두의 발전에 기틀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여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성역할의 변천사 연구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다.

현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상설 전시관을 건립하는 등 여성 연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에서 지역의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 홍보와 기념행사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국립여성사전시관 기획전시실에는 조선의 중심인물인 신사임당의 예술작품,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와 함께 『윤지당유고』 등을 전시하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 남성들에 비해 궁중 인물을 제외하고는 이름을 남긴 여성은 그 존재 자체가 매우 적었다. 조선시대의 달리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남성에게 의존적인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교적 배경의 영향 때문이었다.

즉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남성위주의 가부장제가 중심이 되었던 조선시대는 여성들의 역량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교육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성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규방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교육 받기

도 어려웠으므로 조선의 여성들은 잠재된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함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았던 조선시대 여성리더들에 대해 재조명해 보는 것은 현대 여성리더 교육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환경제약에 굴하지 않고 살아온 귀감이 되는 우리 역사 속 여성인물을 재확인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여성인물에 대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왕비와 대비 등 궁중여성, 여성문인들과 조선 후기 여성실학자들로 구분하였다(한희숙, 2004). 본 연구에서는 궁중여성이 아닌 일반적인 여성의 삶을 살면서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기억될 삶을 살았던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들의 삶을 고찰함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가져야 할 여성리더십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여성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양성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했던 조선시대에서도 비범한 능력을 발휘했던 여성 인물의 생애에 대한 생활문화사적 조명을 통해 현대에도 이어질 수 있는 바람직한 여성리더십을 발견하는데 있다.

현대여성들은 과거의 여성들과는 달리 사회생활을 통해 자기개발을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역할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이유는 여성사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바람직한 여성리더십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 있다.

즉,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으로서 삶의 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시대 생활문화 가운데에서 존재했던 여성문인과, 여성실학자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했는지에 대하여 수기리더십과 치인리더십 두 가지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고찰하고 분석한다.

둘째, 현대리더십 이론을 적용하여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리더십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그 유형을 분류해 보고, 당시 여성리더십에 대하여 생활문화적 의의를 찾아본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의 삶에서도 현대 리더십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한국의 역사에 존재한 여성들의 리더십을 재조명하여, 그 가치를 재인식해 보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들이 발휘했던 리더십을 수기리더십과 치인리더십으로 분류하고, 그 리더십에 내재한 핵심역량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여성인물들의 리더십 역량이 여성리더십을 통해 발견되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현대의 리더십 이론들은 서양의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의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허미희, 2007). 이에 근거해 볼 때 한국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토대로 한 사회적 가치관과 문화를 초점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여성리더십 연구에서는 전통사회로부터 이어진 여성의 삶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을 전제로 해야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리더십 이론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여성리더십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를 중심으로 여성리더십 사례를 생활문화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사료, 유물, 관련연구 등 문헌고찰을 통해 조선시대의 여성 리더십의 자료를 사례별로 모아 분석하였다. 修己는 자기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을 의미하고, 치인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修己는 성장 배경과 삶의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생활 영역으로 분류하려고 하며, 治人은 가정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으로 분류하려고 고찰할 것이다.

여성 문인들과 실학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리더십의 핵심역량을 발견하고, 이 요인들이 현대의 리더십 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들에게서 발견되는 修己와 治人の 리더십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개인생활과 더 나아가 가

정생활, 사회생활에 필요한 핵심역량이 될 수 있는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문헌연구 방법과 연구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하는 사례연구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 연구 자료 선정 및 분석

연구의 과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유용한 여성리더십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연구대상으로 조선시대의 문인들과 실학자들을 선정하였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을 중심으로 여성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제 중심으로 지역에서 살았던 여성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념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생애에서 발휘했던 여성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연구대상 인물들은 조선시대의 가부장적인 유교사회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역량을 키워 비범하게 자신의 삶을 펼쳐왔으며, 이들은 족적을 남겨 학문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 인물들로 조선 중기부터 후기를 살았던 여성문인들과 실학자들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을 연구하기 위하여 선정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한희숙(2004)은 조선시대 여성인물을 고찰한 결과 1960년대 인물로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을 선정하였다. 1980년대에 문일평(1988)과 이이화(1989), 1990년대에 김미란(1992)과 한국여성개발원(1998), 이이화(1993), 이문호(2002), 이성미(2002), 이덕일(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문인으로는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과 이매창을, 여성실학자로는 장

계향, 임윤지당, 사주당 이씨, 빙허각 이씨와 강정일당으로 분석한 바 있다.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를 리더십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았으나 점차로 조선시대의 여성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도 이어지고 있었다. 사임당의 자녀교육에 나타난 리더십을 (고은영, 2007)은 수퍼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섬김리더십이라고 보았다. 자녀들을 국가의 리더로 키워 수퍼리더십을 보였고, 사명감 고취시킴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나타내었으며, 사회를 섬기는 섬김리더십을 발휘하였다고 보았다. 유혜림(2004)은 역사상 모범적인 여성지도자를 조사했는데 신사임당이 1위로 나타났으며, 조선시대 여성으로는 허난설헌과 김만덕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 6월 처음으로 5만원권 화폐가 발행되었는데 그 화폐 인물로 신사임당이 선정되었다(우수명, 2010). 이는 남녀평등이 인정되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신사임당이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리더임을 시사해 주는 일이었다.

하성란(1996)은 허난설헌과 황진이의 생애와 작품을 비교하면서 문화에서 겪는 좌절과 고통을 문학을 통해 표출하였다고 보았다. 박미선(2013)은 김만덕의 리더십을 수평적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회적리더십으로 보았다. 권부옥(2014)은 장계향의 여성리더십의 유형을 셀프리더십, 팔로우리더십, 군자리더십으로 보았다. 주영애(2014)는 신사임당의 리더십을 셀프리더십으로 보았으며,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으로 정의하였다.

한희숙(2004)의 연구와 여성리더십에 관한 위의 연구들을 고찰해 볼 때, 본 논문에서는 여성리더십의 연구에 기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조선시대 여성문인으로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과 이매창을 선정하였고, 여성실학자로는 장계향, 임윤지당, 김만덕, 사주당 이씨, 빙허각 이씨와 강정일당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

여성문인(16세기)		여성실학자(17-19세기)	
신사임당	1504 - 1551	장계향	1598 - 1680
황진이	1506?-1567?	임윤지당	1721 - 1793
허난설헌	1563 - 1589	김만덕	1739 - 1812
이매창	1573 - 1610	사주당 이씨	1739 - 1821
		빙허각 이씨	1759 - 1824
		강정일당	1772 - 1832

연구 자료는 연구 대상인 여성 문인과 실학자의 생애와 리더십에 관련된 선행연구, 단행본, 예술 작품, 저서와 업적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의 여성리더십의 사례를 생활문화적으로 조명하여 이들의 리더십이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치를 함의하는바 임을 분석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여성리더십을 생활문화적 관점으로 조명하는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서술한다. 다음 제 II 장 연구방법에서는 연구대상, 연구 자료 선정 및 분석,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III 장에서는 여성리더십의 개념과 특성, 선행연구 경향을 토대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 IV 장에서는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을 문인과 실학자로 나누어 그 특징에 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제 V 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하여 생활문화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한다. 이들의 여성리더십의 유형과 생활문화적 의의를 찾아보고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의 핵심역량을 재조명을 한 후, 실제로 현대에 사는 여성문인과 리더들을 만나 면접조사하여 조선시대의 여성리더십이 현대의 여성리더십에도 유용한지를 사례연구하려고 한다. 제 VI 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으로 마치려고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여성문인(16세기)

조선전기에는 男歸女家婚俗, 子女均分相續 등 평등한 사회가 이어졌지만, 중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여성의 출가금지나 외출규제들을 법제화하는 가부장적 사회관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성리학적 가치관을 확대시키기 위해 『朱子家禮』와 『小學』 등을 보급하였고, 소혜왕후 한씨의 『內訓』에도 가부장적 사회관이 반영되어 있다(박세영, 2012).

조선시대 당시 여성의 삶은 가정 안에서 婦德과 자녀교육에 힘쓰는 것을 규정되었다. 여성들은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노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유교의 가르침인 三從之道를 강요받았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조선중기에 여성문인들과 예술가들이 등장하였다.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은 가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문인으로서의 재능을 발휘하며 규방문학을 이루었다.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역할을 잘하였을 뿐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았으나 유교적 관점에서는 현모양처의 삶만을 부각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허난설헌도 시택과 남편과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했으며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됨으로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또한 황진이와 이매창은 기생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조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표출하면서 기류문학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여성의 활동이 어려웠던 시대를 뛰어 넘어서 문인으로서의 재능을 펼쳤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충분히 재조명할 가치가 있는 리더십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조선중기에 뛰어난 여성문인들과 예술가들이 등장하였다.

2) 여성실학자(17-19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에 큰 타격을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가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 여성들의 규방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성리학의 영향으로 가부장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여성들은 가문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혼인도 여성이 친정에 머무르는 男歸女家婚에서 시집으로 들어가는 親迎制가 확대되면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은 시집의 가문을 사회적으로 으뜸이 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었다(한희숙, 2008).

조선 후기 여성들의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학문적 관심으로 표출되었다. 조선 초기부터 성리학적인 영향으로 시작되었던 婦德 함양교육은 여성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조선후기 여성들은 독서의 영향으로 학문적 관심과 지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저술활동을 시작하면서 실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小學』과 『內訓』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경전을 읽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실학자의 등장으로 『飲食知味方』, 『允摯堂遺稿』, 『胎教神記』, 『閨閣叢書』, 『靜一堂遺稿』와 같은 저술 등 여성들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한 변화의 시기였다.

3) 리더십

리더라는 단어는 1300년경부터,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1800년대 전반에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용어는 서양에서 들어왔지만(백기복, 2011), 조선시대 이전부터 장수가 통솔할 때 통솔자라는 의미로 리더십의 개념은 사용되어 왔다.

전통적 리더십 연구(강정애 외, 2010)에서 “리더십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가 구성원을 동기부여 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나, 현대의 연구들은 “리더, 구성원, 상황변수들을 반영한 통합적 개념”으로 리더십을 정의하고 있다. 박보경(2008)은 “리더십은 직권이나 지위의 범주는 넘어서는 것이며, 동료 간이나 조직의 구조상 아랫사람도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은 상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영향력이야 말로 지도력의 핵심요소가 된다”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리더십은 리더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변화된 후, 다른 사람에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리더는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계발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에 변혁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리더십 개념은 리더의 능력이 리더십의 핵심요소가 되었던 전통적 개념이 아니라, 리더와 구성원과 상황변수를 고려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리더십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성리더십에 관한 정의는 제 III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4) 생활문화

문화란 언어나 관습, 제도와 같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학습되는 지식의 체계이다. 이로 보면 문화란 어느 사회의 전형적인 생활양식으로 이해된다(이길표·주영애, 1999).

우리나라는 서구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면에서 발전되고 변화가 일어났지만, 고유한 전통적인 문화와 역사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의 문물에는 관심이 많아졌으나 우리의 문화는 뒤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것들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현대인들은 세계적인 문화와 언어를 중요시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현대와 가장 가까운 전통사회로 일컬어지는 조선시대를 살아왔던 여성의 리더십에 대하여 생활문화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속에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낸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현대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명경이다.

특히 생활문화는 기존 학문체계에서 주된 연구영역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따라서 생활문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에 내포되어 있는 함의를 찾아 재조명과 보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인으로서의 독특한 생활문화는 하나의 부가가치를 담고 있는 자원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조선의 여성문인들과 실학자들이 살아간 생활문화 속에서 자기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태도를 이끌어 갔던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생활을 비롯하여 가정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에서 발휘된 修己의 생활문화와 治人の 생활문화로 분류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는 역사의 계승 발전의 책무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에게 우리 역사적 인물의 리더십에 나타난 가치를 자긍심 있게 받아들이고 역사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修己治人

자녀들이 태어나서 처음 대하는 인간관계는 가족이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모델링하면서 가정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된다. 그 후 교육기관을 통하여 공적인 교육을 받으며 확장된 사회와의 경험을 갖고 성장하게 된다.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부모와 스승과 동료들을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修己治人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닦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으로 위정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유학이 실현하고자 하는 진리구현의 방법이다(<http://www.korean.go.kr>).

修己治人철학은 조선의 정치이념이었으며, 가치관과 리더십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修己를 자기관리, 자기혁신, 자기확충, 자기실현의 현대적 개념으로 보았다(허미희, 2007). 율곡도 『격몽요결』에서 修己로 자기완성을 이루고, 治人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리더십을 말하였으며, 개인영역, 가정영역과 사회영역으로 확대해 나갔다(김성진, 2015). 修己리더십은 내면의 역량을 발견하고 강화시키는 것으로 리더십의 기초가 된다. 리더는 修己리더십을 세운 후, 나아가 자신의 영향력을 가정, 사회와 국가에 펼치는 治人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治人の 대상은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관계나 조직을 말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관계를 이루게 되는 공동체인 가족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공동체로 확장되어 간다. 治人은 修己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治人の 영역은 齊家, 治國, 平天下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 修己治人 리더십을 자기관리로 역량을 키운 리더가 인간관계나 자신과 관련된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볼 때 조직의 영향력과 성과를

위해 연구하는 현대적 리더십과 동일한 리더십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리더십 이론의 배경이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왔다는 것을 전제해 볼 때 조선 오백년의 사회적인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修己治人の 리더십이 조선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의 배경에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조선시대 여성 문인과 실학자의 생활문화를 배경으로 나타난 리더십을 여성의 修己리더십과 여성의 治人리더십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Ⅲ. 여성리더십

1. 여성리더십의 개념

남성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1300년부터 계속되었지만, 여성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사회 및 조직이론들이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서용희, 2013).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리더의 역량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1990년대부터 더욱 활발해진 이유는 허라금(2005)에 의하면 새로운 리더십을 기존의 남성이 아닌 여성의 리더십을 통해 찾으려는 기대와, 여성들이 남성적인 조직과 문화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스스로 필요한 요건을 찾고자 하는 필요 때문이었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리더십 역량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여성리더십은 생물학적 구분에 의한 ‘여성(female) 리더십’, 인정적으로 구분하여 여성적인 특성을 갖는 ‘여성적(feminine) 리더십’ 과 리더가 리더 역할을 통해 사회적으로 여성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여성주의적(feminist) 리더십’ 의 개념이 있다(허라금, 2005).

허라금(2005), 김양희(2006), 서용희(2013)에 의하면 첫째, 여성리더십(female leadership)은 여성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역사적 사실들을 찾는 것이다.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 속에서 여성의 업무추진 스타일, 인간관리의 특징, 업무방식이나 능력이 어떻게 그들을 성공으로 이

끌어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어떤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여성에게 비우호적인 조직 문화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여성적 리더십(feminine leadership)은 Loden(1985)에 의해서 주장된 여성적인 특성을 갖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관계지향성, 배려, 보살핌 등을 특징으로 하며,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중심의 리더십과 관리구조를 선호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으로 여겨진다(강시현, 2003). 여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평적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코치형리더십으로 불리는 민주적 리더십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여성주의적 리더십(feminist leadership)은 해방적 가치를 기초로 한다. 여성을 생물학적이 아닌 사회적인 범주로서 이해하며, 정치적 의식과 목표 아래 발휘되는 리더십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현실의 권력질서에 저항하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남녀의 차이가 아니고, 리더가 리더 역할을 통해 여성주의적 가치와 목적을 향해 협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김양희, 2006).

‘여성, 여성적, 여성주의적’ 리더십은 구별되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 연결되어 구현되기 때문에 리더십간의 차이를 두기보다는 본 논문에서는 여성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전통사회 문화 안에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삶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오늘날까지 여성리더십의 가치를 드러내었다고 사료되는 여성 문인들과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여성리더십을 고찰하려고 한다. 또한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삶에서 발휘한 여성의 修己리더십과 여성의 治人리더십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유용한 여성리더십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여성리더십의 특성

여성의 리더십은 그 연구의 필요성 및 여성이 가진 세부 직업과 관련하여, 연구된 경향을 보였다. 리더십의 유형은 리더십 역량 이론과 함께 연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리더십 유형과 역량은 <표 2>와 같다.

<표 2> 여성리더십의 유형과 역량

유형	리더십 영역 : 역량	선행연구
셀프 리더십	Manz(1986)제시 / 송영수(2011)	송영수 (2011)
	과업수행 : 커뮤니케이션, 책임감, 정직성, 도전정신, 창의성	김종희 (2014)
	자기 및 관계인식 :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자기통제, 자아성찰	안종인 (2014)
	자기관리 : 동기부여, 자기통제, 자아성찰	박선민 (2016) 조민정 (2016) 서예지 (2016)
감성 리더십	Goleman(2002)제시 / 정현영(2006)	다니엘 골만 (2009)
	자기인식 능력 : 자기감정 및 능력을 인식	정현영 (2006)
	자기관리 능력 :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이성화 (2012)
	사회적 인식 능력 : 직원과 고객의 요구를 인식	고부섭 (2016)
	관계관리 능력 : 직원들과 좋은 인간관계 능력	김정현 (2016)
	서민주(2016)융합된 감성과 기술, 창조성, 상상력, 섬세함과 부드러움, 화합, 유연한 사고와 소통 등	홍은설 (2016)
서번트 리더십	Spears(2005)제시 / 김지아(2016)	한희숙 (2008)
	경청, 공감, 치유	서보미 (2013)
	설득, 인지, 통찰	이은주 (2013)
	비전제시, 청지기 의식	최미섭 (2014)
	구성원의 성장	박순숙 (2015)
	공동체 형성	김지아 (2016)
수퍼 리더십	Manz&Sims(1991)제시 / 박용진(2009)	김쌍언 (2009)
	모델링 : 책임감, 창의력, 지속적 개선, 조직능력 촉진	박용진 (2009)
	목표설정 :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목표설정	김영학 (2009)
	격려와 지도 : 주인 의식, 자신감, 자부심	조주홍 (2010)
	나눔과 질책 : 팀의 성과	권영해 (2013) 박미선 (2013)

변혁적 리더십	Bass(1990) 제시 / 허남철(2009)	김혜숙(2004) 김숙경(2007) 김용구(2008) 김류은영(2008) 허남철(2009) 서용희(2013) 정용락(2014)
	카리스마 : 변화, 이상적 목표, 비전, 열성, 장애초월, 높은 목표, 기인적, 과위 창업가적.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함 -자부심을 주입 -존경과 신뢰를 얻음	
	고무 : 높은 기대를 가지고 의사소통함	
	지적 자극 : 구성원 잠재력 개발, 조언자나 코치, 자율성보장, 권한위임, 리더는 모델 역할. -지식, 합리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함	
	개별적 배려: 문제해결 방법인식에 자극, 능동적리더, 창의적 아이디어, 정서적 자극되면 큰 영향력. -각자를 개인적으로 상대하고, 지도, 충고함	

1) 여성리더십의 유형

셀프리더십의 의미에 관하여 안중인(2014)은 자기주도성, 자기관리, 자기 동기부여를 통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인지적, 초인지적 행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선민(2016)은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실천하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종희(2014)는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리드하기 위해 동기부여하고 행동과 사고를 통제하는 것으로 여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율적 행동이라고 보았다. 송영수(2011)는 하위영역을 과업수행, 자기 및 관계인식과 자기관리로 보았다.

감성리더십은 Goleman(2002)에 의하면 리더가 자신의 감정을 통해 내면을 잘 이해한 후, 부하의 감성 및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리더십의 하위영역은 자아인식 능력, 자기 관리능력, 사회적인 인식능력과 관계관리 능력으로 보았다(정현영, 2005).

김지아(2016)는 서번트리더십은 서번트와 리더가 합쳐진 개념으로 리더가 구성원의 성장을 도와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리더십이다. 즉 조직원들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종업원 및 고객과의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기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가치를 존중하는 리더십으로 정의한다(Greenleaf, 1970). Spears(2005)는 Greenleaf의 서번트리더십을 바탕으로 공감, 경청, 치유, 인지, 설득, 비전 제시, 통찰, 청지기 의식, 공동체 형성, 구성원의 지원의 열 가지 하위영역을 제시하였다(김지아, 2016).

수퍼리더십은 Manz & Sims(1989)에 의해 제안된 리더십으로, 수퍼리더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나 능력을 이끌어내도록 효과적인 절차를 통하여 셀프리더를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Manz & Sims(1995)는 하위 영역을 모델링, 목표설정, 격려와 지도, 보상과 질책으로 요약하였다(박용진, 2009).

변혁적리더십(Bass, 1985)은 리더가 목표달성을 위해 리더의 개별적 배려와 지적자극을 통해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구성원들의 성과와 만족도를 재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이다. 하위영역으로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와 지적자극 등을 제시하였다(허남철, 2009).

위와같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여성리더십을 조사한 결과, 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을 본 연구의 여성리더십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2) 여성리더십의 역량

셀프리더십은 송영수(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리더십의 영역과 핵심역량을 분류하였다. 감성리더십은 정현영(2006), 여성구(2014)의 논문에서, 서번트리더십은 김지아(2016)의 논문을 참고해서 영역과 역량을 구분하였다. 슈퍼리더십은 박용진(2009)의 논문을, 변혁적리더십은 허남철(2009)의 논문을 참고하여 그 영역과 핵심역량을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여성리더십에서의 영역과 역량은 다음과 같다. 셀프리더십에서 과업수행 영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책임감, 정직성, 도전정신과 창의성으로 나타났다. 자기 및 관계 인식 능력에서는 문제해결,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자기통제와 자아성찰로 나타났다. 자기관리능력에서는 동기부여와 자기통제와 자아성찰의 역량이 나타났다.

감성리더십에서 자기인식 능력의 영역에서는 자기감정 및 능력을 인식하는 것으로, 자기관리 능력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사회적 인식 능력에서는 직원과 고객의 요구를 인식함으로, 관계관리 능력에서는 좋은 인간관계 능력으로 역량이 나타났다.

서번트리더십에서의 역량은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인지, 통찰, 비전제시, 청지기 의식, 구성원의 성장과 공동체 형성으로 나타났다.

슈퍼리더십에서 모델링의 영역에서는 책임감, 창의력, 지속적 개선과 조직능력 촉진으로, 목표설정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목표설정으로, 격려와 지도에서는 주인의식, 자신감, 자부심으로, 나눔과 질책에서는 팀의 성과로 역량이 나타났다.

변혁적리더십에서 카리스마 영역에서는 변화, 이상적목표, 비전, 열성, 장애초월, 높은 목표, 기인적 파워와 창업가적임이, 고무의 영역에서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의사소통함, 노력에 초점을 두는 상징을 활용함, 지적자극에서는 구성원의 잠재력 개발, 성장욕구를 위한 조언자나 코치, 자율성 보장, 권한위임, 리더는 모델역할, 지식, 합리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함, 개별적 배려에서는 문제해결 방법인식에 자극, 능동적리더, 창의적 아이디어, 정서적 자극이 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함, 개인에 관심을 둬,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충고함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3. 여성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

여성리더십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여성리더십과 관련하여 진행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주요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리더십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는 변혁적리더십(학위 논문 132건, 학술지 32건), 감성리더십(학위논문 38, 학술지 19), 수평적리더십인 수퍼리더십(학위 논문 35건, 학술지 11건), 서번트리더십(학위논문 23건, 학술지 12건)에 관한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여성리더십과 관련하여 1994년부터 총 15건의 박사학위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자 및 논제는 다음과 같다.

<표 3> 여성리더십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

	연구자	논 제	출 처
1	박혜숙 (1994)	변환적 및 거래적리더십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여성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	허진 (2007)	남성과 여성의 리더십 비교: 중앙행정부처 과장 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3	정찬선 (2007)	초기교회에 나타난 여성이해와 리더십 역할에 관한 고찰: 초기교회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4	류은영 (2008)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리더십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5	강호숙 (2009)	교회 여성리더십의 이론적 근거와 실천 방안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6	정경화 (2011)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성 분리 지각과 여성리더에 대한 평가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7	김선경 (2012)	교육공간의 여성리더십의 유형과 효과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8	서용희 (2013)	학교장의 여성적리더십 특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9	이은주 (2013)	효과적인 목회사역을 위한 여성리더십과 여성 리더십 고양을 위한 시리즈 설교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10	유성희 (2013)	한국 YWCA 운동의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에 관한 연구: 정체성·조직·리더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1	최미섭 (2014)	여성 학교장의 리더십 특성 분석	공주대학교대학원
12	김중희 (2014)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13	서은경 (2015)	사회복지조직의 여성적 리더십 요인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14	서민주 (2016)	항공사 승무원 팀장의 여성적 리더십이 직무열의와 직무만족을 통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15	장운선 (2016)	한국 여성 NGO 활동가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여성리더십에 관한 15편의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혜숙(1994)은 여성이나 남성은 특정 리더십 스타일을 독점할 수 없으며 리더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여성리더는 여성적인 면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경영을 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한국 기업에는 변환적리더십을 적합하다고 보았다. 허전(2007)은 한국 중앙행정부처의 남성과장과 여성과장의 리더십 성향 비교에서 남성지배적인 구조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남성적 특성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박혜숙(1994)과 허전(2007)의 연구에서 리더십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아닌 리더 자신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서용희(2013)의 연구에서는 학교장이 발휘하는 여성적 리더십의 특성을 배려, 관계 맺기, 임파워먼트, 함께 하기, 총체론적 사고로 파악하였다. 최미섭(2014)은 여성학교장은 변혁적 리더십이 높고 개인적 배려, 돌봄적 특성이 두드러지며, 세심하고 원칙주의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종희(2014)는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리드하기 위해 동기부여하고 행동과 사고를 통제하는 리더십으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이라고 보았다.

서은경(2015)은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통합적인 요소가 요구되는 여성적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확인하였다. 목표제시,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구성원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하여 조직에 기여하도록 멘토링과 권한위임을 수행하는 변혁적리더십을 여성적리더십으로 보았다. 서민주(2016)는 항공사 승무원팀장은 융합된 감성과 기술, 창조성, 상상력, 여성의 특징인 섬세함과 부드러움, 화합, 유연한 사고와 소통, 구성원을 배려하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감성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여성적리더십으로 상호작용적 리더십, 민주·참여적 리더십, 변혁적리더십을 제시하였다.

최미섭(2014), 서은경(2015), 서민주(2016)는 여성적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으로 보았다. 최미섭(2014)은 여성학교장은 변혁적 리더십 성향이 높고 개인적 배려, 돌봄적 특성이 두드러지며, 세심하고 원칙주의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현대여성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결과 셀프리더십, 서번트리더십, 감성리더십, 수퍼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 여성 문인과 실학자에게 나타난 리더십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현대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나타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성리더십이 조선시대 문인과 실학자들이 발휘했던 리더십과의 연관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전 단계에서 필요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IV.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

1.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 문화적 고찰의 의의

조선 중기와 후기에 살았던 여성문인들과 여성실학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사상적 배경을 알아봄으로 이들의 여성리더십을 고찰하는 의의를 찾고자 한다.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의 50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이 시작되었던 1392년부터 14-15세기를 조선전기로, 여성문인들이 활동했던 16세기를 조선중기로 분류하고, 여성실학자들이 활동했던 17-19세기까지를 조선후기로 분류하고자 한다. 조선중기와 후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적으로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와 가치관이 크게 변화된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유교적 정치이념이 확고하게 되었고, 성종 때에 훈구세력과 사림세력의 대립, 연산군 4년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와 을사사화 등 사화, 여진족과 외적의 침입에 이어 임진왜란의 전운이 감돌아 전쟁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었다(하성란, 1996). 17세기가 되면서 내적으로는 사화의 충격, 정파의 분립,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과의 군사적 외교적 과제가 주어진 시기였다(이기순, 2005).

사회적으로는 성리학이 강화되었으며, 역불송유정책과 함께 나타난 가부장적 사회관이 확립되면서 여성들에게 남녀차별의 사회적 규제를 가하였다. 혈통중심으로 가문을 강화하였고, 남녀유별의 규범을 통해 남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친영제와 장자단독봉사도 자리를 잡아 갔다. 박세영(2012)에 의하면 『朱子家禮』, 『小學』, 『內訓』을 보급하면서 여성에게

남녀칠세부동석과 내외법 등 많은 규범을 지키도록 요구했다. 법전인 『經國大典』에는 여성의 출가금지나 외출 규제들을 법제화 하는 등의 사회관이 확립되었다.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의 실천의 단계로 여성들의 사상이 정립되어 갔다. 중국의 『女誡』, 『女論語』, 『內訓』, 『列女傳』, 『小學』 등을 전해졌고, 세종 14년 『三綱行實圖』와, 소혜왕후의 『諺文三綱行實烈女圖』와 『女訓』이 발행됨으로(장산, 2016). 여성들은 가정과 가문을 세우며 글읽기를 시작하였고 나아가 시와 산문을 쓰고, 서적을 발행하는 업적을 남기기 시작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양관과 서학의 유입으로 여성들의 세계관은 더욱 확대되었고 남녀관계에 대해서도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의 생활문화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가정과 가문을 세우며, 자녀교육과 친족과 노비를 다스려야 했고, 제사와 빈객을 대접해야 했다. 가정과 가문을 세우기 위해 수신서와 경전을 읽으며 지적수준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조선전기 여성들은 문인으로서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식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여성실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조선사회에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다고 사료된다.

생활문화란 사람이 일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중심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관습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활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인정하는 질서이자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유행이다(이향숙, 2011).

생활문화는 전통사회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생활문화의 영역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의식주 생

활뿐만 아니라 육아 및 건강관리, 가정생활교육, 예의생활 등의 구체적 삶의 모습을 담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규범적인 의의를 지니고 전해 내려오는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이길표·주영애, 1999).

이영미(1989)는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문화교육의 하위영역을 수신, 부부의 도, 효친, 형제친척간의 화목, 자녀교육, 가사, 봉제사, 가게운영, 손님접대로 분류한 바 있다. 한편 이길표·주영애(1999)는 우리의 생활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 가정경영관, 효, 가훈, 가사작업관, 경제생활관, 생활예절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현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희숙(2008)은 조선후기의 여성의 생활문화를 가정과 가문관리, 자녀교육, 친척과 노비관리와 제사와 빈객 접대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 당시의 여성들에게 나타난 리더십이 현대에도 유용한 여성리더십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학맥에 따라 이향숙(2011)은 우리의 삶은 전통적인 한국적 가치관이 기반이 되어 의식주와 관혼상제와 전통생활문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전통생활문화 속에는 민족의 정체성과 우수성이 깃들여 있다고 하여 그 중요성을 추가적으로 부각시켜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활문화적인 관점을 기초로 볼 때 전통사회 여성의 리더십 고찰은 생활문화적 관점을 벗어나서 논의되는 것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허미희(2007)는 유교의 지도자 덕목이며 조선시대 정치 이념인 수기치인 철학과 서구적 리더십이 관계가 있음을 검증함으로 한국적 리더십을 정립하였다. 이성진(2015)은 『擊蒙要訣』에 나타난 유학의 핵심사상을 修己治人으로 보았고, 修己는 내적으로 자기완성을 이루고 治人은 외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자기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전통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가정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修己治人の 리더십은 서양의 현대적 리더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말하며, 리더십의 영역을 개

인영역, 가정영역과 사회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현대사회에서의 리더는 자신을 수양하고, 인간관계에서 남에게 모범이 됨으로서 조직구성원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조선의 유교문화에서 나타난 리더십은 리더는 내면을 관리하는 자기관리인 수기의 리더십과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치인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표 4> 생활문화에 관한 연구와 하위영역

연구자	논제	하위영역
이영미 (1989)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수신, 부부의 도, 효친, 형제와 친척간의 화목, 자녀교육, 가사, 봉제사, 가계운영, 손님접대
이길표·주영애 (1999)	『傳統家庭生活文化研究』	교육, 가정경영관, 효, 가훈, 가사작업관, 경제생활관, 생활예절
허미희 (2007)	수기치인 철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修己：修身 治人：齊家，治國，平天下
한희숙 (2008)	조선후기 양반여성의 생활과 여성리더십, 한국여성사학회.	자녀교육 가정과 가문관리: 경제, 친족과 노비, 제사와 빈객
이향숙 (2011)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의식주(衣食住)와 관혼상제(冠婚喪祭)
이성진 (2015)	『擊蒙要訣』로 본 율곡 리더십 프로그램 모형 개발, 성신여자대학교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修身：개인영역 齊家：가정영역 治國：사회영역

위의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조선 여성의 생활문화를 修己와 治人の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려고 한다. 修己의 생활문화는 성장 배경과 삶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 개인생활 영역을, 治人の 생활문화는 가정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으로 분류하려고 한다. 가정생활 영역은 부부관계, 효를 중심으로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가정경제, 의식주와 가정경영의 내용들을 조사할 것이며, 사회생활 영역은 학문과 사상, 업적을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표 5> 생활문화에 나타난 修己와 治人

구분		내용
修己	개인생활 영역	성장배경, 삶의 태도
治人	가정생활 영역	부부관계, 효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관계 가정경제와 의식주, 가정경영
	사회생활 영역	학문과 사상, 업적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사회 여성의 삶의 주된 영역인 가정생활에서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여성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에 유용하다.

둘째,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문화에는 여성의 감성적 특성을 발현시키는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소재가 된바가 많다. 여성문인의 리더십사례 분석에 유용하다.

셋째, 생활문화에는 삶의 영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물과 사물의 관리행위를 수반하고 그러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의식,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다. 조선시대 실학의 등장은 사회변화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 의례, 가족생활에 이르

기까지 변화를 야기시켰으며, 실용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추구하였던 여성실학자들의 노력은 생활문화의 변화를 주도해 왔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가내에 머물고, 男不言內 女不言外의 규범 속에서 생활한 여성의 삶과 관련된 여성리더십 연구를 위해서는 당시 여성의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야 하며, 그 가운데에 어떻게 리더십이 발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거시적인 정치, 사회, 경제의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여 분석하는 관점보다, 여성리더십 분석에 유용한 것이라 사료된다.

2. 조선시대 여성문인의 삶과 리더십

조선 중기 여성에 대한 가치관과 지위는 크게 변화하였다. 교육은 남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자들은 시부모를 섬기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 등 婦德을 쌓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학문과 예술 분야의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이 시기에 신사임당과 허난설헌과 같은 학문과 예술성을 겸비한 여성문인이자 예술가가 등장하였고, 황진이와 이매창과 같은 시인들도 등장하였다.

1) 신사임당(1504-1551)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머니상과 현모양처상을 말한다면 신사임당을 들 수 있다. 사임당은 가정을 잘 관리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였을 뿐 아니라 학문에도 뛰어났으며 역사적으로 詩書畫의 예술성이 뛰어난 조선의

여인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와 율곡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예술가의 모습보다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1) 修己

신사임당은 연산군 10년인 1504년에 강릉 외가에서 다섯 딸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신명화는 신승겸의 18대 손이며, 어머니는 참판 최응현의 외손녀인 용인 이씨였다. 본명은 申仁善이다.

당호 師任堂은 중국 고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최고의 여성상이었던 태임¹⁾을 본받고자 하였음을 말해준다(강민수, 2011; 박세영, 2012). 사임당의 修身의 덕목이었던 성실을 자녀에게 가르쳐 부모와 사회에 성실함으로 대해야 할 것을 교육했는데, 사임당의 영향으로 율곡도 일과 사람에게 성실히 대하는 ‘誠의 철학’을 강조하였다(김지선, 2010).

사임당은 유교사회의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생활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였던 태임을 닮은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은 중국의 태임과 같이 한국의 어머니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사임당은 외조부 이사온, 외조모 최씨와 부모에게서 글과 그림을 배웠다. 외조부 최응현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던 어머니 용인이씨는 사임당을 존경받는 어머니상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였다. 오늘 날 사임당이 효녀이며, 훌륭한 어머니이며, 덕을 갖춘 아내인 현모양처로 불리우며, 예술가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부모의 가정교육과 선조들의 집안배경의 영향력이 컸다고 보여진다.

1) 율곡이 기록한 『外祖父 進士 申公 行狀記』에 어머니의 아호를 師任으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師任의 의미는 師는 배우고 본받는다는 뜻이며 任은 주나라 文王의 어머니 太任을 뜻하는 것이다. 사임당은 태임을 본받기 위해 아호를 스스로 ‘師任堂’이라고 정하였고 婦德 연마에 힘썼다. 사임당은 태임의 婦德을 본받아 훌륭한 어머니가 되겠다는 인생관을 갖고 살았다(임선택, 2005)

(2) 治人

① 가정생활 영역

사임당은 19세 때(1522) 3살이 위인 이원수와 결혼하였는데 이원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18촌 동행간인 덕수이씨였다. 이원수는 홀어머니 홍씨 슬하에서 성장하였으나 사임당이 학문을 권유함으로 이원수는 50세에 수운관관이 되었다(이은상, 1994). 사임당은 딸들에게는 현모양처로서의 덕을 기르도록 교육하였다. 시집이나 남편의 허물을 친정에 말하지 말 것과 시부모께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오시림, 1986).

사임당은 4남 3녀에게 자녀교육을 하였는데 맏딸 매창과 막내아들 우는 詩書畫에 능했다. 셋째 아들인 율곡은 신사임당의 교육의 영향으로 정치가로서 충효사상의 기반을 닦았으며, 철학, 교육과 사상에서도 선각자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신사임당은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서 대표적인 현모양처상으로 부각되고 있다(성윤자, 1998). 넷째 아들인 막내 우의 호는 옥산인데, 거문고의 대가로 소리가 맑고 웅장하여 감탄하였다. 이은상(1994)에 의하면 초서체가 뛰어나 우암 송시열도 옥산의 글씨를 칭찬하였다고 한다.

사임당의 생활신조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었다. 딸들에게는 婦德을 갖춘 현모양처가 되도록 교육하였다. 내훈에서 말하는 四德인 婦德, 婦言, 婦容과 婦功을 강조하였다(주영애, 2014).

임선택(2005)은 사임당의 자녀교육을 6가지의 항목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태교교육을 심성과 인간성교육으로 보았다. 둘째, 부모를 섬겨야 한다고 교육하였다. 셋째, 형제우애를 강조하였다. 넷째, 학문을 시작하기 전에 뜻과 방향을 세우는 입지를 강조하였다. 다섯째, 부모 및 부부간의 정신

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신의를 강조함으로 인간관계에 덕을 쌓도록 가르쳤다는 것이다. 한편 김지선(2010)도 신사임당의 자녀교육관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보고 자녀들이 배워 실천하는 전인 교육을 하였다. 둘째, 자애로움과 엄격함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하였다. 셋째, 효를 강조하였다. 넷째, 덕성과 예지를 닦는 전인지향교육을 함으로 修己治人の 도를 완수한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성지도자를 신사임당으로 본 이유는 가정에서의 역할모형이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임당은 훌륭한 어머니로서 대학자 율곡을 교육했다는 점에서 여성지도자로 평가되었다. 여성성의 이미지는 온유함, 외유내강형, 헌신과 교양, 따뜻함을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유혜림, 2004).

사임당의 가훈은 신의·지조·청백·성실·우애였으며 집안의 생활신조로 이어져왔다(<http://encykorea.aks.ac.kr>). 사임당은 가정 중심으로 살았지만, 자녀들에게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침으로 나라에 사회적인 영향을 발휘하도록 교육하였다. 정치가이며 사상가였던 율곡, 매창과 옥산과 같은 인물들을 키운 뛰어난 교육자였다. 신사임당은 혼인 후에도 친정에서 살았던 사임당은 시어머니 흥씨가 살림하기 힘들어하자 한양으로 이사하였는데 한양에 온지 10년째인 48세(1551)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임당은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재능에 따라 교육을 시킨 점은 오늘날 부모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② 사회생활 영역

사임당의 학문과 사상은 책과 가정교육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女性, 女論語, 內訓, 女範, 烈女傳, 明鑑, 小學 등의 여성교육서를 읽으며 목표를 夫婦,

孝親, 母儀, 婦儀, 敦睦, 儉素에 두고 현모양처의 인간상을 그렸다. 자녀교육의 목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며, 사임당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도 修己治人の 道를 완수하였다(김지선 2010).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草蟲圖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호이며 10폭 병풍으로 종이 바탕에 수묵담채로 그렸다. 오죽헌의 율곡기념관의 소장품으로 세로 48.5cm, 가로 36.0cm이며, 오이와 메뚜기, 물봉선화와 쇠똥벌레, 수박과 여치, 가지와 범의 땅개, 맨드라미와 개구리, 가선화와 풀거미, 봉선화와 잠자리, 원추리와 벌 등이 그려져 있다(<http://encykorea.aks.ac.kr>).

신사임당은 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유교의 경전과 문집들은 탐독하여 詩와 문장에도 능숙했다. 혼인 후 사임당은 친정 강릉에서 살았는데 서울 시택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외로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다(이은상, 1994).

踰大關嶺 望親庭	대관령을 넘으며 친정을 바라보다
慈親鶴髮 在臨瀛	늙으신 어머니는 고향에 두고
心向長安 獨去情	외로이 서울 길로 가는 이 마음
回首北村 時一望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白雲飛下 暮山靑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 내리네.
[栗谷僕 先妣行狀]	

사임당은 踰大關嶺 望親庭에서 어머니에 대한 孝를 신하의 임금에 대한 忠으로 대응하고 있다. 흰 구름은 어머니의 백발을, 푸른 산은 사임당을 상징한다. 백발의 노모를 강릉에 두고 서울로 가면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이은혜, 2003).

현모양처이자 자신의 재능을 펼쳐 걸출한 예술적인 작품을 남긴 사임당의 삶에 대한 재평가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표 6 > 신사임당의 삶에 나타난 修己와 治人

신사임당		
修己	개인생활 영역	부모로부터 학문과 예절을 배워 진실한 마음과 성품을 가졌고, 학문을 통해 (자아성찰)을 하였고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관리를 하였다. 신의와 성실을 삶의 태도로 자기만의 (창의적)인 삶을 살았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인간관계능력)을 나타내었, 사회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식 능력)을 가졌다. ⇒ 자아성찰, 책임감, 창의성, 관계관리, 사회적인식능력
治人	가정생활 영역	부모에게는 효를, 남편의 학문을 격려하고, 자녀를 재능대로 (비전과 사명)을 제시하고 가족(구성원을 성장)시킴. 현모양처의 (삶의 모델)이 되었고, 집안사람들을 (나눔과 질책)으로 교육함. ⇒ 구성원의 성장, 모델링, 나눔과 질책, 비전과 사명감
	사회생활 영역	학문과 재능을 갖춘 예술인으로 성장함. 자녀들을 통하여 사회적 공헌을 하였음. 예술가의 (이상적인 목표)를 이룸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았고,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초충도’가 있다. ⇒ 이상적인 목표, 존경과 신뢰, 창의적아이디어

2) 황진이 (1506?-1567?)

16세기 인물로 황진이만큼 대중을 관심을 받은 인물도 흔치 않다. 황진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당시의 일반적인 여성의 삶과는 다른 독특성과 그녀가 남긴 작품들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작품은 『靑丘永言』과 『海東歌謠』에 실려 있는데 당대는 물론 현대에도 최고의 작품으로 문학성을 자랑한다(진염홍, 2014). 작품은 한시가 8수, 시조가 6수 정도가 남아있는데, 8수의 한시는 주로 애정시, 이별시와 회고시가 있다(허여형, 2015). 많은 기녀들 중에서도 황진이가 주목되는 이유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시인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1) 修己

16세기의 시인인 황진이는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생에 관한 기록으로는 『松都紀異』에 의하면 황진이는 황모진사의 서녀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진현금은 매우 아름다웠다. 황진이는 황진사의 서녀라는 설과 맹녀의 자식이라는 설로 양분되어 있는데 황진사의 서녀라는 기록이 더 많이 있다(진염홍, 2014).

황진이는 홍윤보라는 총각이 상사병으로 죽었는데 그 시신이 황진이 집 앞에서 움직이지 않자 처녀인 황진이가 생면부지의 사내 시체에 옷을 덮어 주자 시신이 움직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이화영, 2014). 황진이는 운명을 예견하고 기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을 것으로 본다. 여성은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장성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三從之道라는 제도에서 벗어나 남자들과 자유롭게 겨루어 보기 위해 기녀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스스로 기적에 올라 기생이 되어 명망 높은 선비들과 시를 나누고 거문고를 뜯고 창을 부르는 길을 선택한 것은 풍습이나 규범을 뛰어넘어 자신의 세계를 만들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안남연, 2007). 기녀는 천민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15세에 기적에 올라 일반적으로 음률을 익히고 춤을 배우며, 서화와 전공악기를 한 가지씩 배웠다(이배용, 2005). 황진이는 어려서부터 千字文, 烈女傳, 四書三經 등을 익혔고, 거문고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져 당대의 명기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졌다고 한다(박영신, 1983).

황진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아마도 남자들과의 교류로 인한 것이아

니었을까 한다. 평생을 스승으로 모신 대학자인 花譚 서경덕, 명창인 宣傳官 이사중, 소세양, 왕실 종친인 벽계수와 지족선사나 풍류객 임제에게도 황진이는 연모의 대상이었다(김성문, 2014). 황진이는 자유로움은 누렸지만, 규방여성들이 느끼지 못하는 외로운 마음을 품고 살았을 것이다.

相思夢에서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사랑은 꿈을 통해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만남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화합과 환희와 소망이 나타나는 작품으로 황진이의 미래지향적인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이화영, 2014).

相思夢

相思相見只憑夢	그리움과 만남이 다만 꿈길뿐이니
儂訪歡時歡訪儂	내 입을 찾아갈 때 임도 날 찾는다오
願使遙遙他夜夢	바라건대 언젠가 다른 밤 꿈속에선
一時同作路中逢	한때에 길을 떠나 도중에서 만나요

『東國詩話彙成』

황진이는 애정의 한을 멋으로 승화시킨 시로 표현하였다. 자유를 누리며 예술가로 살 수 있었지만,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던 현실은 불우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治人

조선 전기 사회는 三從之道가 여성의 미덕으로 강조되던 사회였다. 이 시기에 황진이가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인 태도로 살았던 근본에는 강한 자기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정문, 2004). 이신복(1981)에 의하면 황진이는 성품이 고결하여 번잡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천한 무리들은 비록 천금을 준다 해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의 기녀들은 대부분 이별을 노래하였지만, 황진이는 이별에 그치지 않고 자연을 예찬하는 시를 통해 자연애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박연폭포를 사랑했던 황진이는 미래 지향적인 소망과 의지를 실어 박연폭포라는 시를 지었다(이화영, 2014).

朴淵瀑布
 一派長天噴壑龍
 龍湫百仞水叢叢
 飛泉倒瀉疑銀漢
 怒瀑橫垂宛白虹
 電亂霆馳彌洞府
 珠簾玉碎徹晴空
 遊人莫道廬山勝
 『大東詩選』

박연폭포
 한 줄기 긴 물줄기가 바위에서 뿜어나와
 폭포수 백 길 넘어 물소리 우렁차다
 나는 듯 거꾸로 솟아 은하수 같고
 성난 폭포 가로 드리우니 흰 무지개 완연하다
 어지러운 물방울이 골짜기에 가득하니
 구슬방아에 부서진 옥 허공에 치솟는다
 나그네여 여산이 뛰어나다 말하지 말라

송도의 기생인 황진이는 박연폭포를 자주 방문해 풍류를 즐겼을 것이다. 송도의 박연폭포가 중국의 폭포보다 낫다고 단정하는 그녀의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볼 수 있다. 황진이는 조국의 자연을 사랑했는데 그 마음이 박연폭포에 나타나고 있다(성윤자, 1998). 황진이는 松都三絶을 박연폭포, 서경덕과 황진이 자신이라고 말함으로 자부심이 강하고 호방한 성격 가진 여인이었음을 보여준다(하성란, 1996). 황진이가 고국에 대한 향수를 노래하고 있는 3수의 한시는 만월대회고, 송도, 박연폭포이다. 박연폭포는 조국에 대한 향수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면, 송도와 만월대회고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허여형, 2015).

松都

雪中前朝色	눈 가운데 옛 고려의 빛 떠돌고
寒鐘故國聲	차디찬 종소리는 옛 나라의 소리 같네
南樓愁獨立	남루에 올라 수심 겨워 홀로 섰노라니
殘廓暮烟香	남은 성터에 저녁연기 피어 오르네

송도는 옛 고려의 수도이다. 황량해진 개성의 모습을 읊고 있다. 세월이 지나가도 고국에 대한 향수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내용이다.

황진이의 <작은 잣나무 배>는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표출하는 시이다. 자신을 작은 배에 비유하고 있다(허여형, 2015).

小栢舟	잣나무 배
汎彼中流小栢舟	저 강 한가운데 떠 있는 조그만 잣나무 배
幾年閑繫碧波頭	몇 해나 이 물가에 한가로이 매였던고
後人若問誰先渡	누가 먼저 건넜느냐 사람들이 묻는다면
文武兼全萬戶侯	문무를 모두 갖춘 부귀한 사람이라 하리

황진이는 조그만 잣나무 배를 자신으로 비유한다. 소박하지만 현실과 미래를 지향하는 희망을 암시한다. 미래를 향해 임과 동행하려는 의지적 모습이 느껴진다. 소백주와 박연폭포에도 그녀의 미래지향적 소망이 확산되고 있다(이화형, 2014). 국문학 사상에 있어서 황진이의 위치는 전통적인 민족의 리듬으로 한국 여성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정감과 여성들의 정한을 시조와 한시로 묘사한 점에 있다고 보았다(허경진, 1993). 황진이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고독과 허무함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행과 불행을 겪어지고 도도하게 살아간 그녀의 삶을 느끼게 한다. 황진이는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미래 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다(김성문, 2014).

송도는 옛 고려의 수도이다. 8수의 한시 중 松都, 滿月臺懷古는 고국 송도에 대한 향수를, 朴淵瀑布는 송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奉別蘇判書世讓, 別金慶元은 이별의 연정을, 詠半月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후 그리운 마음을, 相思夢과 小栢舟는 사랑하는 남자를 그리워하는 고독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허여형(2015)은 조선의 대표적인 기녀 황진이의 삶을 고독을 시로 승화시킨 생애였다고 말한다. 황진이의 삶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해 볼 때, 홀로 살았던 기녀 신분이었지만, 신분에 억매이지 않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온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는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로 풍부한 감수성을 갖고 있었으며, 자연을 소재로 한 시를 짓고, 예술적 감각을 다양하게 표출한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황진이의 삶에 나타난 修己와 治人

황진이		
修己	개인생활 영역	황진이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자신의 신분과 기질을 인식)했으나 좌절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기녀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조선의 가부장적 사회에 (도전)하며 자신의 삶을 (창의적)인 시로 읊으며 살아내었다. ⇒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주도성, 자아인식능력
治人	사회생활 영역	기녀의 길을 선택할 때에 강한 자기애를 표출하였다. 인간적 한계를 느끼며 자연애로 안목을 확대하여 바라보고 시와 시조로 표출함으로써 (장애를 극복)하는 (기인적인 삶)을 살았다. 현대에 살았다면 예술가로서 의 삶에 인정과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시와 시조 남김. ⇒ 장애초월, 기인적인 삶, 창의적 아이디어.

3) 허난설헌(1563-1589)

허난설헌은 타고난 문학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명문가에서 부모에게 받은 교육이 최고의 여류시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라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맘껏 학문을 탐구하였으며, 이름과 자, 그리고 호까지 지녔던 여성이었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이로 알려져 있다. 당시 여성들에게 婦德함양을 요구했기 때문에 혼인 이후에는 가정불화로 인해 불우하게 살면서 시로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켰다.

(1) 修己

허난설헌은 1563년에 외가인 강릉 초당에서 태어나 27세에 세상을 떠났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조선의 정세는 4대 土禍, 공신과 외척 등의 勳舊와 재야의 정치 세력인 士林간의 정쟁으로 인한 혼란한 시기였다(박세영, 2012).

난설헌은 양친 허씨, 이름은 초희, 자는 경번이다. 楚姬에서 姬는 미모가 뛰어난 여자의 호칭으로 초희는 초장왕의 부인 변희²⁾를 상징한다. 난설헌은 호인 동시에 호칭이었다. 蘭과 雪은 모두 맑고 깨끗함을 상징하므로 단아하고 고매한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장산, 2016).

난설헌은 강릉의 명문가인 허씨 가문에서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아버지 허엽과 어머니 강릉 김씨 슬하에 둘째딸로 태어났다. 부친 초당은 화담 서경덕에게 배웠으며 서경덕의 사상은 허엽에 이어 난설헌과 허균에게도 이어졌다. 강릉 처가 마을에서는 존경했던 허엽의 호를 따서 마을 이름을 초

2) 춘추시대에 변희는 재주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부인으로 왕에게 현명한 의견을 올려서 위대한 왕이 되는데 공헌하였다(장산, 2016).

당으로 불렸다(하성란, 1996). 허엽, 허성, 허봉, 허난설헌, 허균은 문장이 뛰어났다. 허봉은 천재적인 문장가로 난설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허봉과 허균 사이에서 글을 배운 난설헌은 여신동이라고 불렸다(박세영, 2012). 아름다운 용모와 성품이 뛰어난데다 문학적 재능을 난설헌은 허균의 글벗이었던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다. 이달은 당시풍의 시를 써서 새로운 시풍을 일으켜 이름을 떨쳤는데 난설헌과 허균에게 영향을 주었다(박재완, 2013).

난설헌은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덕망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문학적 수양을 쌓으며 행복하게 자랐지만, 혼인을 하면서 유교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시대의 불화를 겪었다. 총명한 난설헌은 남자형제들과 함께 글을 익혔다. 자신의 이름으로 시집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으로서 중국에서 먼저 문명을 떨쳤으며 천여 편이 넘는 시를 지은 천재라는 평을 받고 있다. 27세에 짧은 생애를 마쳤다.

(2) 治人

① 가정생활 영역

15세 경 안동 김씨 김성립과 혼인하였는데 난설헌보다 한 살위인 김성립은 문학외 여러 가지 면에서 난설헌에게는 부족하였다. 학문에도 뜻이 없었으나 난설헌이 죽던 해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夫爲婦綱을 따르는 유교사회에서 하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난설헌은 집을 나가서 애첩과 놀기만 하는 김성립과 이별하고 싶다고 말했다(장산, 2016). 남편과의 불화, 시어머니의 학대, 남매를 모두 잃었고 임신중인 아이까지 잃었다. 허봉의 죽음과 허균의 귀양 등 고통이 계속되자, 난설헌은 독서와 시작으로 도전하였다. 그

너는 첫째, 왜 조선에 태어났을까? 둘째, 왜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를 갖지 못한 서러움을 당하게 되었나? 셋째, 왜 김성립의 아내가 되었는가?라는 한을 품고 27세에 생을 마감했다(하성란, 1996).

② 사회생활 영역

난설헌의 뛰어난 재능과 미모는 인생을 힘겹게 만드는 장애가 되었다. 난설헌이 가정불화에 대한 평판과 허균의 모반죄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녀의 재능은 더욱 더 인정받지 못했다(허미자, 1984). 허난설헌이나 허균이 활동했던 시기 초에는 비난이 거의 없었는데 후기에 갈수록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보인다. 허봉도 타고난 글재주라고 칭찬하였으며, 허균도 누이는 하늘에서 내린 선녀의 글재주를 지녔다고 말했다. 선조 때의 심수경도 『遭閑雜錄』에서 난설헌의 문학을 극찬하였다(박세영, 2012). 난설헌의 시는 중국 문단에서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중국에서 조선인의 시문집이 편찬되거나 간행된 예는 별로 없었으나, 난설헌의 시는 반드시 들어갔으며,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실렸다. 중국인들은 규방을 벗어난 여성 시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허미자, 2007).

그러나 허균의 정치적 실각과 임진왜란 후의 정치·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봉건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난설헌 문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 갔다(박혜숙, 2004).

빈녀음은 가난한 여자의 노래이다. 예쁘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나지만 빈곤한 여인은 행복해질 수 없는 사회적 모순을 지적하였다. 독수공방하는 난설헌의 마음을 추운 밤에 남의 신흠 옷을 짓지만 자신은 홀로 지내는 가난하고 외로운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다(장산, 2016).

貧女吟

가난한 여자의 노래

豈是乏容色
工鍼復工織
少小長寒門
良媒不相識

어찌 용모가 부족하리오마는
바느질하다가 길쌈도 하네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좋은 중매가 알아주지 않는구나

手把金剪刀
夜寒十指直
爲人作嫁衣
年年還獨宿

손에서 금가위를 잡고
밤이 차가워서 열 손가락이 뻣뻣하네
다른 사람을 위해 시집갈 옷을 짓지만
해마다 도리어 홀로 자고 있네

명문가에서 자란 허난설현은 시를 통해 가난한 여자의 고통을 노래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둘러보는 참된 인간애를 지닌 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고난은 작품세계의 시각을 넓혀주고 있다

김희정(2003)은 ‘허난설현에게 꽃은 꿈의 세계인 仙界를 여성적 정서로써 장식하는 수단이었다.’고 보았다. 三從之道와 七去之惡으로 대변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고통과 슬픔의 날을 보내며 꿈의 세계를 그리워하였다.

당시 <采蓮曲>이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한국 시인들은 연애시를 지었다. 婦德이 없이 시만 잘 쓰면 무얼하느냐는 평가를 받게 된 시이지만, 난설현이 연꽃을 통하여 애정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연애시이다(김명희, 2013).

採蓮曲

연꽃을 따는 노래

秋淨長湖碧玉流
荷花深處係蘭舟
逢郎隔水投蓮子
遙被人知半日羞

해맑은 長湖 벽옥이 흐르는 듯한데
연꽃 우거진 곳에 목련배를 매었네.
물 건너 임을 보고 연밥 따서 주고는
혹시나 남 봤을까 한나절 부끄러웠소.

난설헌의 시에서 남편은 늘 그리운 존재로 표현되었다, 재회의 기쁨을 나눈 시는 없으며, 고독을 통하여 창의적인 예술의 세계를 펼쳐나간다. <夜夜曲>은 깊은 밤과 같은 현실을 대치하는 난설헌의 시이다(박재완, 2013).

夜夜曲
 蟋蟀切切風瀟瀟
 芙蓉香褪永輪高
 佳人手把金錯刀
 挑燈永夜縫征袍
 玉淚微微燈耿耿
 羅幃寒幅秋宵永
 邊衣裁罷剪刀冷
 滿窓風動芭蕉影

깊은 밤의 노래
 애절한 매미 소리에 스산한 바람
 연꽃 향기 가시고 높이 뜬 하얀 달.
 가위를 손에 쥔 채 임 그리는 여인
 긴 밤에 등잔불 돋우어 군복을 꿰매네.
 물시계 소리 나직하고 등잔불 깜박이니
 비단 휘장 싸늘하고 가을밤은 길기도 하네.
 변방에 보낼 옷 다 짓고 나니 가위도 싸늘하네
 바람따라 움직이는 파초 그림자만 창을 흔드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전에도 외적의 침입이 잦아 사람들은 국방을 염려하였고, 전쟁에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난설헌은 동시대 다른 여성들의 고통에도 주목하여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을 창작하였다.

난초는 창문 아래 곱게 자라고 은은한 향기를 품는다. 어릴 때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라 공부하고 재능을 발휘한 난설헌과 같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시들어가는 난초를 보면서 자신을 발견한다. <感遇1>에서 꽃은 시들어도 맑은 향기는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난초의 생명력이 자신과 같다고 표현하였다(장산, 2016).

感遇1
 盈盈窓下蘭
 枝葉何芬芬

아름다운 창 아래의 난초
 가지와 잎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西風一披拂
 零落悲秋霜
 秀色縱凋悴
 清香終不斃
 感物傷我心
 涕淚沾衣袂

서풍에 한번 산들거리더니
 시들어 떨어지며 가을 서리에 슬퍼한다
 아름다운 자태가 비록 시들긴 해도
 맑은 향기는 끝내 가지지 않는다.
 이런 경치를 보고 내 마음도 상하니
 흐르는 눈물이 소매를 적시네.

난설현의 집 이름을 ‘눈 속의 난초’ 라는 뜻이었다.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에서 난설현의 200여수의 한시는 탐구되어야 하며, 그녀의 삶도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 중국의 대형 시집에 난설현의 시가 수록되었던 것에 비해, 『난설현집』은 허균이 공주 목사로 있으면서 난설현 사후 20년 만에 문집을 편찬하여 허난설현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박재완, 2013)

<표 8> 허난설현의 삶에 나타난 수기와 치인

허난설현		
修己	개인생활 영역	강릉의 명문가문에서 태어났으며 허엽, 허성, 허봉, 허균과 학문을 나누었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자기성찰)하고 (창의적)인 시로 삶에 (도전)하다 27살에 생을 마감했다. (자신의 인식)하고 (자기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졌다. ⇒ 자기관리,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인식, 자기관리
治人	가정생활 영역	시어머니와 불화하였고, 자녀인 남매와 임신중인 아이 죽음, 친정 오빠의 죽음과 동생 허균 귀향 등의 비극적 환경과 현모양처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글솜씨와 미모와 재능은 오히려 장애였으나 (장애를 초월)함. ⇒ 장애초월
	사회생활 영역	(자부심)을 가지고, 독서와 시작으로 뜻을 펼쳤다. 시어(詩語)는 ‘꿈’이다. (이상적인 목표)를 향하여 (창업가적 파워)를 발휘하여 쓴 200여수의 시들이 『난설현집』으로 발간됨. ⇒ 자부심, 창업가적 파워, 이상적목표, 창의적아이디어

4) 이매창(1573-1610)

이매창은 출신 성분으로 인해 기생이 되었지만, 주체적으로 남성들과 교류하고자 하였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였으며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스스로를 물질적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했으며, 타인들과 차별화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자아를 찾아가 할수록 신분의 문제로 인해 탄식하였다. 임의 부재라는 현실의 아픔을 벗어나고 싶었으나 운명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유를 추구했지만 성별, 신분, 성격 등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을 수 없었다(이화형, 2014).

(1) 修己

이매창은 1573년 부안에서 태어났다. 매창집 발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매창은 1573년에 태어나 1610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대한 기록은 조선 중기 매창이 직접 지은 한시집으로 1668년 개암사에서 발간되어 미국 하바드 대학에 소장된 시집인 『매창집』 발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허미자, 1986).

계생의 자는 천향인데, 스스로 매창이라고 호를 지어 불었다. 부안현의 아전이었던 이탕종의 딸이다. 1610년에 죽으니 나이 서른 여덟이었다. 평생 노래 부르고 시 읊기를 잘 했으며, 당시 수백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더니, 지금은 거의 흩어져 없어졌다. 승정후 무신년(1668) 10월에 아전들이 외우며 전하던 여러형태의 시 58수를 얻어 개암사 목판에 새긴다. 무신년 12월 개암사에서 개간한다.

계유년에 태어났기에 그의 이름은 계생이라 불었다. 아전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을 것이다. 그녀에게 修身은 상류사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이었다. 매창의 시 54수 중 거문고가 사용되는 것이 12수일 정도로 거문고를 잘 다룬 감성이 풍부한 예술인이었다(박재완, 2013).

(2) 治人

<매화나무 창가>라는 시에서 고결하고 품위있는 매화, 추위에서 피어나는 매화는 매창의 절개를 상징하였으며 창은 기다림의 공간이며 매창이 살아가는 분출구이다. <自恨>이라는 시에서는 타인의 물질을 향한 가치를 비기녀들은 남성들과 상대하는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기녀들은 가야금, 노래와 시를 배워서 표출 할 수 있는 창작 능력이 필요하였다. 한나그네가 매창에게 시를 지어서 집적대었을 때 매창이 곧 응답했더니 그 사람은 가버렸다고 한다(허미자, 1986).

유희경은 천민이었으므로 벼슬을 할 수 없었으나 일찍부터 문단에서 알아주는 시인이 되었다. 허균은 우리나라의 詩史인 『성수시화』에서 매창·유희경·백대봉 세 시인을 기록하였다. 유희경은 사람됨이 깨끗하고 조심성이 있어 주인을 섬기고 아버이를 효로 모시니 사대부들이 그를 사랑하였다(허미자, 1986).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희경이 의병을 일으켜 싸움터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매창은 근심에 빠졌다. 그 후 유희경은 매창을 다시 보는 날 시를 지어주었다.

贈癸娘

曾門南國癸娘名
詩韻歌詞動洛城
今日常着眞面目
却疑神女下三清

남국의 계랑 이름 일찍이 알려져서
글 재주 노래 솜씨 서울까지 울렸어라.
오늘에야 참 모습을 대하고보니
선녀가 떨쳐 입고 내려온 듯하여라.

유희경은 매창에게 시를 지어 주면서 사랑을 나누었으나 오래 계속되지 못하고 유희경은 서울로 돌아갔다. 매창은 그를 기다리며 수절을 했다. 유희경도 예학에 밝았던 군자였기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한 기록은 없다. 매창은 임진왜란으로 바쁘게 지냈던 유희경을 그리워하면서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 매창의 다음 시조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梨花雨 훑날날제 울며 잡고 離別한 님
秋風落葉에 저도 날을 생각하는가
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괘라

이 시조는 『가곡원류』에 실려있는데 아래와 같은 주가 덧붙여 있다.

계량은 부안의 이름난 기생이다. 시를 잘 지었으며, 매창집이 있다. 촌은 유희경의 애인이었는데, 촌은이 서울로 돌아간 뒤에 아무런 소식도 없었으므로 이 노래를 짓고는 절개를 지켰다.

매창은 김제군수로 내려온 명문 집안출신의 목재 이귀를 만나게 되었다. 이귀의 후배였던 허균의 기행문에서 매창을 이귀의 정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남아 있다. 이귀와 헤어진 후 허균을 만났는데, 매창의 뜻을 알고서 정신적 연인으로 지냈다(허경진, 1983). 허균은 매창을 십년씩이나 못잊어 한 것을 보면 매창이 지혜롭고 정감스러운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허균도 재주와 정취가 있었다고 말하였는데, 이능화도 매창의 재주와 정취가 뛰어난 것을 언급하였다(이화영, 2014).

박재완(2013)은 매창의 시에서 나타난 애정과 이별에 대한 표현, 탈 고

독의 양상, 현실의식에 대한 대처양상과 자연관조의 양상에 관한 시각을 보았다. 매창의 시에는 그녀의 인생관이 담겨있다고 말한다.

기녀인 매창에게 이별은 매우 익숙한 단어이다. <贈別>에서는 이별 앞에서 젊은 날에는 재회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閨中怨>에서는 늙고 병든 후에는 복잡한 심정으로 시름이 깊어진다.

매창은 자신의 고립된 상황을 학에 비유하고 있다. 현실로 돌아와 경제활동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籠鶴> 조롱속의 학은 희망을 잃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녀와 다를 바 없다. 슬픈 언어의 구사는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이화영, 2014).

籠鶴
一鎖樊籠歸路隔
崑崙何處閨風高
青田日暮蒼空斷
緜嶺月明魂夢勞
瘦影無儔愁獨立
昏鴉自得滿林噪
長毛病翼摧零盡
哀唳年年憶九臯

조롱속의 학
새장 속에 갇힌 뒤로 돌아갈 길 막혔으니
곤륜산 어딘가 낭풍이 솟았던가.
푸른 들판에 해가지고 푸른 하늘도 끊어진 곳
구령산 밝은 달은 꿈속에서도 괴로워라.
짙도 없이 야윈 몸으로 시름겹게 서 있으니
황혼녘에 갈가마귀만 숲 가득 지저귀네.
긴 털 병든 날개가 죽음을 재촉하니
슬피 울며 해마다 높고 먼 언덕을 생각하네.

<秋思>에서 전장터에 간 유희경을 그리워하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소식없어 원망하는 여인들의 심정을 읊고 있다. <秋夜>에서 추위에도 꽃을 피우는 매화의 굳굳한 의지를 사랑하였다.

허미자(1986)에 의하면 매창의 거문고는 사랑의 분신이다. 거문고의 작은 공간에 큰 고독이 담겨지면서 매창의 우주적인 공간으로 변용한 것이다. 매창에게 거문고는 님이 되고, 휴식, 사랑과 기다림의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운명적인 고독을 극복하는 매체로서 거문고가 존재하였다(김민성, 1999).

彈琴

幾歲鳴風雨
今來一短琴
莫彈孤鸞曲
終作白頭吟

몇 해 동안 비바람 소리를 내었던가!
여태껏 지녀 온 이 작은 거문고
외로운 난새의 곡조는 뜯지를 말자했는데
끝내는 백두음 가락을 지어서 타네.

계량은 평소에 거문고와 시에 뛰어났으므로 죽을 때에도 거문고를 함께
묻었다고 한다.

夜坐

西窓竹月影婆娑
風動桃園舞落花
猶倚小欄無夢寐
遙聞江渚菜菱歌
風翻羅幕月窺窓
抱得秦箏伴一缸
愁倚玉欄花影裡
暗聞蓮唱響西江

밤에 홀로 앉아서
서창 대숲에는 달그림자 어른거리고
복숭아밭에 바람이 부니 꽃잎 춤추듯 떨어지네.
작은 난간에 기대서니 잠은 오지 않고
강가의 마름 캐는 노래 소리 아득히 들려오네.
바람이 비단휘장 펴려 달이 창 안을 들여다보는데
나 홀로 거문고 안고 외로운 등잔불과 벗하네.
꽃 그림자 속 난간에 시름겹게 기대어 앉았으니
연밥 따는 노래만 서강에서 아련히 들려오네.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인하여 교제하던 사람들 사이에 매창에 대한 헛소
문이 돈다. 자신의 시로 인해 외부와 단절하고 싶은 마음을 직설적으로 드
러내었다. 매창이 할 수 있는 일은 거문고 곁에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일이다. <病中>이라는 제목을 붙인 시다(김준형, 2013).

病中

誤被浮虛說
還爲衆口喧
空將愁與恨
抱病掩柴門

잘못되게 헛소문을 입었는데
도리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네.
공연히 시름겹고 한스러워지니
병을 핑계 삼아 사립문을 닫으리라.

사십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 보니 기생으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은 병든 몸과 눈물뿐이었다. 매창은 이러한 심정을 만년작 <病中愁思>에 담았다. 가난과 추위의 40년이 느껴지는 시이다(김준형, 2013). 1668년 흠어진 그의 시 58수를 모아 개암사에서 『매창집』을 개간하고 묘비를 세워 그의 시혼을 기렸다.

매창의 삶은 그녀가 가을 밤 읊은 시처럼 매화나무 창가에서 세상을 보며 자신의 고독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시, 술, 거문고 등은 그녀를 더욱 풍류적이고 감성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이매창은 규수시인 허난설헌과 기녀시인 황진이와 함께 조선의 3대 여류시인으로 불린다.

<표 9> 이매창의 삶에 나타난 修己와 治人

이매창		
修己	개인생활 영역	매창은 자신의 신분과 재능을 (성찰)하였다. 자유롭고 자존심이 강한 성품으로 기녀였지만 (자기주도적)으로 남성들과 교류하였다. 직업에 대한 (인식)으로 예의와 예술기능을 배웠다. 시와 거문고에 능했다. ⇒ 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인식 능력
治人	사회생활 영역	기녀인 자신을 인식하고 인간관계를 통해 신분의 (장애를 초월)하였다. 양란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중에도 넓은 관점인 매화의 기품으로 (변화)된 삶을 꿈꾸었다. 시를 쓰고 나누는 (열성)을 가졌고, 사후에 시 58수를 모은 『매창집』이 발간되었다. ⇒ 장애초월, 변화, 열성, 창의적 아이디어

3. 조선시대 여성실학자의 삶과 리더십

17세기의 여성들은 남성들이 정치에 힘쓰는 동안 여성들은 가정경제와 노비를 관리하는 데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은 가정경제와 가문의 행할 속에서 자녀교육, 가산관리, 친인척과 노비관리, 조상제사와 손님접대 등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18·19세기 여성리더십에도 영향을 주었다(한희숙, 2008). 조선후기는 여성들이 글 읽기에서 글쓰기로 전환을 시도한 시기이며, 시 뿐만아니라 산문도 창작하였던 학문적 인식을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기였다(문미희, 2012).

1) 장계향(1598-1680)

장계향에 관하여는 『朝鮮朝女流詩文全集 2』 내에 「정부인 안동장씨 실기」와 이현일(1627-1704)이 기록한 『葛庵集』 내에 「선비증정부인장씨 행실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혜순, 정하영이 공저한 『한국고전여성문학의 세계:산문편』에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그녀가 쓴 요리책을 재현한 궁중음식연구원에서 편찬한 『飲食知味方』이 있다(박무영 외, 2004).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에 나타난 장계향의 여덟 가지의 전인상은 현모양처, 시인, 화가, 서예가, 교육자, 사상가, 과학자, 사회사업가였으며 특히 보이지 않는 선행을 중시하는 인물로 연구되었다(김춘희, 2011).

(1) 修己

장계향은 1598년 퇴계의 학손인 장홍효와 안동 권씨 사이의 무남독녀 외동딸로 안동에서 태어났다. 이 날은 노량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이 왜군을 크게 무찌른 대승전이 있었고, 왜군이 조선에서 쫓겨 달아난 11월 25일 하루 전날이었다(안동청년유도회, 1995).

장홍효는 스스로 경당이라 하였다. 아버지는 세상에 마음의 병을 낮게 헤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계향이라고 지었으며, 『小學』과 『十九史略』등을 가르쳤다. 아버지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자신감과 안정감이 있는 성품으로 자랐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권몽일의 딸을 친정어머니로 맞이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와 4남매와 새어머니를 돌봐 주었다(박무영 외, 2004). 이현일은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에 “이것은 모두 우리 아버님 석계선생의 너그러움이라 하나, 그것보다 어머니의 지극한 지성과 효성에 감복하여 아버님께서 따랐던 것이다.”(안동청년유도회, 1995)라고 기록하고 있다.

장계향을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였으며, 자신이 가진 강한 지도력으로 이웃을 돕고 보살핌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성리학이 진정한 학문임을 인식한 장계향은 수신해서 이웃을 애민하는 삶을 이상으로 삼았다(김춘희, 2012). 특히 아랫사람들의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였다. 장계향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극복하는 修身과 修己인데, 나눔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이 참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믿었다. (정동주, 2013). 장계향은 남인이 정치에서 물러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던 해인 숙종 6년 1680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안동청년유도회, 1995).

(2) 治人

① 가정생활 영역

선비 이시명과 열아홉 살에 재취로 혼인하였다. 가정과 이웃을 학교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혼인에 임했다. 성인의 삶을 추구하던 장계향은 만며느리의 역할을 하였고, 시택을 자신을 닮는 학교라고 생각하였다. 예의범절에 특별하였으며 방문객을 위한 음식을 개발하였다(김구현, 1999).

시아버지 운학 이함은 자손들에게 충군 효친의 마음을 지니도록 집에 ‘충효당’을 얹히고, 만권의 책을 모아 만권당이라는 이름을 사랑채의 당호로 삼았다. 경당같은 맑고 큰 학자가 사돈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정동주, 2013). 이함은 임진왜란이 터지자 창고를 열어 쌀을 털어 내놓았다. 이시명은 현실정치와 권력의 도덕성을 더 중시해서 임금을 도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싶다고 말하며 정치와 인연을 끊고 살았다. 가례를 가르쳐 가법을 세웠고, 행실과 용모에 예를 가르치며 도를 닦게 하였으며 동생들을 보살피 주기를 당부하였다. 장계향은 남편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정동주, 2013). 성인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기 원했던 장계향은 병자호란 후 은둔하고 있는 남편 이시명에게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권유하였는데 후에 이시명은 안동 도술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데 전념하였다. 이시명은 서당을 열어 가르쳤는데 후에 영산서당이며 뒷날 영산서원의 토대가 되었다(박무영 외, 2004). 장계향에게 아버지 장홍효와 시아버지 이함, 그리고 남편 이시명 등이 성리학적인 학문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자신을 살피는 위기지학의 자세로 평생을 살았던 장홍효의 학문 분위기와 성인군자의 인격을 장계향이 이어받았고, 이를 자녀를 키우는 모델로 삼았다(김춘희, 2012).

장계향은 일곱 아들과 세 딸을 키우는 데 있어 칭찬과 꾸중이 적절했으며, 선부인이 낳은 1남 1녀를 사랑과 훈계로 키워 상일은 학자로 키웠고, 딸은 혼인하여 훌륭한 부녀로 고을에서 이름이 나게 하였다.

장계향은 가정교육에서 신성한 혼례식과 공경하는 부부관계와 자녀를 위한 태교를 강조하였다. 부덕, 부인, 부용, 부공의 여유사행의 행동강령을 강조하였다. 그녀의 작품 속에도 가정교육론이 나타나 있다(김춘희, 2012).

그녀의 후손들인 이휘일, 이현일 등 영남학파의 인물로 키운 장씨는 재령이씨 집안을 부흥시켰다. 시대뿐 아니라 친정에도 효도함으로 두 가문을 일으켰다. 경전공부보다는 유교적 가르침의 본질을 찾아 실천하려는 태도를 중요시 하는 교육이 후에 영남학파의 밑거름이 되었다(박무영 외, 2004).

장계향은 조선의 候부인³⁾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퇴계학파의 종장의 지위를 가진 이휘일과 이현일 형제를 길러내고 여러 자식을 현자로 양육한 점이 候부인에 비견된다고 하여 당대에 붙여진 찬사를 볼 때 장계향의 훌륭한 교육자라고 평가된다. 가정교육이 훌륭함은 우리나라 사대부 가문들에 널리 칭송되었다고 하였다. 그 예로 선비로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七山林⁴⁾, 현달한 일곱 아들을 일컫는 七賢子⁵⁾를 들 수 있다. 장계향은 부덕으로 자식을 모두 당대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자로 성장시켜 영남학파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장계향은 종들을 잘 보살피고 가르쳤던 인격으로 인한 행동이었지만, 당시 양반들에게 종들은 재산의 가치가 있었음을 볼 때에 훌륭한 성품은 재

3) 후부인은 중국 북송대에 여러 자식을 현자로 양육한 여성의 칭호이다.

4) 산림이란 조선시대 山谷林下에 있으면서, 학문을 겸비해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인물을 말한다. 즉 과거를 거치지 않았으나, 유럽의 추앙을 받고, 국가로부터 정소를 받아 관직의 제수를 비롯해 온갖 특별한 대우를 향유했던 존재로 이현일은 대표적인 산림이다(김춘희, 2012).

5) 칠현자란 학문으로 한 시대를 개웠던 장계향의 일곱 아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모두 석학으로 칭송을 받았다. 이상일, 이휘일, 이현일, 이승일, 이정일, 이용일, 이운일이 그들이다. 그녀의 가정교육은 칠현자의 현달로 집약된다(김춘희, 2012).

산관리 차원에서도 큰 유익을 주었을 것이다(박무영 외, 2004).

장계향의 가정경영 능력은 노비의 재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바느질 솜씨, 베틀 일, 부엌 일, 집안 청소와 빨래 등 각각 잘하는 사람을 알았다. 당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베틀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운학은 재물의 가치와 효용을 알고 사용하는 며느리의 현명한 지혜를 듣고 기뻐하였다(정동주, 2013). 종이 병이 나면 장계향은 약과 음식을 먹여 병이 완쾌할 때까지 돌보아 주었다. 노비들을 충효당 식구로 여기고, 인간의 평등사상을 가르쳤다. 충효당의 식구라고 여겼으며, 음식을 구제할 때 두 손으로 식량을 건네 주며 격려의 말을 하라고 교육하였다.

② 사회생활 영역

장계향의 학문적 배경은 성리학이었다. 장계향은 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였고, 자녀들도 성리학의 관점에서 지도하였다. 첫째, 군자의 조건은 수신과 애민이며, 목적은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둘째, 누구든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배우고 가진 자가 먼저 베푸는 것을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로 보았다(권부옥, 2014).

흥년이 들자 굶주린 사람들이 충효당으로 모여들었다. 장계향은 충효당을 인간의 삶과 죽음을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구제의 방법을 개선했다. 운학이 물었다. “수기지학(修己之學)하여 구인성성(救人成聖)하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를 열어가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야?” 며느리의 대답을 들은 운학은 며느리의 지혜에 감탄하였다(정동주, 2013).

“성인의 도는 세상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데 그 궁극이 있는 것인데, 도를 닦는 한 개인의 성취에 그친다면 이미 도가 아니라 욕심이라 배웠습니다. 베푸는 일을

상례로 하고 그 내용을 더 성실하게 갖추어야 할 줄 압니다. 저들에게도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는데 예절을 지켜서 주며, 먹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입고 신는 것도 챙겨주며, 병든 이한테는 약을 주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은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녕 어진 마음에서 우러난다면 이 또한 충효당의 광영이 아니겠습니까?”

예술적 재능을 보면 장계향이 직접 저술한 12수의 한시, 2편의 서간, 2편의 시작 메모, 『飲食知味方』 등이다. 장계향의 생애, 한글서예, 『飲食知味方』의 서체와 서풍, 한문서예, 그림, 문학 등의 예술세계를 기록하였다. 『飲食知味方』에 실린 음식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책으로 황혜성의 주도로 궁중음식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홍필남, 2003).

『飲食知味方』에는 146가지 요리법과 친정마을 17가지 음식 조리법이 기록된 문화가 전수된 내용인 맛질마을의 조리법인 ‘맛질방문’이라는 항목도 있다. 장계향의 뛰어난 면은 과학적이며 창의적인 요리책을 남겼다는 사실이다.(박무영 외, 2004). 『中庸』과 『春秋左傳』을 응용하여 쓴 책인 『飲食知味方』은 ‘맛’의 철학을 음식으로 풀어낸 문화유산이다.

장계향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던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이들을 구하고 나눔을 실천한 사회사업가였으며 교육자이며 사상가였다. 시인, 화가이며 요리연구가로서의 그녀의 업적은 그녀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창조적 아이디어를 표출한 여성리더였다.

장계향은 1999년 11월에 여성인물로 신사임당에 이어 두 번째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인물로 선정되었다.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문학적 재능과 가정생활을 잘 병행하는 감각이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여유있는 성품을 갖춘 멋있는 여성으로 현대에 산다고 해도 여성 리더로 충분히 귀감이 되

는 인물이라 생각된다.

<표 10> 장계향의 삶에 나타난 修己와 治人

장계향		
修己	개인생활 영역	정직함으로 성인을 지향하며 사람답게 살려는 인간애(정직성, 책임감), 이웃을 보살피는 강한 지도력(자기주도성), 애민하고 사랑하는 마음(관계관리능력), (사회를 인식)하고 구제하려고 함. ⇒ 정직성, 책임감, 자기주도성, 관계관리 능력, 사회적인식능력
治人	가정생활 영역	철현자, 자녀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합하는 군자교육관 시부모, 자녀, 집안사람들, 이웃의 (구성원의 성장)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하는 리더의 (모델)이 됨 ⇒ 모델링, 격려와 지도, 구성원의 성장
	사회생활 영역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말을 (경청), 이웃의 어려움을 깊이 마음에 느낌(공감), 백성을 구제, 교육하고 치유를 (목표)로 한 사회사업가(치유) (비전과 사명감)을 제시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여중군자로 (존경과 신뢰)를 받음. 『음식디미방』 ⇒ 경청, 공감, 치유, 이상적목표, 비전과 사명감,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

2) 임윤지당(1721-1793)

윤지당에 관한 기록은 사후 3년 뒤인 1776년에 발간된 『允摯堂遺稿』에 임정주가 쓴 「遺事」와 신광우가 쓴 「言行錄」, 『鹿門集』에서 볼 수 있다. 윤지당은 여성 성리학자로 사대부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성리학을 연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유교의 경전과 중국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윤지당이 성리학을 연구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修己

윤지당은 풍천 임씨로 함흥판관을 지낸 부친 노은 임적(1685-1728)과 모친 파평윤씨 사이의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윤지당의 친정은 명문 양반가문이었으며 학문도 유래가 있었다. 사계 김장생-우암 송시열-수암 권상하-도암 이재로 내려오면서 전해진 윤지당 가문의 학문적 연원은 율곡으로부터 시작되는 기호 서인의 정통 성리학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춘, 1998). 녹문 임성주는 그의 둘째 오빠이고, 운호 임정주는 남동생이다. 녹문은 윤지당에게 『孝經』, 『列女傳』, 『小學』 등을 가르쳐 주었고, 혼인한 후에도 학문을 지도하였다.

본명은 전해지지 않고 允摯堂이라는 당호는 녹문이 지어 주었다(박무영 외, 2006). 윤지당⁶⁾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태임과 태사를 독실히 신봉한다는 뜻이다. 오빠들과 정치적 문제나 인물을 평할 때 윤지당의 정확하게 판단하여 말하였다. 논리에 뛰어나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인 오빠들도 윤지당이 남자로서 태어나지 않은 게 한스럽다고 말하였다. 윤지당의 지도로 임정주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박철상, 2009).

윤지당은 修身에 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이영춘, 1998).

조선 성리학의 핵심 경전인 『中庸』을 윤지당이 해석을 한 것으로 윤지당 경학의 정수이다. 특히 修身에 대한 생각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6) 주자의 윤신지(允莘摯)라는 글에서 온 말인데, 莘은 문왕의 부인이었던 태사의 친정고향이며, 摯는 태임의 친정 고향이다. 태임의 성씨가 임씨였으므로 윤지당과 녹문은 더욱 친근감을 느꼈을 것이다. 사임당과 윤지당이 이러한 의미의 당호를 얻어 태임의 덕을 사모하고 인격의 완성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사임당과 윤지당이 발휘한 재능을 달랐지만 수양의 목표는 같았다(이영춘, 1998).

修身爲天下之本，身不修而體不立。道將從何而生哉！故曰：天下之本在國，國之本在家，家之本在身，身之本卽又在天，天尺是理而已，知此理而存諸身謂修身，故又曰：思修身，不可以不知天。然若非生知之聖，必由學而後知，是以莫大乎好學，誠能好學，而知吾性之與堯舜同，而利行勉行，眞積力久，則可以至於聖人矣。故又曰：及其成功，則一也。

修身은 천하의 근본이다. 자신이 수양되지 않으면 본체가 확립되지 않으니, 정도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날 것인가? 그러므로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으며, 가정의 근본은 자신에 있다. 자신의 근본은 곧 하늘(天:자연)에 있고, 하늘은 바로 理法일 뿐이다.” 이 이법을 알고 자신에게 보존시키는 것을修身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수신을 하려면 하늘(자연의 원리)을 알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천부적으로 지혜를 갖춘 성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반드시 배움을 통하여 알게 된다. 이 때문에 배움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참으로 배움을 좋아하여, 나의 성품이 요·순의 성품과 같다는 것을 알고 힘써 실천하여, 진리가 쌓이고 노력이 오래되면 누구나 성인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면 똑같이 된다”고 한 것이다.

윤지당은修身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을 보존시키는 것이 수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타고난 지혜를 가진 성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배움을 통해서 이러한修身의 이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함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어 진리를 아는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2) 治人

① 가정생활 영역

윤지당은 19세의 나이에 한 살 적은 원주 선비 신광유와 혼인을 하였다. 시가는 높은 벼슬을 하던 명문가였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후 8년 되던 해 세상을 떠났고, 자녀가 요절하는 아픔도 겪었다. 녹문 임성주의 죽음까지 맞게 되는 힘든 상황에서도 학문에 힘쓰면서 시련을 극복하였고 여성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김재임, 2008). 시동생인 신광우의 「言行錄」에 그녀의 婦德이 잘 기록되어 있다. 신광우는 윤지당이 책을 가까이 하거나 문장에 관해 말하는 일이 없이 오직 부인의 일에 힘썼는데 어느 날 밤중에 윤지당의 『中庸』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윤지당의 학문이 깊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박무영 외, 2006). 윤지당은 38세에 『詩經』과 『楚辭』의 필사 작업을 하였는데, 남편의 유품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려는 의도였다. 윤지당은 자녀도 죽고, 양자 신재준도 28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녹문마저 세상을 떠나자 크게 슬퍼하면서 더욱 학문에 정진하다가 73세에 원주에서 별세하였다.

② 사회생활 영역

윤지당 사후 동생 임정주와 시동생인 신광우가 그의 유고에 그녀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하였다.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을 겪은 조선후기 사회는 성리학에서 이미 실학의 학풍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당시 유학자들은 정통 성리학과 외래문화의 영향과 내부적 반성을 현실 개혁에

까지 확대한 실학으로 나눌 수 있다.

윤지당은 태사와 문황을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면서 여성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부인이 되어서 태임과 태사로써 스스로를 기약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이다” 라고 말하였다. 태사와 태임을 역할 모델로 삼은 것을 보면, 윤지당이 자신의 존재의의를 사회정치적인 차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영민, 1999). 윤지당은 정통 성리학자로 송·명 시대의 유학과 우리나라 성리학에 집중되어 있고 당시 새로운 사조인 실학이나 청대의 고증학, 천주교 사상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은 땅을 둘러싸고, 땅은 그 가운데 있으므로 계란과 흡사할 것’ 라고 지구의 형태를 말하는 서양의 근대적 지구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 약간의 서양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김재임, 2008)

윤지당은 젊은 시절부터 『중용』 읽기를 시작해서 65세에는 『中庸經義』라는 책을 완성하였는데 오늘날 이 책은 오랜 연구와 사색에 의해 만들어진 깊이 있는 철학서로 평가받고 있다(박무영 외, 200).

윤지당의 학문은 당시 여러 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근재 박윤원, 經學者인 연경재 성해응, 매산 홍직필도 임성주에게 “여자의 글이라고 감취 두지 말고 세상에 널리 알리라” 고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이 윤지당의 학문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 남성의 문집이 간행되기도 힘든 시대에 윤지당의 문집이 간행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박철상, 2009).

윤지당은 거울에 관한 ‘鏡銘’ 이라는 글을 지었다. 자신에게 경계가 될 문구를 모아 다듬어 놓은 내용이다. 맑은 정기와 결단력, 평정한 本性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높은 문학성을 지닌 작품이다(이영춘, 2001).

鏡銘
 望月之顏
 晴日之晶
 霜天之氣
 秋水之精
 心無私累
 明無不察
 善善惡惡
 魑魅莫匿
 其知如新
 其直如矢
 磨而愈光
 靡差毫釐
 嗟以人兮
 不如物兮
 人而不如
 是爲物蔽
 清心克己
 一日克己
 明德自在
 是庸銘爾
 聊以鑑戒

거울에 새기는 명문
 보름달 같은 얼굴에
 맑은 태양 같은 결정
 추상같은 기질에
 가을 강물처럼 맑은 정기
 마음에 사욕이 없고
 밝아서 비추지 않는 것이 없네
 착한 이 좋아하고 나쁜 자 미워하니
 도깨비도 숨지 못 하네
 그 지혜는 귀신과 같고
 그 곧기는 화살과 같네
 닦을수록 광채가 나니
 털끝만큼도 차질이 없네
 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물건만도 못 하구나
 사람이 그만 못한 것은
 물욕에 가리운 탓
 무엇으로 가리운 것 떨치라
 하루라도 사욕을 이기면
 맑은 덕이 저절로 쌓이네
 이에 명문을 지어
 거울삼아 조심하네.

『國譯允摯堂遺稿』

이렇게 윤지당은 학문을 깊이 연구함으로 자신을 학문에 비추어 살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여성으로 남성과 동등함을 언급하였으며, 지구의 둥근 모습을 계란과 흡사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윤지당은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학문에도 열려있는 사고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윤지당의 깊은 학문적 통찰력 때문이었다고 평가된다.

<표 11> 임윤지당의 삶에 나타난 修己와 治人

임윤지당		
修己	개인생활 영역	우주에서 인간이 가장 귀하고 남녀 평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자기인식능력)이 뛰어났다. 학문의 목적을 성인에 두고 (자기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성실해야 덕을 세운다는 학문관으로 (자기관리)를 하였다. ⇒ 자기관리, 자기개발, 자기인식능력
治人	가정생활 영역	언행이 바르고 시부모에 대한 효성과 공경으로 시댁식구들, 친족들과 화목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남편과 자녀의 사망으로 힘들었지만, 부덕을 실천하는 대인관계의 (모델링)이 되었다. ⇒ 공동체 형성, 모델링
	사회생활 영역	자신의 존재의미를 사회정치적 차원으로 확장시킴으로 왕조를 번영시킨 태사와 태임에(이상적인 목표)를 두고 여성의 (변화)를 위해 교육에 노력한 교육철학자. 철학적 사색과 성리학적 삶이 내재된 『윤지당 유교』 ⇒ 변화, 이상적 목표, 창의적 아이디어

3) 김만덕(1739-1812)

도전의 리더인 김만덕은 거상이자. 상도를 실천한 경제인이다. 전 재산을 지역 사회에 환원한 지도자였다. 여성이면서 여성의 한계를 넘은 삶을 살았던 김만덕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正祖實錄』과 같은 사실적인 기록의 문헌이고, 체제공의 『樊巖集의 萬德傳』처럼 김만덕 이야기를 작품화한 것이며, 앞을 두 기록을 근거하여 김만덕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박미선, 2013).

(1) 修己

김만덕은 1739년 제주현에서 양인인 김응열의 외동딸로 태어났으며, 만석과 만재 두 오라비가 있었다. 아버지는 장사하였고, 어머니도 부지런하여 집안은 밝았다. 그러나 만덕이 11세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도 곧 세상을 떠났다. 15세가 된 만덕은 기생의 양녀가 되어 섬내에서 평판이 자자한 명기가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목숨을 걸었던 장사 일을 어여받고 싶어 20세가 되자 관가에 호소하여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으로 회복하였다(성율자, 1998). 신분이 회복된 후에도 그녀는 혼자 살았다. 조선 시대에 노비나 기녀 등이 아닌 여성이 독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만덕은 제주의 남성들과 혼인을 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만덕에게는 높은 자존감이 있었고 사회의 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조혜란, 2004).

김만덕은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에게 주어졌던 경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어 주체적으로 살고자 노력했다. 배를 가지고 육지를 출입하며 상행위를 하여 수십 년 만에 큰 재산가가 되었다. 갑인·을묘년 대기근 때 천금을 출연해 쌀을 사들여 제주도민을 구휼하였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신분에 대한 도전과 사업가로서 환경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박미선, 2013).

김만덕의 생애를 기록한 문헌은 1796년(정조 20년)에 기록한 『正祖實錄』에 매우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주 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들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들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민족문화추진회, 1993).

(2) 治人

김만덕을 부모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기녀가 되었다가 관가에 호소하여 기생의 신분을 벗어나다는 점은, 다른 기녀들이 ‘첩’으로 쉽게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녀가 얼마나 자기 주관적인 삶의 태도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양인이 되었다가 다시 객주 주인으로, 객주주인에서 다시 거상이 된 인물이다(박미선, 2013). 김만덕은 신분이 회복된 후에도 독신으로 살았다. 조선시대에 노비나 기녀가 아닌 여성이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혼을 통해 남편의 능력을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독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볼 때 이는 높은 자존감과 더불어 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변중현, 2004).

김만덕은 운송체계에 기초한 유통망이 상업발달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그녀가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한 분야는 유통업이었다. 당시 유통망은 해상과 육상의 두 가지였고, 육상 교통망의 중심이 도로라면, 해상 교통망의 중심을 포구였다(송병식, 2006).

제주는 워낙 토질이 척박하고 농사지를 땅이 적었기 때문에 자주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정조 16년인 1792년 시작된 흉년은 정조 19년까지 계속되었는데, 특히 1794년 최악의 흉년이였다. 조정에서도 진휼곡을 실어 날랐으며, 어사를 파견해 감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조 18년 1794년, 11,000석을 신고 오던 배들 중 5척이 난파되어 1,928석이 물에 잠기고, 선원 1명도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이루어진 김만덕의 구휼사업은 500석을 마련하여 50석은 굶주리는 친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450석을 관가에 바쳤다(박찬식, 2004).

독신으로 살면서 부를 축적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마침내, 축적한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희사하여 제주도민을 기아에서 구휼하여 정조에게 포상으로 요청한 금강산 구경을 가기 위해 제주도를 떠나 한양으로 향하고 다시 금강산을 향하여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김만덕의 얼굴을 보고자 하여 때로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었다(제주도, 1989).

당시 제주도에 내려졌던 출륙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구휼한 상으로 정조 임금을 알현하고 금강산 구경을 다녀왔다(박찬식, 2004).

1840년에 유배 온 추사 김정희는 김만덕의 행적을 듣고 ‘은광연세’라고 쓰고, 그 옆에 ‘김중주의 할머니가 이 섬의 큰 흉년을 구휼하니 임금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금강산을 구경하였으며 벼슬아치들이 모두 전기와 시가로 이를 노래하였다. 이는 고금에 드문 일이므로 이 편액을 써 보내어 그 집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김정희가 감동하여 글을 써준 것이다(김경애, 2006). 이러한 선행으로 김만덕은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녀의 업적이 한양에 알려지자 한양의 선비들이 앞 다투어 김만덕을 칭송하였다. 천시되었던 가난한 고아였고 기생이었으며 독신여성이었던 김만덕이 조선조 선비들의 연모의 대상이 된 것이다(박미선, 2013).

제주도에 의녀 김만덕을 기리는 유적지가 있다 사라봉 공원 남쪽에 모충사이다. 모충사에는 세 개의 탑이 있는데 하나는 의병 항쟁 기념탑이고, 다른 하나는 순국지사 조봉희 기념탑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의녀 김만덕 묘탑인데. 의녀 김만덕은 우국지사들과 나란히 기념의 대상으로 세워져 있다.

김만덕은 정조 때 이미 의롭다는 평을 들은 의녀(義女)였고, 실제로 정조에게서 내의원 의녀반수의 직위를 받은 의녀(醫女)였다. 백성들이 굶주림에 죽어가자 거액의 재산을 자선 사업에 여성인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했던 김만덕을 오늘날 제주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탑을 세워 기념하였다(조혜란,

2004).

김만덕이 1812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온 도민의 애도 속에 안장되었다. 제주로 돌아온 만덕은 1812년 가을, 일흔 넷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 영조, 정조, 순조 등 3대 임금에 걸쳐 살았다. 만덕에 대한 칭송은 죽은 뒤에도 이어진다. 그녀가 죽은 지 이십여 년 뒤에 현종 6년인 1840년에 유배 온 추사 김정희(1786-1856) 역시 만덕의 행적에 크게 감동하여 대서하고 그 옆에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지다라는 의미로 ‘恩光衍世’라고 대서하고 그 옆에 이렇게 기록하였다(정창권, 2006). 그만큼 만덕은 조선사회에 변화를 일으켰던 걸출한 인물이었다.

<표 12> 김만덕의 삶에 나타난 修己와 治人

김만덕		
修己	개인생활 영역	기녀였으나 관가에 호소해 양인이 된 후에도 독신으로 살기를 결단함으로 (자기를 통제)하였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았다. 제주도민이 굶주릴 때 자신의 재산으로 도민을 돕고자 결단하였고, (사회구성원의 필요를 인식하는 능력)을 가졌다. 객주의 직업에서 후에 거상이 됨으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졌다. ⇒ 자기통제,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사회적 인식능력
治人	사회생활 영역	고난에 처한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눔의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고난에(공감)하고뻗사공들을 (설득)함으로 식량을 구해 백성들과 나눔으로 (치유)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여성사업가의 (모델)이 됨으로 정조의 상을 받았다 ⇒ 공감, 치유, 설득, 모델링, 변화, 이상적목표, 비전과 사명감, 창의적 아이디어

4) 사주당 이씨(1739-1821)

사주당은 어려서 영리하고 단정하였으며 이미 길쌈 바느질과 예절 등 女工을 익히고 이윽고 옛 열녀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小學』과 『家禮』, 『女四書』를 가져다가 길쌈하는 틈틈이 외우고 익혔다. 또 계속해서 공부하며 깨우쳤다. 시집오기 전 친정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고기도 먹지 않고 솜옷도 입지 않고 옷을 입고 차는 장식을 옛법에 따라하고 행동거지를 예의 가르침대로 따랐다(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9)

(1) 修己

사주당 이씨는 태종의 서자 경영군 이배의 11세손으로 아버지는 이창식이고 어머니는 진주 강씨로 강덕언의 딸이었으며 영조 21년 청주 서면에서 태어났다. 사주당이라는 당호 외에 희현당이라는 당호도 가졌는데 사주당은 ‘朱子를 스승으로 삼았다’는 뜻이고 희현당은 ‘어질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당호를 가진 여성인물로는 사임당 신씨와 사주당 이씨 뿐이다. 사주당은 남송의 대학자 주자를 본받았다는 뜻이다(배병철, 2005).

사주당의 어려서부터 단정하였으며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신작의 사주당 이씨 묘지명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女功은 여성이 갖추어야 할 婦德으로 교육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사주당 이씨도 어린 시절은 길쌈과 바느질같은 집안 일들을 어머니에 의해 배웠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녀는 『小學』과 『家禮』 및 『女戒』, 『內訓』, 『女論語』, 『女範』 등 『女四書』를 거듭 외우고 읽었다(임정인, 2011).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사주당 이씨는 단지 여훈서만을 읽은 것이 아니었

다. 이처럼 글읽기를 좋아하는 딸에게 아버지 이창식은 말씀하기를 “옛 고명한 선비들을 보면 그 어머니가 글에 뛰어나지 않은 분이 없었다.” 고 하면서 딸의 학문을 장려하였다.

(2) 治人

① 가정생활 영역

사주당 이씨 나이 15세에 당시 36세이던 유한규와 혼인을 한 것은 사주당 이씨의 집안이 가난하여 명문가의 자제와 혼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님도 있지만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그것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골랐을 것이라 보여진다. 유한규는 주역과 성리학은 물론 시문과 서예에도 능했으며, 역학, 산술학, 율령, 의학, 바둑, 궁술으로 등 여러 분야에 뛰어났다. 결혼 후에도 사주당 이씨는 남편과 같이 경서를 읽고 의문나는 점은 서로 물어 그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학문을 토론을 하기도 했다(배병철, 2005). 사주당 이씨의 학식을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자료는 바로 그의 저술이다. 그의 저술은 태교신기 만이 남아 있지만 태교신기 의 모태가 되었던 책이 있었다. 사주당 이씨는 자신의 학식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여러 내용들을 모아 육아독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教子輯要』이다(임정인, 2011).

사주당의 남편 유한규는 모두 네 부인을 두어 사이에 2남 5녀를 두었다. 네 번째 부인이 곧 사주당으로, 사주당과의 사이에는 1남 3녀를 두었다. 사주당은 부군이 염치를 지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자가 되어 주었다. 사주당 이씨는 정조7년 1783년 남편인 유한규가 사망하여 그의

나이 45세에 과부가 되었다.

남편이 떠나자 너무 가난하여 의식주를 구할 수 없었고 학업도 중단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네 자녀를 기르는데 어려웠지만 친척들의 봉록이나 남의 집에서 얻어온 음식으로 봉양하는 것도 거절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다스리니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아 정직하게 장사를 하였다.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아 제전을 환수하고 조상의 무덤을 수리하였으며 후일에 쓸 제수용품도 구비하는 등 모든 가정 일을 해결하였다. 자녀들도 성장하여 모두 결혼하여 자립하게 되었다.

사주당의 아들 유희(1773-1837)는 11세에 아버지를 여윈 뒤 어머니의 훈도를 입었다. 또한 유희는 어머니가 과거 시험 보는 것을 극구 만류하고 적절한 곳을 골라 살면서 천진을 지키라 하였으므로 어머니의 가르침을 일생동안 지켰다. 조선후기 실학파에 속하는 유학자로 100여권의 책을 저술하는 업적을 남겼고 세 딸은 모두 결혼하여 부덕에 뛰어난 삶을 살았다.

태교신기를 간행할 때 아들 유희와 큰 딸 둘째 달이 어머니를 사모하는 애절한 글을 발문으로 남겼는데 문장이 뛰어났다.

② 사회생활 영역

사주당 이씨는 여성학자로 20세기 초에 조명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몸’을 중시하여 몸의 기원이 되는 ‘태아’의 문제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그 탐색의 결과 『태교신기』를 집필할 수 있었다. 사주당은 1800년 『태교신기』 최종본을 한문으로 지었는데 사주당의 아들 유희가 한글로 번역하고 발문을 써서 1801년에 완성하였다고 전한다(심경호, 2009).

그녀의 아들 유희가 그려낸 사주당의 일생은 주체를 지닌 여성군자의 삶

이었다. 더구나 사주당은 어려서부터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 구분에 반대하고 스스로의 학적 인식과 실천적 행위를 규율하고 기획하였다. 생전에 사주당은 당대의 사대부 남성들을 지도했다. 즉 정삼품 이창선과 정구품 강필효, 진사 이면눌과 감역 이양연과 숨은 선비인 산림 이상연 등 식견있는 사람들이 마루에 올라와 큰절을 하면서 사주당에게 직접 가르침은 받는 것을 큰 행복으로 여겼다고 하니 사주당의 학문 정도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배병철, 2005).

사주당은 아들 유희의 나이 49세 때인 1821년 죽기 전 유언으로 ‘先妣手柬’ 두루마리 하나, 부군 유한규의 『성리문답』 한 책, 스스로 베낀 『격몽요결』을 대나무를 걸어 만든 큰 상자에 담아 두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다른 글들은 불사르고 『胎教新記』만 남겨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뒤에 신작에게 『胎教新記』의 서문을 청하였다. 1822년에 신작은 사주당의 묘지명을 지었다.

유희의 글은 ‘家狀’으로서 훨씬 상세한 뿐만 아니라, 사주당의 정신세계와 학문적 성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두 글은 사주당을 “東海母儀” 곧 조선의 어머니 상으로 그려보였다. 신작은 사주당의 부덕을 다음과 같이 예찬한다(심경호, 2009).

유공이 부인을 잃고 재취할 뜻이 없더니 부인이 비녀 꽃을 나이로부터 경사에 통효하고 행실과 재능이 남보다 뛰어난을 듣고 기뻐하기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이다.” 하며 전안을 드렸다. 부인이 시택에 오자, 시어머님은 연세가 많아 눈은 어둡고, 짜증내고 화를 잘 내었으나 곁에서 기분을 맞추고 순종할 뿐 어김이 없었다. 시택 사람들이 “새 며느리는 수고로움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른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본성이 엄격하고 정성스럽고 예법을 근본으로 하며, 아는 것이 많아 남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지를 못했다.

유공은 아내로서 소중하게 여기는데다가 도의(道義)로서의 벗을 겸하여서, 깊은 이치를 서로 토론하고, 성정(性情)을 읊으며 서로 지기(知己)로 여겼다. 사주당의 자녀교육관은 태아기와 생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표 13>은 태교신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13> 『태교신기』 내용

구분	내 용
1장(6)	사람의 성품은 하늘을 본받고 기질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태교는 본이고 스승의 가르침은末이다. 부부는 서로 예로서 대함이 마땅하다. 태교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성장한 후의 책임은 스승에게 있다. 태교를 한 후에 스승의 책임을 논해야 한다.
2장(2)	사물의 성질은 배태(胚胎)시에 길러진다. 성품은 뱃속에서 길러진다.
3장(3)	태교를 해야 현명한 자식을 낳는다. 태교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 불초하다. 반드시 태교를 해야 한다.
4장(14)	태교는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 온가족이 임신부를 보호해야 한다. 임신부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임신부는 듣는 것을 삼가야 한다. 임신부의 마음가짐.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다. 거처와 양생법. 일하는 법, 앉아 있을 때의 행동, 보행하는 법, 잠자는 법, 섭생법, 해산달에 주의할 점, 태교법의 총결(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5장(3)	태교의 요점은 삼감에 있다. 스스로 구해야 한다. 구하면 얻을 수 있다.
6장(1)	태교를 행하지 않았을 때의 폐해.
7장(2)	사술에 미혹됨을 경계함, 사심을 경계해야 한다.
8장(2)	양태를 잘 해야 하는 이유, 태교를 실행하지 못함을 탄식함.
9장(1)	고인들이 행한 태교 실례.
10장(1)	태교의 근본을 추구하는 말씀(태아의 발육단계).

배병철, 2005 『다시보는 태교신기』 참고요약.

태교신기10장 1절에는 "胎敎曰, 素成爲子孫, 婚處嫁女, 必擇孝悌, 世世有行義者, 君子之敎, 莫先於素成..." 태교에 이르기를 “본래 자손을 이루기 위하여 며느리를 보거나 딸을 시집보낼 때는 반드시 가문이 효성스럽고 공손하며 대대로 옳은 일을 행한 집안인지를 가려서 선택해야 한다.” 고 하였다.

군자의 가르침은 평소 이름에 앞서는 것이 없고, 그 책임은 부인에게 있다. 그러므로 혼인을 할 때는 피차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모자라는? 람은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자손을 위하고 염려하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성인의 도리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면 그 누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태교의 근본을 추구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배병철, 2005).

<표 14> 사주당 이씨의 삶에 나타난 修己와 治人

사주당 이씨		
修己	개인생활 영역	길쌈, 바느질과 예절을 배웠고, 경전을 읽으며 부덕을 길러 인품이 뛰어났고, 자기 삶에 (주체적인 태도)로 (책임감)을 가졌다. 학문에서 남녀차별을 반대하여 (자기개발)을 하였고, 사대부들에게 학문을 지도하는 (관계관리 능력)을 보였다. ⇒ 책임감,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관계관리 능력
治人	가정생활 영역	남편은 조연자가 되어 서로 학문토론을 하였다. 자녀에게는 사랑하나 엄하게 교육하였다. 아들 유희는 ‘東海母儀’ 조선의 어머니, 여성군자로 보았다. 가정에서 (모델링)이 되었다. ⇒ 모델링
	사회생활 영역	여성학자로 사대부를 지도하며(사회구성원의 성장)과 (학문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인간의 몸의 기원이 되는 태아를 탐색하여 『태교신기』를 기록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하였다. 태아기 교육을 중시하였다. ⇒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비전과 사명감, 창의적 아이디어

5) 빙허각 이씨(1759-1824)

빙허각의 집안은 정조 연간에 아버지 이창수, 숙부 이창의, 오빠 이병정에 이르기까지 소론으로서 명문가문이었다. 빙허각의 어머니 유씨의 오빠 유한규는 세 번 상처한 후 네 번째로 이창식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바로 『태교신기』를 지은 사주당 이씨였다.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는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의 <청낭결>속에서 다루고 있는 태교에 대한 부분을 집필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주당은 빙허각에게 외숙모가 된다(김미희, 2003).

(1) 修己

빙허각 이씨는 세종의 열일곱번째 아들인 영해군의 후손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이다. 빙허각 이씨는 이창수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한편 빙허각의 어머니 유씨는 유담의 딸로, 오빠 유한규(1718-1783)는 사주당 이씨와 혼인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언문지』를 지은 유희로 그녀의 외가는 명물학으로 명망이 있는 집안이었다. 빙허각의 집안은 학문에 있어서 여성을 남성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경향이 있었다. 빙허각은 아버지가 시경과 소학을 읽어주면 그 뜻을 바로 깨쳤다고 한다. 학문하기를 좋아했던 빙허각은 커서도 여러 책을 읽기를 좋아하였다(문미희, 2012).

빙허각의 성격은 강하여 남을 이기기를 좋아했다. 빙허각의 강한 성격을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진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三從之道를 강조하던 당대의 여성관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었기에 그녀 아버지의 염려가 짐작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빙

허각은 시를 잘 짓고 다방면에 재능을 보여 ‘女士’ 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녀에 대한 유년기의 이러한 평가는 그녀가 얼마나 학문에 관심이 많고 즐겼는지를 말해줄 뿐 아니라 그녀의 집안의 학문적인 분위기를 짐작케 해준다.

(2) 治人

① 가정생활 영역

빙허각이 15세 되던 1773년 당시 명물학으로 이름을 날리던 서명응의 손자 서유본과 결혼하였다. 서유본은 실학자 집안으로 객관적 사물을 탐구하는 명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학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였다. 서유본은 빙허각보다 3살 아래로 농학을 이어받은 학자였다. 빙허각은 결혼 이후에도 시가에서 학문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문미희, 2012).

서유본의 가문 역시 소론으로서 생부 서호수와 작은 숙부 서형수, 동생 서유구까지 가문의 성세를 유지하였다. 서유본 집안의 학풍은 利用厚生을 강조하는 실학자 집안으로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등의 북학파와 교류를 가졌다(김미희, 2003).

빙허각은 어릴 때부터 여러 책들을 접하고 학문적 조예도 상당히 깊었다. 시조부인 서명응은 그녀의 이러한 자질을 높이 사고 그녀의 학문하기를 지지했다. 서명응의 집안은 실학으로 명망이 높은 집안이기는 했으나 당시 조선에서 받아들인 실학의 수준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본다거나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서유본은 1805년 43세에 처음 벼슬길에 올랐다. 그러나 다음해인 1806년 숙부 서형수가 옥사에 연류

되어 유배길에 오르면서 집안은 일거에 몰락하였다. 서유본 역시 더 이상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김미희, 2003). 서유본은 평상시 독서와 저술에만 몰두하면서, 빙허각과는 경서를 논하고 시를 주고 받으며 지낼 수 있었다. 서유본은 빙허각의 학문을 넓히는데 든든한 도움을 주었고, 『규합총서』의 서명을 지었던 남편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정해은, 1997).

나의 아내가 여러 책에서 줄거리를 뽑아 모아서 항목별로 나누었다. 시골 살림살이에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초목·새·짐승의 성미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에 내가 책이름을 『규합총서』라고 하였다.

당시 몰락한 사대부 남성들은 활동범위가 좁아지고 그로 인한 본인의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서유본은 그런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의 학문적 활동을 적극 지지한 점은 당시 특이한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편의 이러한 지지 덕분에 그녀의 학문적 관심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데에 이르게 된다. 시가의 불행은 집안 자체로 보면 큰 불행이었으나, 그녀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규합총서』라는 결실을 맺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문미희, 2012).

② 사회생활 영역

빙허각은 첫째 개인적, 가정적으로 굳건한 학문적 기반 위에서 남성들 못지 않게 광범위한 분야의 책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둘째, 당시 실학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 특히 여성의 경제력 상승과 자의식을 지닌 여성들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음으로써 자신이 얻은 지식과 체험이 실제 생활에 적용가능한가를 검증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었다.

셋째, 중년에 접어들어 재야에서의 생활은 농산물을 재배하고 이용하는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평소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밴 빙허각은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것들은 주사의 봉임측, 산가락, 청낭결로 구성하여 생활과학서인 『규합총서』를 1809년에 완성하였다.

빙허각 이씨는 『규합총서』를 저술한 목적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무릇 부인의 하는 일이 안방 밖을 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예와 이젯일을 통하는 식견과 남보다 나은 재주가 있더라도, 혹 문자로 표현하여 남에게 보고 듣게 하려 함은, 아름다움을 속에 품어 간직하는 이의 도리가 아니다. 하물며 나의 어둡고 어리석음으로 어찌 스스로 감히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하리요 마는 이 책이 비록 많으나 그 귀결점을 구한 즉 이것들이 다 건강에 주의하는 일이요, 집안을 다스리는 중요한 법이라 진실로 일용에 없지 못할 것이요, 부녀의 마땅할 바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로써 서를 삼아 집안의 딸과 며느리들에게 준다.

이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부인은古今의 일을 꿰뚫는 식견과 재주를 가져야 한다, 둘째 부인이 그 식견과 재주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셋째 부인은 가족의 健康을 일상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넷째 부인은 집안을 다스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日用에 책임지는 일을 글로 적어서 딸과 며느리에게 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규합총서는 상당히 유교적 교양과 학식을 쌓은 양반집안 살림살이에 대한 민족지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내용에서 한문문헌을 자유롭게 인용하게 인용하고 있는 점이라던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

의 높은 살림살이였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빙허각은 부인으로서 삶의 지혜, 나아가서는 家風을 딸과 며느리에게 전승하기 위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규합총서』를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그녀는 자신의 학문적 토대와 경험을 바탕으로 일제 부녀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신뢰할만한 서적들의 권위를 빌어 51세가 되던 해인 1809년 여성 최초로 가정백과사전인 『규합총서』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빙허각은 여성도 지성인이라는 관점과 더불어 여성도 다방면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녀가 저술한 『규합총서』는 治家의 내용 뿐 아니라 경제치용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남성 실학자가 저술한 실학서와 체제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정해은, 1997).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서적들이 여성의 부덕을 핵심으로 삼던 것에 비하여 빙허각의 경우는 실제 생활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전해주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지금까지 『규합총서』에 대한 연구는 첫째, 조리서로서 음식과 조리법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져 왔고 둘째, 실용적 슬기를 가진 여인으로서 빙허각 이씨에 대한 조명과 더불어 조선후기 여류문학으로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셋째, 가정백과전서로서 가정생활 및 자녀교육 내용의 논의가 있어 왔다. 넷째, 실학의 배경을 지닌 생활경제서 생활과학서로서 『규합총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미희, 2003).

생활문화는 인간이 겪는 의·식·주생활뿐만 아니라 육아 및 건강관리, 생활교육, 예의생활 등의 구체적 삶의 모습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규범적인 의의를 지니고 전해 내려오는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이길표·주영애, 1999)고 볼 때 규합총서는 당시의 생활상과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생활문화적인 의의를 담고 있다고 사료된다.

『규합총서』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생활지식을 토대로 한 저술로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에 그치지 않는 실용적, 실천적, 실질적 지혜와 경험의 산물(이길표·최배영, 1996)인 것이다.

빙허각의 시각은 여성이 남성과 학문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현대 교육의 관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빙허각은 여성도 수기를 통해 도를 실현하는 것을 교육의 최종 목표로 삼는만큼 여성에 대한 존재론적인 접근의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그녀의 여성교육에 대한 관점은 한 개인이 보다 더 나은 삶을 향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5> 빙허각 이씨의 삶에 나타난 修己와 治人

빙허각 이씨		
修己	개인생활 영역	여성들에게 지식을 나누기 위한 (사회적 인식 능력)으로 (책임감)과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지식을 나누기 위해 (자기개발)한 후 백과사전을 편찬함. ⇒ 책임감, 창의성, 자기개발, 사회적 인식 능력
治人	가정생활 영역	남편과 시를 나누고 경서를 논할 정도로 아내의 학문을 칭찬하고 실용적 지혜서 저술에 도움을 주었음. 여성의 성장과 학문공동체를 원하였다.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사회생활 영역	여성도 배워야 한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여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과 사명감)으로 『규합총서』를 완성하였다. ⇒ 자부심, 자신감, 변화, 비전과 사명감, 창의적아이디어

6) 강정일당(1772-1832)

성리학자인 강정일당에 대한 자료는 『강정일당유고』가 있으며, 『조선조 여류시문전집 3』에 수집되어 있다. 문집은 2002년 성남문화원에서 나온 국역본 『정일당유고』가 있다. 내용은 시, 서간문, 쪽지 편지, 작은 글, 기록, 제사와 발문, 묘지명, 행장, 제문, 명문, 잡저들이 기록되어 있다. 생계마저 어려웠지만 아내의 도리를 완벽하게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에 집념도 대단하여 유교의 13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여 誠과 敬으로 심성수양하였던 여성한문학자이다.

(1) 修己

강정일당은 1772년 충북 제천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나, 서울 중림동에서 61세에 사망하였다. 부계와 모계 모두 조선후기의 혁혁한 명문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정통 노론 계열에 속하였다. 부계 쪽으로는 시문을 주로 하는 문학의 전통을 이었고, 모계 쪽으로는 기호학과 성리학의 전통을 이어 받았다(장인자, 2007). 진주가 본관인 아버지 강제수와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정일당의 부모는 두 집안이 모두 유명한 양반가문에 속하였으나, 아버지 대에 이르러는 매우 가난하였다.

정일당의 어렸을 때 이름은 지덕이었다. 안동 권씨가 정일당을 임신했을 때 꿈에 돌아가신 두 어머니가 나타나 “여기에 지극한 德人이 있어 지금 너에게 맡긴다.” 라고 일러 주어 그 후 정일당이 태어나자 이름을 태몽 때문에 지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성남문화원, 2002).

그녀는 여덟 살 때부터 아버지의 관심은 남달랐던 아버지로부터 『시경』,

『예기』 등에 나오는 경전 구절을 배웠다. 어렸을 때의 경전교육은 정일당의 정신적인 힘이 되었다. 효성이 지극한 정일당이 열여섯 살 되던 해 정신적 스승이었던 아버지를 여의게 됨으로 큰 슬픔을 겪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와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고 베를 짰다. 효심이 커서 배가 고파도 어머니께 먼저 드렸다. 그녀는 평생동안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으며, 흉년 때에는 3일간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었다. 아홉 자녀가 돌이 되기 전에 죽는 힘든 상황에도 정일당은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고 근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학문에 더욱 전념하였다.

그녀가 서울 중림동에 작은 집을 마련했을 때는 연못을 파고 정원을 꾸며 여러 가지 수목과 화초를 가꾸며 살았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생활 모습은 가난함 속에서 이룩한 것으로 그녀의 즐거움 역시 컸다.

정일당은 가난하고 불행한 생애를 살았지만 학문의 힘으로 극복하여 달관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2) 治人

① 가정생활 영역

정일당은 20세에 충주의 선비 윤광연(1778~1838)과 결혼하였다. 본관은 파평이고, 자는 명직이며 결혼당시 14세로서 부인보다 6살이 적었다. 윤광연의 부친인 윤동엽은 문인이었고, 어머니 천안 전씨는 지일당이라는 호를 가진 시인으로 명성이 높았다(장인자, 2007). 시대 역시 가난 때문에 식구들이 집을 떠나야 유랑해야 했다. 정일당은 혼인을 했으나 가난하니 시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일 년 후 시댁으로 갈

수 있었고 그 후 18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다.

정일당은 가난하여 생계를 위해 힘쓰는 남편에게 “남자로 태어나 사람의 도리를 다하려면 꼭 글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없다며 자신이 바느질과 베 짜기를 할테니 학문을 하라고 권하였다(박무영 외, 2004). 남편은 재산을 다 잃었으며 양식도 떨어지고 아홉 자녀들은 다 죽었다. 정일당의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에게 학업을 하도록 권유하면서 유교 경전 13경을 연구하였으며, 다른 책들도 읽어 고금의 역사와 정치의 변동에 대해서도 알았다. 다른 사람의 언행 중에서도 선한 것이 있으면 모두 기록으로 남겨 교훈을 삼고, 정리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 십여권에 달하였으나 대부분 다 유실되고 일부의 글들만 남편 윤광연에 의해 정리되어 전하고 있다. 막내를 잃은 슬픔 중에도 그녀는 감정을 다스렸다. 경전을 생각하며 고통을 이겨내는 정일당의 의연함을 본 남편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학문을 전념하게 되었다.

② 사회생활 영역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기초로 한 유교적 문학관의 영향 하에 있었다. 남성들을 한자를 사용하여 문집을 발간했지만 여성들은 한자 사용도 금기였고 여성의 문집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여성의 문학도 성리학이 기반이 되었다(박현숙, 2002). 정일당은 남편에게 벼슬을 단념시키고 학자로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권하자 윤광연은 부인과 학문을 토론하면서 평생을 지냈다. 남편이 43세에 서당을 열었을 때 정일당은 학생 지도법과 학생선발 기준도 가르쳐 주었다. 서당 훈장인 남편이 학생을 심히 꾸짖는 것을 보고 쪽지편지를 보내어 덕을 쌓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정일당을 대모처럼

림 믿고 따랐다(성혜진, 2016). 정일당은 윤광연이 유교경전을 어느 정도 공부한 후, 스승을 찾아 공부하라고 권하였고 윤광연은 강재 송치규의 문하에 들어가 다른 생도들과 함께 글을 읽었다. 윤광연은 아내가 자신을 中道の 자리에 서도록 만들고자 노력하였다고 말한다(성남문화원, 2002). 정일당은 예법에 관한 질문을 남편의 스승에게 물었다. 남편이 강재에게 배워온 것을 학습함으로 강재는 정일당의 간접적 스승이었다. 강재는 우암 송시열의 6대손이니 정일당은 율곡에서 사계로 이어져 우암으로 이어지는 기호성리학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박현숙, 2002).

정일당의 문학은 입지, 낙도, 수양, 달관 등의 내면적 측면이 나타난다. 총 38수의 시의 주제는 학문에의 집념, 심성수양, 도덕적 훈계, 안빈낙도의 생활, 자연 속에 관조, 달관과 체험과 같은 문제이고, 애정과 이별, 연모 등의 서정시는 없다(이영춘, 2002). 학문을 연구하면 여자라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정일당의 확고한 생각을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진취적인 여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배움에 대한 정일당의 열정을 학문의 동반자인 남편이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었음에 학문적 입지가 가능하였다(장인자, 2007). 다음은 정일당이 남편에게 올린 쪽지 편지의 내용으로 윤지당의 글을 인용해 남녀차별을 반대하는 견해를 알 수 있는 글이다(성남문화원, 2012).

允摯堂曰 我雖婦人 而所受之性 初無男女之殊 又曰 婦人而不以任姒⁷⁾ 自基者 皆自棄也 然則雖婦人而能有爲 則亦可至於聖人 未審 夫子以爲如何

윤지당이 이르기를, “내가 비록 여자의 몸이나,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이야 애초 남녀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 또, “여자로서 태임과 태사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약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7) 任姒 : 太任(주나라 문왕의 어머니)과 太姒(주나라 무왕의 어머니)

그렇다면 비록 여자라도 노력한다면 역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사와 태임을 모델로 생각하고 학문을 하고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允摯堂曰 孝者百行之源 既失於本源 則雖濫天下之賢能 餘不足道也 又曰 未有不孝於親 而能盡忠於君孝 此誠確論

윤지당이 이르기를, “효는 백행의 근원이다. 이미 그 근원을 잃었다면 천하의 현자와 능력있는 자라도 도에 이를 수 없다” 고 했습니다. 또 이르기를, “부모에게 불효하고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고 했는데, 이 말은 진실로 변할 수 없는 말입니다

충이 중요하지만 효가 더 우선된다는 윤지당의 사상에 동의하며 기록한 내용이다(성남문화원, 2012). 정일당은 바느질을 하면서 유교의 경전들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글을 써서 세상에 내놓은 군자요 문인이었다. 윤광연은 조선 후기에 아내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고 살면서 양성평등 부부상을 실현한 남편이었다(성혜진, 2016). 윤광연은 부인의 글에 자부심을 가졌으며 글이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랐다. 정일당이 죽은 지 4년 후인 1836년 노론의 대학자였던 강재 송치규와 친족인 윤수경의 발문을 얻어 『정일당유고』를 간행하였다(박무영 외, 2004).

정일당은 당시 여성의 이름으로 책이 간행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글이 남성들과 동등한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책으로 간행되기를 바랐다. 나이 스물이 되던 해인 1832년 아내의 죽

음 앞에서 슬퍼하는 남편에게 죽음은 하늘에 달린 일이라고 말하는 의연함을 보여주었다. 정일당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많은 장애를 학문으로 이겨낸 성리학자였다. 윤광연은 학문적 동료였던 아내 정일당을 그리워하며 『정일당유고』를 간행하였다.

정일당은 여성이 학문을 배우기 어렵던 현실에 불만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 배움을 성취함으로 남편도 성장시키고 자신도 학구열을 채웠던 차원높은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냄으로 공동체의 성장을 이끌어낸 지도력을 소유한 학자였다. 정일당은 남편에게 스승과 벗을 찾아 글을 더 배우도록 권유하여 학문적인 스승과 동료들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도록 조언하였다. 정일당은 남편의 학문적 관계를 이룬 학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도 학문적 대화의 길을 열었고 질문을 해 답을 얻었던 관계관리 능력이 뛰어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정일당은 남녀차별의 문제를 가슴아파했으며 하늘이 부여한 성품은 남녀의 차별이 없다고 당시에 남녀평등을 주장했던 시대를 주도했던 여성리더였다.

<표 16> 강정일당의 삶에 나타난 修己와 治人

강정일당		
修己	개인생활 영역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있어 도인으로 경전을 깊이 연구함으로 (자기개발)과 (자기를 관리)하였으며, 학문을 통한 관계관리 능력으로 학우들과 학문을 나눔. ⇒ 자기개발, 자기관리, 관계관리능력
治人	가정생활 영역	남편의 학문을 (격려, 지도)하고, 남편을 (설득)해 남성 학우들과의 학문적인 대화에 참여함으로 학자들의(공동체를 성장)시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됨. ⇒ 격려와 지도, 설득, 공동체 성장, 자신감, 자부심
	가정생활 영역	자신의 학문적 성장을 위해 남편과 학우들과 인간관계를 확장시켜 나감. 가난과 자녀의 죽음의 슬픔을 학문으로 승화시킴. 『정일당유고』 ⇒ 장애초월, 창의적 아이디어

V.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조명

1. 여성문인의 리더십 유형과 생활문화적 의의

1) 여성문인의 리더십 유형

현대의 리더십이론에 근거하여 조선시대 여성문인 4명의 리더십 유형을 분석하면 <표 1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7> 여성문인의 리더십

연구대상자	리더십	역량	
문 인	신사임당	셀프리더십	자아성찰, 책임감, 창의성
		감성리더십	사회적 인식 능력, 관계관리 능력
		서번트리더십	비전제시, 구성원의 성장
		수퍼리더십	모델링, 나눔과 질책
	황진이	변혁적리더십	이상적목표, 비전과 사명감,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
		셀프리더십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주도성
		감성리더십	자기인식능력
	허난설헌	변혁적리더십	장애초월, 기인적 삶, 창의적 아이디어
		셀프리더십	자기관리, 도전정신, 창의성
		감성리더십	자기인식, 자기관리
		수퍼리더십	적성에 맞는 목표설정. 자부심.
	이매창	변혁적리더십	장애초월,창업가적과워, 이상적목표,창의적아이디어
셀프리더십		자아성찰, 자기주도성	
감성리더십		자기인식 능력	
	변혁적리더십	장애초월, 변화, 열성, 창의적 아이디어	

(1) 셀프리더십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여성교육서를 읽으며 자기를 성찰하였다.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뜻을 세워 성실하게 살았다. 부덕을 행하면서도 자신만이 가진 재능을 통해 창의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왔다. 황진이와 자신의 기녀로 살아야 했던 자신의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기녀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사회체계에 도전하면서 창의적인 시를 통해 삶을 승화시켰다. 한편 허난설헌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家內에서 학문을 익혀 허씨 집안의 형제인 허엽, 허성, 허봉, 허균 모두 가학문의 재능을 드러내는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결혼 후에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의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200여수의 시를 남기는 창의적 재능을 나타내었다. 이매창은 자신의 신분과 재능을 성찰하여 기녀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자유롭고 자존심이 강한 성품을 지니고, 자기주도적으로 남성들과 교유하였다. 기녀로서 예의와 예술기능을 배웠고, 시와 거문고에 능하였다. 이들 여성문인들은 가부장적 유교사회의 상황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기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였으며, 책임감 있는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면서 창의성이 담긴 탁월한 문학적, 예술적 표현으로 삶을 승화한 셀프리더십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2) 감성리더십

신사임당은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말로 나타내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신의를 쌓아 부모, 남편, 자녀와 이웃과의 인간관계에서 덕을 쌓는 인간관계 능력을 보

여 주었다. 황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내면의 자유로운 성품과 예술가로서의 기질을 알고 자신의 신분을 수용하는 자아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유교적인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류사회에서 재능을 펼치며 사는 삶을 선택하였다. 허난설헌은 난설헌이라는 호칭처럼 단아하고 깨끗한 성품과 학문에 열정을 가진 자신을 인식하고 예술적인 기질을 살리는 자기관리를 하였다. 이매창은 당시 기녀가 배워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修身임을 인식하는 자기인식능력이 뛰어났으며, 내면의 자유로운 열망으로 당시 기녀에게 요구되던 예술적인 능력과 문장 구사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감성적인 시인이 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졌으며, 나아가 좋은 인간관계 능력을 가진 감성적인 내면의 소유자들이었으며,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요구를 인식하면서 이끌어 가는 사회적인 인식능력을 나타냄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서번트리더십

신사임당은 忠·孝의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忠을 강조함으로 사회와 나라에 기여하도록 율곡을 키움으로 비전을 제시하였고, 가정에서는 孝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효는 마음뿐 아니라 부모, 가족과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됨을 교육함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여성문인 중에서 신사임당에게만 나타난 리더십으로 섬기는 리더로서 가족공동체를 함께 성장하도록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들의 생각을 통찰하고 설득함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이룬 서번트리더십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4) 수퍼리더십

신사임당은 태임을 모델로 삼아 닮고자 노력하였으며, 스스로 모델이 되어

당시 가족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의 모델이 되었다. 율곡을 포함한 모든 자녀들을 각자의 재능에 맞도록 잘 키워 현모양처의 모델이 되었다. 허난설헌은 명문가에서 문학적 수양을 쌓았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천여 편의 시를 남긴 천재로 자부심이 있었으며, 시집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남김으로 현대여성에게 모델이 되었고, 허난설헌은 남성작가가 주도하던 중국문단에서 먼저 호평과 찬사를 받았던 많은 시를 남김으로 모델이 된 것은, 가사와 직장생활의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바람직한 여성상의 모델의 모습을 보임으로 수퍼리더십의 특성을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5) 변혁적리더십

신사임당은 부덕의 모범이 되는 현모양처가 되었고, 나아가 예술가로서의 재능이 뛰어나 詩書畵를 남김으로 이상적인 높은 목표를 이룸으로 당시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가장 존경과 신뢰를 받는 여성이었다. 황진이도 기녀의 길을 선택한 후에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시야를 넓히고 시와 시조로 표출함으로써 장애를 초월하는 기인적인 삶을 살았다. 허난설헌은 시어머니와 불화, 자녀의 죽음, 친정 오빠의 죽음과 동생 허균의 귀향 등 비극적 환경과 현모양처를 요구하는 조선사회에서 뛰어난 미모와 재능은 인생을 힘겹게 만드는 장애였으나 도전정신으로 장애를 초월함으로써 독서와 시로 뜻을 펼치었다. 창업가적 파워를 발휘하여 200여수의 시들이 『난설헌집』으로 발간되어 문인의 목표를 이루었다. 이매창은 기녀로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신분의 장애를 초월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며 살았다.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매창집』이

라는 업적을 남겼다. 이들은 모두 카리스마를 가진 문인으로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서 문학적 재능을 나타내었고, 결과적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켜 창의적 아이디어로 업적을 남김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보여준 능동적 리더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여성문인들이 발휘했던 리더십을 <표 18>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18> 여성문인의 리더십 유형

문인	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신사임당	●	●	●	●	●
황진이	●	●			●
허난설헌	●	●		●	●
이매창	●	●			●

2) 생활문화적 의의

(1) 여성문인의 修己리더십

조선중기의 여성문인들은 성리학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문인들이 발휘한 리더십을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 개인생활 영역, 가정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에서 修己리더십으로써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신사임당이 발휘한 셀프리더십의 역량인 자아성찰, 책임감, 창의성과 감성리더십의 역량인 관계관리 능력과 사회적 인식 능력은 개인생활 영역의 기준이었던 그녀의 성장배경과 삶의 전체에서 드러났

던 리더십 역량이었다. 한편 황진이가 발휘한 셀프리더십의 역량인 도전정신, 창의성과 자기주도성과 감성리더십의 역량인 자기인식능력은 개인생활 영역에서 발현된 리더십 역량이었다. 허난설헌의 셀프리더십의 역량인 자기관리, 도전정신과 창의성, 감성리더십의 역량인 자기인식과 자기관리는 개인의 삶에서 볼 수 있었던 리더십 역량이었다. 또한 이매창이 발휘한 셀프리더십의 역량인 자아성찰과 자기주도성과 감성리더십의 역량인 자기인식능력도 개인에게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이었다.

모든 여성문인들은 개인생활 영역에서 각자의 환경조건을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셀프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하는 여성의 修己리더십으로 발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료된다.

(2) 여성문인의 治人리더십

신사임당이 발휘한 서번트리더십의 비전제시와 구성원의 성장의 역량은 현모양처였던 신사임당이 가족들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발휘한 대표적인 리더십이라 하겠다. 더욱이 자녀들을 올곧게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들로 키워냄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였다. 한편 황진이와 이매창은 자유롭게 시와 시조를 읊고 악기를 사랑한 예술인들이었으나 기녀라는 신분 때문에 비전제시나 구성원의 성장은 이루기 어려웠던 역량이었다. 허난설헌도 결혼 후 가정적으로는 어려운 삶을 살았다. 당시 여성들의 삶은 가정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불화, 오빠들의 죽음과 자녀의 죽음 등 어려움으로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비전제시와 구성원의 성장은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서번트리더십

의 역량은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했던 조선시대 여성들이 가정생활영역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으로 기준을 고찰한 바, 신사임당만이 서번트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라 사료된다.

신사임당이 발휘한 수퍼리더십의 역량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델링이 된 것과 자신의 역량을 詩·書·畫를 통해서도 충분히 발휘하였으며,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각자의 재능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계하고 훈육해왔다. 이는 사임당이 가정생활 영역에서 수퍼리더십을 발휘한 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허난설헌의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수퍼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으나 자신의 학문과 적성에 맞는 시인으로의 삶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사회생활 영역에서 수퍼리더십의 역량을 발현해 온 것으로 본다. (박용진, 2009)에 의하면 수퍼리더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나 능력을 이끌어내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수퍼 리더가 된다고 하였는데, 황진이와 이매창은 시와 시조 등 많은 재능을 발휘했지만, 기녀의 신분으로 인해 당시에는 역할모델로 섬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었으므로 수퍼리더십의 역량을 발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신사임당이 발휘한 변혁적리더십의 역량은 가정과 가문을 세우기 위한 이상적인 높은 목표를 세운 것과 율곡과 매창과 옥산과 같은 인물을 키워낸 어머니이자 교육자로서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만한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본다. 황진이는 자신의 출신과 직업적인 장애를 극복하면서 개척자적인 삶을 살았고, 이매창도 신분의 장애를 넘어 변화를 주도하는 열성을 쏟아 변혁적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허난설헌의 변혁적리더십의 역량은 장애초월, 변화와 열성으로 세 자녀의 죽음과 좌절속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시로써 승화시켰다.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과 이매창은 모두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문인으로서 그 의미가 깊다 하였다.

신사임당은 가정생활 영역에서, 허난설헌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수퍼리더십을 나타내었고, 신사임당은 가정생활 영역에서 서번트리더십을 발휘한 바, 이는 가정 중심으로 나타난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신사임당은 5가지 리더십을 모두 발휘하였고, 허난설헌은 4가지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은 가정생활 영역에서 리더십을 고찰해 볼 수 있었지만, 기녀인 황진이와 이매창에게서는 신분으로 인해 수퍼리더십과 서번트리더십을 나타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여성문인들의 리더십을 살펴본 결과 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은 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인 세 가지 리더십의 역량이라고 판단된다. 그들은 개인생활 영역에서 셀프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을 발휘하였고 가정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 여성문인들이 나타낸 리더십의 역량을 생활문화적으로 조명한 결과 개인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셀프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의 역량은 여성의 修己리더십의 역량이며, 가정과 사회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의 역량은 여성의 治人리더십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2. 여성실학자의 리더십 유형과 생활 문화적 의의

1) 여성실학자의 리더십 유형

조선시대 여성 문인에 나타난 리더십 유형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리더십 이론에 근거하여, 여성실학자 6명의 리더십유형을 분석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여성실학자의 리더십

연구대상자	리더십	역량	
실 학 자	장계향	셀프리더십	정직성, 책임감, 자기주도성
		감성리더십	사회적 인식 능력, 관계관리 능력
		서번트리더십	경청, 공감, 치유, 구성원의 성장
		수퍼리더십	모델링, 격려와 지도
		변혁적리더십	이상적목표, 비전과 사명감,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
	임윤지당	셀프리더십	자기관리, 자기개발
		감성리더십	자기인식능력
		서번트리더십	공동체 형성
		수퍼리더십	모델링
		변혁적리더십	변화, 이상적목표, 창의적 아이디어
	김만덕	셀프리더십	자기통제,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감성리더십	사회적 인식능력
		서번트리더십	공감, 치유, 설득, 구성원의 성장
		수퍼리더십	모델링
		변혁적리더십	이상적목표, 비전과 사명감, 변화, 창의적 아이디어
	사주당 이씨	셀프리더십	책임감,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감성리더십	관계관리 능력
		서번트리더십	구성원 성장, 공동체 형성
		수퍼리더십	모델링
		변혁적리더십	비전과 사명감, 창의적 아이디어
빙허각 이씨	셀프리더십	책임감, 창의성, 자기개발	
	감성리더십	사회적 인식능력	
	서번트리더십	구성원의 성장과 공동체 형성	
	수퍼리더십	자신감, 자부심	
	변혁적리더십	비전과 사명감, 변화, 창의적 아이디어	
강정일당	셀프리더십	자기개발, 자기관리, 관계인식	
	감성리더십	관계관리능력	
	서번트리더십	설득, 공동체 성장	
	수퍼리더십	격려와 지도, 자신감, 자부심	
	변혁적리더십	장애초월, 자부심, 창의적 아이디어	

(1) 셀프리더십

장계향은 정직함으로 성인을 지향하며 사람답게 살려는 인간애와 이웃을 애민하는 책임감을 가졌다. 긍정적 사고와 이웃을 보살피는 강한 자기주도적인 지도력을 가짐으로 셀프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임윤지당은 천하에 기본은 자신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학문의 목적을 성인에 두고 자기개발을 하였고, 성실해야 덕을 세운다는 학문관으로 자기관리를 하였다. 김만덕은 기녀에서 양민이 된 후에도 결혼하지 않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았으며, 어려운 문제에 도전정신을 가지고 해결한 리더였다. 사주당 이씨는 길쌈, 바느질과 예절을 배웠고 경전을 읽으며 부덕을 길러 인품이 뛰어났고,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개발을 하였다. 빙허각 이씨는 실천적인 지식을 탐구함으로 자기개발에 힘썼으며, 백과사전의 필요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발행하는 도전정신을 발휘하였다. 강정일당은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있어 도인으로 경전을 깊이 탐구함으로 자기개발과 자기관리를 하였고, 학문적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는 대인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 셀프리더십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자기주도성이 강했는데, 이는 자기성찰과 자기관리를 한 결과 대인관계 속에서도 관계인식을 하게 되면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주도하고자 노력했으며,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문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2) 감성리더십

장계향은 온유하고 안정감 있는 성품으로 가정과 자녀와 이웃을 향한 애민과 사랑으로 뛰어난 관계능력을 지님으로 감성리더십을 나타내었다. 임윤지당은 우주에서 인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여성의 정체성을 인식하였다. 김만덕은 당시 흉년이 들어 사회적으로 제주도민

이 굶주림으로 고통당할 때 그들의 요구를 인식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도민들을 돕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사회적 인식능력을 가졌다. 사주당 이씨는 학문을 마음에 품고 학문공동체를 형성하는 관계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빙허각 이씨는 사회적 인식이 뛰어나 실용 가정백과사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강정일당은 학문을 사모하여 학문적인 교류를 확장시켜 나가는 관계관리 능력을 발휘함으로 감성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이들은 내면의 감정을 아는 자기인식의 결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고심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였으며, 사회적 인식능력을 찾기 위하여 더 깊은 학문의 경지에 들어가자 하였으며 이들은 리더십의 시작이 자기이해로부터 시작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서번트리더십

장계향은 가족들과 아랫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경청하였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는 사회적인식이 뛰어난 사회사업가로 구성원의 성장을 이루어 서번트리더십을 발휘한 리더였다. 임윤지당은 언행이 바르고 시부모에 대한 효성과 공경으로 시댁식구들과 친족들과 화목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김만덕은 대인관계에서 소통과 배려, 공감과 치유, 설득과 비전을 제시하며 구성원의 성장을 이루었다. 사주당 이씨는 학문에서 남녀차별을 반대하였고 사대부들에게 학문을 지도하는 여성학자로 구성원의 성장과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빙허각 이씨는 남편과 시를 나누고 경서를 논할 정도로 아내의 학문을 칭찬하고 실용적 지혜서 저술에 도움을 주었다. 구성원의 성장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과학서를 기록하였다. 강정일당은 남편의 학문을 격려, 지도하고 남편을 설득해 남성학우들과 학문적

인 대화에 참여함으로 학자들의 공동체를 성장시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됨으로 서번트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이들은 구성원의 의견을 겸손하게 경청, 통찰하고 설득함으로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힘을 갖게 있었으며, 같은 목적을 품은 가정공동체, 학자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세워가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된다.

(4) 슈퍼리더십

장계향은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교육자로, 이웃에게는 사회교육가로 스스로 모델이 되어 격려와 지도함으로 성과를 거두는 슈퍼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임운지당은 남편과 자녀의 죽음으로 힘들었지만 윤리의 기본인 효, 올바른 언행과 부덕을 실천하면서 대인관계에서 모델이 되었다. 김만덕은 벋 사람들을 설득하여 곡식을 구하게 하여, 곡식으로 많은 제주도민을 구출하고 전 재산을 나눔으로 존경받는 모델이 되어 정조의 상을 받아 제주도를 구경하였다. 사주당 이씨는 남편은 조연자가 되어 학문을 토론하였고, 아들 유희에 의하여 ‘東海母儀’ 조선의 어머니요 여성군자라고 불리움으로 조선의 어머니의 모델이 되었다. 빙허각 이씨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 백과사전을 완성하였다. 강정일당은 서당을 운영하는 남편을 격려하고, 지도함으로 함께 학문의 길을 가는 자부심을 가짐으로 슈퍼리더십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목표설정을 한 후 이루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개선을 하면서 부단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격려와 지도함으로 각 분야에서 본받고 싶은 모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5) 변혁적리더십

장계향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목표를 향한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디미방』을 기록함으로써 존경과 신뢰를 얻는 변혁적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임윤지당은 자신의 존재의미를 사회정치적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태사와 태임에 목표를 두고 여성의 변화를 위한 교육철학자로 사색과 성리학이 내재된 『윤지당유고』를 남겼다. 김만덕은 제주도민이고, 여성이었지만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정신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다. 사주당 이씨는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인간의 몸의 기원이 되는 태아를 탐색하여 『태교신기』를 기록하였다. 빙허각 이씨는 여성의 실생활에 방대한 지식을 주기 위한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규합총서』를 완성함으로써 지식의 변화를 일으켰다. 강정일당은 가난과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장애를 초월하고 슬픔을 학문으로 승화시켰으며 남편의 도움으로 『정일당유고』를 남기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비전과 사명감을 갖고 있었으며, 구성원을 위해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열성을 다해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남겼다고 판단된다.

여성실학자들은 각각 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을 모두 발휘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같은 리더십을 나타냈다고 해서 동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리더십의 특성상 각 리더십이 포함하는 다양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역량들 가운데 한 부분을 모든 실학자들이 발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학자들이 모든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조선시대 여성실학자들이 발휘했던 리더십을 <표 20>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20> 여성실학자의 리더십 유형

실학자	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장계향	●	●	●	●	●
임윤지당	●	●	●	●	●
김만덕	●	●	●	●	●
사주당이씨	●	●	●	●	●
빙허각이씨	●	●	●	●	●
강정일당	●	●	●	●	●

2) 생활문화적 의의

(1) 여성실학자의 수기리더십

조선후기 여성실학자들의 리더십을 생활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여성실학자들이 발휘한 리더십은 개인생활 영역, 가정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에서 각각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장계향이 발휘한 셀프리더십의 역량인 정직성, 책임감과 자기주도성과, 감성리더십 역량인 관계관리 능력은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성장배경과 삶의 태도로 구분하였던 개인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의 역량이었다. 임윤지당이 발휘한 셀프리더십의 역량인 자기관리와 자기개발과, 감성리더십의 역량인 자기인식능력도 개인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이었다. 김만덕이 발휘한 셀프리더십의 역량은 자기주도성이었고 감성리더십의 역량은 사회적 인식능력이었다. 김만덕의 셀프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의 역량도 개인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이었다. 사주당 이씨가 발휘한 셀프리더십의 역량인 책임감, 자기주도성, 자기개발과 감성리더십의 역량인

관계관리 능력도 개인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이었다. 빙허각 이씨의 셀프리더십 역량인 책임감, 창의성, 자기개발과 감성리더십의 역량인 사회적 인식능력은 개인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이었다. 강정일당이 발휘한 셀프리더십의 역량인 자기개발, 자기관리, 관계인식과 감성리더십의 역량인 관계관리 능력도 개인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이었다. 모든 실학자들은 셀프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을 개인생활 영역에서 각각 다른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기만의 삶을 결단하기위한 과정에서 여성의 修己리더십을 발휘하였다고 판단된다.

(2) 여성실학자의 치인리더십

장계향이 발휘한 서번트리더십의 역량은 경청, 공감, 치유와 구성원의 성장이었고, 임윤지당이 발휘한 서번트리더십의 역량은 공동체 형성이었다. 김만덕이 발휘한 서번트리더십의 역량은 공감, 치유, 설득, 비전제시였고, 사주당 이씨가 발휘한 서번트리더십의 역량은 구성원 성장, 공동체 형성이었다. 빙허각 이씨가 발휘한 서번트리더십의 역량은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이었고, 강정일당이 발휘한 서번트리더십에서는 설득과 공동체 성장의 역량이 나타났다.

장계향이 발휘한 수퍼리더십의 역량은 모델링, 격려와 지도였고, 임윤지당이 발휘한 수퍼리더십의 역량은 모델링이었다. 김만덕이 발휘한 수퍼리더십의 역량은 모델링이었고, 사주당 이씨가 발휘한 수퍼리더십의 역량은 모델링이었다. 빙허각 이씨가 발휘한 수퍼리더십의 역량은 자신감, 자부심이었으며, 강정일당이 발휘한 수퍼리더십의 역량은 격려와 지도, 자신감, 자부심이 나타났다.

장계향이 발휘한 변혁적리더십의 역량은 비전과 사명감, 이상적 목표를 이룸, 존경과 신뢰였다. 임윤지당이 발휘한 변혁적리더십의 역량은 변화와 이상적 목표였다. 김만덕이 발휘한 변혁적리더십의 역량은 변화와 높은 목표였고, 사주당 이씨가 발휘한 변혁적리더십의 역량은 비전과 사명감이었다. 빙허각 이씨가 발휘한 변혁적리더십의 역량은 비전과 사명감과 변화였으며, 강정일당이 발휘한 변혁적리더십의 역량은 장애초월, 자부심이었다.

여성실학자들이 발휘한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의 역량들은 가정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이라는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이었다. 각각의 실학자들에게서 나타난 리더십의 역량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모두 본 연구에서 여성리더십이라고 정의하여 고찰한 리더십들인 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실학자들에게 나타난 셀프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은 개인생활 영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여성의 修己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었고,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은 가정생활 영역과 사회생활의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된 리더십이기 때문에 여성의 治人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었다.

3.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의 핵심역량에 대한 재조명

여성의 修己리더십이 나타난 셀프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의 역량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역량을 여성의 修己리더십 핵심역량으로 평가하였고, 여성의 治人리더십이 나타난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의 역량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역량을 여성의 治人리더십 핵심역량으로 평가하였다.

1) 여성의 修己리더십 핵심역량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여성실학자에게서 나타난 역량 중에서 핵심역량을 연구한 결과 修己 부분에서의 핵심역량은 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책임감,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능력, 관계관리 능력과 사회적 인식 능력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修己리더십 핵심역량은 <표 2>를 참고하였다. 셀프리더십에서는 자기 및 관계인식의 영역에서 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개발의 핵심역량이, 과업수행의 영역에서 책임감, 도전정신, 창의성이, 자기관리 영역에서 자기관리의 핵심역량이 나타났다. 감성리더십에서는 자기인식 능력, 관계관리 능력과 사회적 인식 능력의 핵심역량이 나타났다. 여성의 修己리더십에서는 감성리더십보다 셀프리더십의 핵심역량이 더 많이 나타났다.

여성의 修己리더십 핵심역량은 <표 21>과 같다.

<표 21> 여성의 修己리더십 핵심역량

구분		修己의 핵심역량									
		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책임감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관계관리	사회적인식
문 인	신사임당	●			●		●			●	●
	황진이		●			●	●		●		
	허난설헌					●	●	●	●		
	이매창	●	●						●		

실 학 자	장계향		●		●					●	●
	임윤지당			●				●	●		
	김만덕		●			●					●
	사주당 이씨		●	●	●					●	
	빙허각 이씨			●	●		●				●
	강정일당			●				●		●	
합계	2	5	4	4	3	4	3	4	4	2	

(1) 자아성찰

셀프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자아성찰은 자기의 마음과 삶을 반성하고 관계 인식 속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신사임당은 어렸을 때부터 수신서를 읽으며 자아성찰을 함으로 올바른 삶의 방향을 깨닫고 도덕성을 키웠다.

부모로부터의 배움이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매창은 조선 사회에서 자신의 태생과 신분을 성찰하고 修身의 중요성을 알아 예절교육을 중심으로 가곡, 춤, 글씨와 회화 등 지식탐구를 하였다.

자신을 먼저 알아야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성찰이 우선되었을 것이며,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단계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집안 중심으로 살았던 여성들은 수신서를 읽으며 자기를 성찰함으로 언행을 배웠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성품과 예의 있는 행동을 실천했을 것이고, 기녀들은 기녀교육 과정에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수신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지식탐구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자기주도성은 자기 자신의 삶을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이끈다는 의미이다. 재색을 겸비하고 활달한 황진이는 평탄할 수 없는 운명을 예견하고 인생의 방향을 남자들과 당당히 겨루며 기녀가 되어 살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다. 이때창도 기녀라는 현실적인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남성들과의 교류할 때도 주도적으로 남성들을 선택하였다.

장계향은 부친의 성리학의 영향으로 시와 서예의 재능을 키우며 성인을 지향하는 인생관을 가졌지만 15세가 되자 스스로 재능을 내려놓고 시집가서 여성의 규범 안에 살 것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갔다. 김만덕은 기녀에서 양민이 된 후에도 결혼하지 않고 자기를 통제하는 삶을 살았다. 사회 제도를 넘어서는 결단력을 가지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았다. 사주당 이씨는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워 여훈서와 경전을 읽으며 부덕을 길렀다. 어렸을 때부터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반대하며 실천적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주관을 가지고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았다. 이들은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결단하였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보인다.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순응하며 살려고 노력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통제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주도적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자기개발

셀프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자기개발은 지식과 재능을 더 좋게 발달시키는 것이다. 임윤지당은 학문하는 가정에서 성리학자 녹문 임성주의 영향으로 천하의 기본은 자신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리학자로서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주당 이씨는 길쌈과 바느질과 예절을 배웠고, 경전을 읽으며 부덕을 길렀다. 여성으로서 경전을 읽으며 자기개발을 하여 뛰어난 인품을 소유하였다. 빙허각 이씨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였으며 지기를 싫어하는 강한의지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책을 읽으며 다방면에 실천적인 지식을 탐구하며 자기개발에 힘썼다. 강정일당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경전공부가 정신적인 힘이 되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효심이 가득한 딸이었다. 학문에 열의가 있어 경전을 깊이 탐구함으로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배우려고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자기발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수신덕목이 바로 경전을 읽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웠던 학문이 이들의 인생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주었을 것이고, 이러한 탐구가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시기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움과 자기개발에 대한 열의를 가졌던 인물들이 역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책임감

셀프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책임감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신사임당은 삶을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졌다.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격려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재능에 따른 자녀교육을 하여 가정과 나라에 필요한 인물들로 성장시켰다.

장계향은 결혼 후 흉년이 들자 충효당에 모여든 빈민들을 구제하면서, 충효당의 존재이유를 빈민구제로 정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나눔을 실천하였다. 가족, 친척과 노비들의 삶을 존중하였다. 사주당 이씨는 인간의 몸을 중시여기고 몸의 기원이 되는 태아의 문제를 탐색하면서 태교에 관한 지식을 글로 남기려는 필요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이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과업의 소중함을 깨닫고 노력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필요성과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끝까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가정에서 남편과 시부모, 자녀들, 노비와 이웃 등 가족과 에 대한 책임감은 이들로 하여금 애민과 사랑, 구제와 나눔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자신에게 속해 있는 대상과 과업에 대한 책임감이 이들을 리더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5) 도전정신

셀프리더십의 핵심역량인 도전정신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맞서는 정신을 의미한다. 황진이는 천민이라는 제약을 받았지만, 예술적 재능과 학문적 식견을 가진 지식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며 기녀라는 직업에 도전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 허난설헌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자랐으나, 혼인을 한 후 가부장적 유교 전통 안에서 시댁, 남편과의 불화와 자녀의 죽음이라는 아픔가운데 시를 남김으로 인생의 고난에 도전하였다. 김만덕은 한계를 극복하고 기녀의 신분을 뛰어 넘어, 육지를 다니며 장사를 하여 큰 재산가가 되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도전과 사업가로서의 삶에 도전하는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노력했음을 볼 수 있으며, 한계를 도전하여 극복했을 때 탁월한 예술가, 문인, 기업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출신의 문제, 가정불화와 자녀의 죽음, 기업의 성공은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문제이지만 이들은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했기에 연구대상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6) 창의성

셀프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이다. 신사임당은 가정교육과 여성교육서를 읽으면서 신의와 성실로 살겠다는 창의적인 여성상을 만들어갔다. 문인으로 재능을 나타내었고, 산수화를 그리고, 해서체와 초서체에도 능숙하였다. 황진이는 지식탐구와 거문고에도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는 창의성을 가졌다. 남긴 시와 시조는 뛰어난 예술성과 문학성을 가지고 있다. 허난설헌은 아름다운 용모와 성품이 뛰어나며 문장이 뛰어났으며 글을 읽고 시를 쓰는데 뛰어난 창의성을 지녔다. 빙허각 이씨는 학문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두루 읽었다. 다방면에 재능을 보였으며 학문을 즐겨워하였고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였다. 뛰어난 학문적 자질이 그녀에게 창의성을 갖게 하였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가운데 창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학문과 독서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독서라는 간접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문인과 실학자로서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7) 자기관리

셀프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자기관리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유지, 개량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허난설현은 문인의 가정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해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혼인 후 유교적 가치관의 가정에서 불화를 겪으며 힘이 들었지만 독서와 시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고 발전시켜 나갔다.

임윤지당은 修身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관리를 하였다. 성이 없으면 사물이 없고 덕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행하게 하는 것이 성이라고 하며 자기관리에서 성실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강정일당은 몰락한 양반가정에서 태어나 16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큰 슬픔을 겪는다. 배가 고플 때도 어머니를 먼저 드리는 효심을 가지고 있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오직 학문의 힘으로 자기관리를 하면서 극복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근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은 가부장적 가치관의 사회에서 가정 중심으로 생활했지만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자기를 관리해 나갔음을 알 수 있으며, 자기관리의 힘이 학문과 수신에서 나옴을 알고 학문에 힘썼으며, 목적인 바를 이룰 때까지 자신을 통제하고 끝까지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8) 자기인식 능력

감성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자기인식 능력은 자기의 감정과 능력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이다. 황진이는 남성들과의 교류는 항상 이별이 전제됨을 알았기 때문에 님을 보낸 뒤의 그리움의 감정을 노래하였으며,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문적 담론이 가능한 인사들과 교류하려고 하였다. 허난설현은 결혼생활의 어려움과 세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었지만 슬픈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재능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자기 인식을 하였다. 이매창은 임의 부재라는 아픈 감정을 알았기 때문에 아픔을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체적으로 남성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성기녀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임윤지당은 기본적으로는 녹문의 성리학을 계승하지만, 윤지당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임을 인식하였고, 철학적으로 이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도 배워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다가온 감정을 섬세하게 인식하였으며 자각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음을 볼 수 있으며, 내면에서 감정을 깊이 통찰하고 인식하면 할수록 외적으로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재능인 학문과 예술과 철학 분야에서 더욱 큰 능력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9) 관계관리 능력

감성리더십의 핵심역량인 관계관리 능력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하는 능력이다. 신사임당은 효는 자신의 마음과 부모, 가족,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말하였다. 자녀들이 부모, 형제, 부부, 이웃과 신의를 쌓아 인간관계에 덕을 쌓도록 가르쳤다. 장계향은 자녀를 학문으로 시대를 깨웠던 일곱 아들들을 키워 냈으며, 종들에게 예절을 가르치며 평등하게 대해 주었고, 재능에 맞는 일을 시킴으로 다른 집 종들이 장씨 마님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로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었다. 사주당 이씨는 학문이 뛰어나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학문의 벗으로 깊은 이치를 토론하고 지냈으며, 당대의 사대부들을 지도하였다. 학문을 통한 인간관계를 하면서 학문적인 동료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가졌다. 강정일당은 가난과 고통 가운데도 평정을 지키는

정신적인 힘이 있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배운 경전의 내용들이 그녀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였다. 학문을 통한 인간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갔다. 이들은 가족들과 종들, 이웃 사람들과 학문적 동료에 이르기까지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현모양처로써 원만한 부부관계와 현명한 자녀를 키울 수 있었고, 집안사람들을 재능별로 관리함으로 원활한 가정 경제를 키우고 가문의 위상을 높힐 수 있었으며, 학문적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를 볼 때 리더의 인간관계 능력은 관계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량이라고 판단된다.

(10) 사회적 인식 능력

감성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사회적 인식 능력은 사회적인 요구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사물이나 사건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이다. 김만덕은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했지만,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사회적 요구를 인식하는 능력을 가졌다. 거부가 된 후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여 굶주린 백성들의 목숨을 구함으로 칭송을 받았다. 빙허각 이씨의 아버지는 딸의 총명함을 높이 사고 아들과 같은 사랑을 베풀었으며, 집안에서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대우하였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수준과 역량으로 생각하는 차별 없는 사회적 인식이 빙허각을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도록 격려하여 여성 최초의 대백과사전이라는 걸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이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규범화된 가부장제 사회에 살았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 으로 영향력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평생을 모았던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하였고, 여성들에게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 작업으로 자료를 모아서 최초의 백과 사전을 편찬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사회적 인식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여성의 治人리더십 핵심역량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여성실학자에게서 나타난 역량 중에서 핵심역량을 연구한 결과 治人부분에서는 여성의 治人리더십의 핵심역량은 구성원성장, 공동체 형성, 모델링, 자부심, 이상적목표, 비전과 사명감, 장애초월, 변화,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로 나타났다. 여성의 治人리더십 핵심역량을 <표 2>를 참고해 보면, 서번트리더십에서는 구성원성장과 공동체형성의 핵심역량이 나타났고, 수퍼리더십에서는 모델링과 자부심의 핵심역량이 나타났다. 변혁적리더십에서는 카리스마 영역에서 이상적 목표, 비전과 사명감, 장애초월, 변화와 존경과 신뢰의 핵심역량이 나타났고, 개별적 배려의 영역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핵심역량이 나타났다. 여성의 治人리더십의 핵심역량에서는 서번트리더십과 수퍼리더십보다 변혁적리더십의 핵심역량이 세 배나 더 많이 나타났다. 여성의 治人리더십 핵심역량은 <표 22>와 같다.

<표 22> 여성의 治人리더십 핵심역량

구분		治人의 핵심역량									
		서번트 리더십		수퍼 리더십		변혁적리더십					
		구성원성장	공동체형성	모델링	자부심	이상적목표	비전과사명감	장애초월	변화	존경과신뢰	창의적아이디어
문 인	신사임당	●		●		●	●			●	●
	황진이							●			●
	허난설현				●	●		●			●
	이매창							●	●		●
실 학 자	장계향	●		●		●	●			●	●
	임윤지당		●	●		●			●		●
	김만덕	●		●		●	●		●		●
	사주당 이씨	●	●	●			●				●
	빙허각 이씨	●	●		●		●		●		●
	강정일당		●		●			●			●
합계		5	4	5	3	5	5	4	4	2	10

(1) 구성원성장

서번트리더십의 핵심역량인 구성원의 성장은 구성원들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자라남을 의미한다. 신사임당은 4남 3녀의 자녀교육에 모범이 되었다. 세 딸에게 학문과 예술을 가르치고 현모양처의 덕을 기르도록 하였다. 네 명의 아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함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이루었다. 장계향은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던 중들에게도 실천하는 교육을 하였다. 중

들에게 나는 너희를 충효당의 식구로 여긴다고 말하였고, 빈민에게 구제할 때도 공손한 말과 예의를 지키라고 말함으로 구성원의 인격을 성장시켰다. 김만덕은 굶주린 제주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을 찾아 사공들에게 전라도에 가서 쌀을 사오라고 당부하였다. 사공들을 통해 가져온 쌀을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줌으로 제주도민을 살려내어 구성원의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사주당 이씨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혼인 후에는 남편과 학문적 대화를 하였으며, 여성들을 위하여 학문을 나눔으로 함께 구성원의 성장을 이루었다. 빙허각 이씨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학문적 기반 위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며, 자신이 얻은 지식과 체험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증하여 알려줌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함께 이루었다. 이들은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구성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큰 인물로 키워냈으며, 주민들의 생명을 구원하였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연구한 자료들을 책으로 편찬하기도 하였고, 백과사전을 편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눔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함께 이루는 역량을 발휘했다고 판단된다.

(2) 공동체형성

서번트리더십의 공동체 형성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하는 집단이 모이는 것이다. 임윤지당은 혼인 후 8년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도 죽는 아픔을 겪었으나, 심성을 수련함으로 시련을 극복하여 여성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예의바른 행동으로 시댁 어른이나 친족이나 주변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사주당 이씨의 학문이 뛰어나자 사대부들이 학문의 가르침을 청하여 사대부 남성들의 학문을 지도하면서 학문공동체를 이루어갔다. 빙허각 이씨의 학문적 시각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으로 받아들인다. 어렸을 때는 아

버지에게 배웠고, 학문의 지우였던 남편과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학문을 토론하면서 가정 경영도 학문의 실현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여성들도 지성인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공동체의 성장을 시도하였다. 강정일당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도 그녀의 학문으로 인한 행동과 실천에 감동을 받아 학자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인과 학문을 토론하며 지냈다. 남편이 서당을 운영할 때 남편을 도와 서당을 잘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생들과 학문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가족들과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였고, 여성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책을 편찬함으로 여성공동체를 형성하였고, 남편을 도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문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평가된다.

(3) 모델링

수퍼리더십의 핵심역량인 모델링은 닮고자 하는 대상이나 모범이 되는 것이다. 신사임당은 중국 역사상 가장 부덕을 갖춘 여성인 주나라 문황의 어머니 태임을 본받기 위해 호를 사임으로 하여 태임을 본받기 위해 애썼으며, 후에 사임당은 여성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여성이 되었다.

장계향의 시가는 명문가로 가족, 친척과 노비도 많았는데, 시가와 이웃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서 사회지도자로서의 모델이 되었다. 현모양처, 시인, 화가, 서예가, 교육자, 사상가, 과학자와 사회사업가의 모습을 보였던 여성군자로 불리웠다. 임윤지당은 이상적 여성상인 문황의 어머니 태사와 문황의 비였던 태임을 역할 모델로 삼았고, 모든 여성들에게도 본받으라고 하였다. 여성의 위상을 높였으며, 태사와 문황을 동등한 관계로 설정함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말하였다. 김만덕은 제주도민이며 여성이라는 신분적 한계가 있었지만 이러한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벳사람들과 모든 제주도민이 존경하는 모델이 되어 정조의 상을 받게 되었다. 사주당 이씨는 주체의식을 지닌 여성학자이며 여성군자의 삶을 살았다. 자녀에게는 엄격한 교육을 하였으며, 조선의 어머니의 모델이 되었다는 의미로 아들 유희는 어머니를 ‘東海母儀’라고 불렀다. 이들은 자신이 닮고자 하는 인물을 역할모델로 선정해 닮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유교사회에서 가족중심으로 친족과 노비들에게도 신뢰를 얻었으며,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제함으로 왕의 시상도 받게 되었고,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적이던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말하였으며, 여성군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존경을 받아 많은 사람들의 역할모델이 되었던 인물들로 평가된다.

(4) 자부심

수퍼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자부심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다. 허난설헌은 명문집안에서 집안에서 태어나 사회적 문화적 덕망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하였다. 난설헌을 포함한 집안은 모두 문장에 뛰어났다. 빙허각 이씨는 여성을 위한 책을 집필하였으나 여성의 역할을 婦德이나 治家에만 한정짓지 않았다. 여성도 다양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 강정일당은 남편에게 학문을 권하였고 서당을 운영하도록 권유했으며 남편의 스승과 벗들을 찾아 예법을 질문하며 교류를 나누는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가졌다.

이들은 조선시대에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여성들과 나누려고 노력하였으며, 문학적 교류를 하면서 긍지를 가졌고, 여

성을 남성과 같은 인격체로 인식함으로 여성임에 자부심을 가졌으며, 학문적 업적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5) 이상적 목표

변혁적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이상적인 목표는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신사임당은 유교의 교육사상에 뿌리를 두고 삼강오륜의 덕목을 생활철학의 신조로 삼는 이상적인 목표를 가졌다. 사임당의 목표로 율곡의 충효사상이 나왔다. 허난설헌은 단아한 용모와 성품에,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 문학과 예술가로 사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삼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시인이 되었으며 천재라는 평을 받았다.

장계향은 자신이 가진 강한 지도력으로 이웃을 돕고 보살핌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성리학의 학문을 즐거워하며 스스로 수신해서 애민하는 삶을 이상적인 목표로 삼았다. 임윤지당은 남편의 유품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남편이 남긴 『詩經』과 『楚辭』의 필사작업을 하였다. 책을 읽으며 유교의 修己治人을 목표로 두었다. 김만덕은 11살 때 아버지가 장사하면서 타셨던 배가 전복되어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가 목숨을 걸었던 장사를 꿈꾸었다. 기생에서 잡화상 주인으로, 잡화상 주인에서 객주 주인으로, 객주 주인에서 사업가가 되어 꿈꾸던 목표를 이루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유교적 교육을 목표로 삼기도 하였고, 문인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하였으며, 유교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업에 성공하여 큰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갔던 여성들이었다고 평가된다.

(6) 비전과 사명감

변혁적리더십의 핵심역량인 비전과 사명감에서 비전은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사명감은 꼭 해야 할 맡겨진 임무를 하겠다는 결단력이다. 신사임당의 집안의 가훈은 신의, 지조, 청백, 성실과 우애였다. 사명감을 고취시켜 딸들에게는 부덕을 쌓아 가정의 현모양처가 되도록 가르쳤고, 아들들은 국가와 사회의 리더로 키우려는 비전과 사명감을 가졌다.

장계향은 사랑과 애민의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려는 비전을 가졌으며, 인간평등과 복지사회를 추구했으며 가치있는 삶을 살도록 돕고자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요리책을 만들었다. 김만덕이 유명해진 것은 전 재산을 제주도민들을 살리기 위해 나누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목표와 거상이었지만, 백성의 생명을 살리려는 사명감을 발견하고, 더 높은 가치를 실현했던 리더였다. 사주당 이씨는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연구를 하였다. 사람의 몸의 소중함을 깨닫고 태아에 관한 연구를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였는데 이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태아기 교육과 생후교육을 나누어 기록하였다. 빙허각 이씨는 문헌들을 참고하여 실용적 지혜를 모았다. 여성에게도 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빙허각은 최초의 실용서적인 가정백과사전을 편찬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나아갈 길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며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딸들은 현모양처로 아들은 사회적 리더로 키우려고 하였으며 재능에 따라 비전을 이루게 하였다.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을 깨닫고 이루어 나감으로 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7) 장애초월

변혁적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장애초월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황진이는 유교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기녀라는 신분적 장애를 초월하기에는 외로움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품으로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허난설현의 시인으로서의 삶은 고독하였고, 뛰어난 재능이 사대부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하였지만, 가을바람에 난초는 다 시들어도 향기는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시로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었다. 이매창은 기녀가 되었지만, 남자들의 향락적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하였다. 감성이 풍부하여 거문고를 뛰어나게 다루었으며 54수의 시를 남김으로 예술인으로서의 삶으로 승화시켰다.

강정일당은 가난때문에 유랑했고 아홉명의 아이들도 모두 죽었으나 학문에 대한 집념은 더욱 강하여졌다. 자신의 저작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랐다. 남성들과 동등한 업적을 이루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정일당의 꿈이 사후에 이루어졌다.

이들은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출생의 문제나 사회적인 갈등과 가정의 어려움 등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출신의 문제를 예술적 재능으로 나타내었고, 사회적인 갈등을 시로 표출했으며, 가난과 자녀들의 죽음이 고통스러웠지만 학문 등 예술적 재능으로 극복하였다고 판단된다.

(8) 변화

변혁적리더십의 핵심역량인 변화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으로 삶이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매창은 자신의 신분

과 혼란한 정치적 상황에서 변화를 꿈꾸었다. 강한 자존심으로 자유로움을 추구한 매창의 기질은 그녀를 더욱 풍류적 인물로 만들어 허난설헌, 황진이와 함께 조선의 3대 여류시인으로 불리운다.

임윤지당은 여성의 변화를 추구했던 학자이다. 유교의 경전과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깊이 사색한 결과 우주 삼라만상 중에 인간이 가장 귀하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리학적 명제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김만덕은 제주도 출국금지령이 국법으로 정해져 있을 당시 금강산을 정조의 포상으로 여행했으며, 중전에게도 문안을 드렸다. 의로운 義女였으며, 실제로 정조 때 醫女의 직위를 받았다. 조선시대에 한 여인의 소원을 왕이 들어준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빙허각 이씨는 부덕을 요구했던 당시의 여성상에서, 학문과 각 분야의 재능을 갖춘 여성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랐다.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여성상의 변화를 추구하였던 생각을 자신의 저서에 기록하였다.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성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탁월한 재능으로 시를 남겼고, 인간이 가장 귀하다는 성리학적 명제를 발견하였으며, 기녀였지만 의인의 직위를 받았고, 부덕을 요구하던 시대에 여성을 위한 백과사전이 만들어졌던 동기는 여성의 변화를 추구했던 리더의 역량이었다고 판단된다.

(9) 존경과 신뢰

변혁적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존경과 신뢰에서 존경은 인격, 사상과 행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것이고,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할만한 대상을 의미한다. 신사임당은 당시부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상으로 인품, 자녀교육과 학문과 재능을 갖춘 예술인으로 본받을 만하다. 장계향은 가정과 이웃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혼인 후 두 가정과 가

문을 부흥시킨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다. 1999년 신사임당에 이어 두 번째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인물로 선정되었다. 김춘희(2011)는 세상을 치유한 조선의 큰 어머니로 평가한다. 이들은 가정생활 영역인 가정과 자녀 교육에서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모든 자녀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인물들로 인정받았음은 물론이며, 그 외에도 예술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이웃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은 한국의 여성들로 불리워졌다고 평가된다.

(10) 창의적 아이디어

변혁적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창의적 아이디어는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자신의 삶을 통해 남긴 업적을 의미한다. 신사임당은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초충도’ 외에 많은 작품을 남겼고, 황진이도 문학성이 뛰어난 한시와 시조를 남겼다. 허난설헌은 『난설헌집』, 이매창은 『매창집』을 남겼다. 장계향은 『음식디미방』, 임윤지당은 『윤지당유고』, 김만덕은 책을 남기지지는 않았으나 제주도민을 구한 여성사업가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남겼다. 사주당 이씨는 『태교신기』, 빙허각 이씨는 『규합총서』, 강정일당은 『정일당유고』를 남김으로 업적을 남겼다. 이들은 유교의 남존여비사상과 부덕만을 강조하는 시대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에 노력하였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타냄으로 놀라운 저술과 업적을 남겼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역량에 따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각의 재능대로 큰 업적을 남겼다. 가정을 중심으로 살면서도 여성문인과 실학자로서 작품을 남겼고, 서적을 발행하였으며, 혼인은 하지 않았으나 자기 재산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한 사업가도 있었고, 시와 시조로 자신을 표출하는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여성도 있었음을 볼 때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들은 다양한 재능대로 역량을 나타내었다고 판단된다.

4. 현대 여성리더 사례를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여성리더십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에게 나타난 리더십과 그 핵심역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조선시대 여성의 리더십에 나타난 핵심역량이 현대의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수용,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대의 여성문인과 리더들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대 여성리더 사례를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을 조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삶에서 나타난 여성리더십의 핵심역량은 현대에도 유용한 가치가 있는가?

둘째, 현대여성에게 필요한 여성리더십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2) 면접조사 방법 및 연구사례

(1) 면접조사 방법

면접조사는 현상학적 연구를 적용하였으며, 사례자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조사는 면접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 개별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2차 면접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수행하였다. 면접대상자

인 여성문인 3명과 여성리더 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현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여성들이었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는 여성들 중에서 조선시대의 여성들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면접조사 내용에 솔직하게 답해 줄 수 있는 여성문인과 리더들을 스노우볼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과 전화 통화하여 면접에 응하기로 한 여성문인 3명, 여성리더 3명, 합 6명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16년부터 40년까지 일한 전문직 여성들이다.

면접대상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리더 3인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물은 후 여성리더십에 관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약속을 하였다. 모두 바쁜 중에도 중요한 논문을 쓰는데 시간을 내어주겠다고 적극 참여해 주었다. 여성문인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아동문학가에게 전화하여 조선시대 여성 문인의 리더십을 연구에 이어 현대 여성문인의 리더십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약속을 해 주었다. 면접을 하면서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했으며, 다른 동료 문인들을 소개해주어 스노우볼 방식으로 두 사람의 문인을 만나게 되었다. 면접대상자와의 라포(rapport)는 여성리더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으며 여성리더로서의 애로사항에 서로 공감하게 되면서,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를 말했더니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면접질문지를 기초로 한 면접시간은 일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으며, 추가 질문은 전화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질문지는 최미경(2000), 나정순(2002), 김효주(2013), 김선주

(2014)의 논문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관한 질문 7항과 본 연구에 관한 질문 8항으로 면접질문지를 완성하여 적용하였다. 면접질문지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지도교수와 박사과정 연구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면접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리더십에 관한 전반적인 요약 설명서인 <표 23>을 제공하고, 설명하면서 질의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도록 하였다.

<표 23 >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생애와 업적

구분		남편	자녀	업적	업적의 예시
문 인	신사임당 (강릉)	이원수 현모양처	4남3녀 3남: 이율곡	문인, 예술가 詩書畫, 수예, 초충도 외	1992. 5 문화관광부 이달의 인물 선정
	황진이 (개성)	기녀	없음	시 8수 시조 6수	相思夢 김안서 작사 김성태 작곡: 가곡 <꿈길에서>
	허난설헌 (강릉)	김성립 불화 독서와 시	3자녀: 죽음	『난설헌집』 허균 발간, 중국 에서 먼저 알려짐. 시 200수.	왜 조선에 태어났 는가? 왜 자녀를 잃었는가? 왜 남편 을 만났는가?
	이매창 (부안)	기녀	없음	『매창집』 시 58수, 정신적 가 치추구, 현실의 아픔 을 노래.	거문고는 분신과 같으며, 남, 사랑 과 그리움의 공간. 매화나무 창가에서 외로운 마음 표현.
실 학 자	장계향 (안동)	이시명 현모양처 여중군자 사회사업 충효당	7남3녀 영남학과 7현자	『음식디미방』 146가지 요리. 최초 한글 조리서	1999.11 문화관광부 이달의 인물 선정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장계향 기록
	임윤지당 (원주)	신광유 여성군자 성리학자	결혼 8년 남편 죽음 자녀 죽음	『윤지당유고』 동생 임정주 편집, 간행	남·여 평등을 철학적으로 증명. 공부 목적은 성인.
	김만덕 (제주)	독신 사업가 사회사업	없음	사회사업가 1980년(제주) 사회공헌 여성상 '만덕상' 시상	평생 모은 재산으로 흉년 때 제주도민 구제. 정조 시상으로 금강산 여행을 함.
	사주당 이씨 (청주)	유한규 학문토론 여성군자	1남 3녀 1남: 유희	『태교신기』 유희가 한글로 번역.	남·여 평등 주장. 선비들이 사주당 에게 학문을 배움.

빙허각 이씨 (서울)	서유본 학문토론	4남 7녀 8명 죽음 1남 2녀	『규합총서』 최초의 여성백과사전	남·여 평등 주장. 실생활 방대한 지식 을 집필함. 여성도 가정, 사회, 세계적 안목을 가져야 함.
강정일당 (제천)	윤광연 학문토론 성리학자	가난, 9자녀 사망	『정일당유고』 40여 편 한시	2005. 7 문화관광부 이달의 인물 선정

면접질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7항목은 성별, 나이, 학력, 전공, 전문 분야 활동 경력 기간, 결혼여부와 자녀유무에 관하여 묻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둘째, 면접대상자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의 역량은 무엇인지, 자부심을 느낄 때와 갈등을 느낄 때는 언제였는지, 자신이 여성문인과 여성리더로서 성공하게 이끈 리더십의 핵심역량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셋째,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들에 대한 재조명에 대하여 유용하다고 평가하는지, 만약 유용하다면 어떤 면에서 유용한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현대여성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핵심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내용을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에게서 나타난 핵심역량 중에서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면접질문 목록은 <부록 2>와 같고, 여성리더 대상 면접질문 목록은 <부록 3>과 같이 작성되었다.

면담은 연구대상자들의 직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각각 한 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면담내용은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응답자의 양해를 얻은 후 연구동의서 <부록 1>를 받고, 연구 면접질문지인 <부록 2> 와 <부록 3>의 내용에 따라 질문하고, 응답한 내용을 녹취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먼저 면접조사 시 녹취한 자료의 전사작업을 실시하였다. 녹취된 자료는 면접조사 질문지의 면접내용 중 구술내용에 따라 비슷한 내용끼리 범주화 한 후 각 내용끼리 의미를 찾아보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연구문제인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삶에서 나타난 여성리더십의 핵심역량은 현대에도 유용한 가치가 있는가?와 현대 여성에게 필요한 여성리더십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면접한 구술내용을 파악하였다.

(2) 연구사례의 특성

연구 사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사례 1은 아동문학가로 문예창작을 전공하였다. 1991년 마로니에 백일장에서 시작하여 대경문학시인으로 등단하였고, 색동회 동화구연을 하는 등 25년 동안 시와 소설을 34권을 기록하였다. 남편과 1남 1녀를 두고 있다.

사례 2는 시인으로 국문학을 전공하였고 활동경력은 16년이 되었다. 그러나 시인으로 명함을 내놓기는 부족하다고 말했으나, 실제 저서로는 2011년도, 그리고 2016년 9월에 시집을 발간하였고 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었다. 남편과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사례 3은 시인으로 문예창작을 전공하였고 전문분야 활동경력은 30년이 되었다. 시를 쓰면서 학생들에게 글짓기, 독서와 논술을 16년째 교육

하고 있다.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어 조선시대 시인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미혼으로 앞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4는 공직자였으며 여성운동가로 일하고 있다. 사회학을 전공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 외에는 38년을 여성운동을 하였으며, 여성의 인권을 위해 살아왔다. 조선시대의 여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었다. 남편과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사례 5는 대학교수로 25년을 재직하며 후학들을 양성해 온 여성리더이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도전정신을 가지고 극복하였다고 한다. 어려운 전공과목이지만 새로운 정보로 관심을 끌면서 수업을 인도한다고 한다. 실력과 함께 리더십을 겸비함으로 학생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 남편과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사례 6은 공직자로 40년을 활동하고 있다. 전문분야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양성평등 운동에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여성도 국가가 주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당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전문적인 능력은 남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면접사례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4>와 같다.

<표 24 > 면접사례의 일반적 사항

사례	구분	면담자	성별	나이	학력	전공	활동 경력(년)	결혼	자녀
1	문인	아동문학가	여	63	석사	문예창작	25	유	1남1녀
2		시인	여	52	학사	국문학	16	유	1남1여
3		시인	여	58	학사	문예창작	30	-	-
4	리더	공직자	여	64	석사	사회학	38	유	2녀
5		대학교수	여	58	박사	이학	25	유	1남1녀
6		공직자	여	63	박사	이학	40	유	2녀

3) 연구사례 분석

(1) 사례들의 여성리더십과 핵심역량

① 셀프리더십의 중요성과 자기개발 노력

여성문인과 여성리더의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리더십 역량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례들은 셀프리더십을 발휘하였고(사례1, 2, 3, 5, 6), 핵심역량으로는 자아성찰(사례 1, 2), 자기개발(사례 2, 6), 자기주도성(사례 1), 정직성(사례 3), 도전정신(사례 5)이 나타났으며, 감정리더십으로는 관계관리능력(사례 3), 자기인식능력을 (사례 4)발휘한 바를 알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사례들은 개인생활 영역에서 셀프리더십을 가장 많이 발휘하였는데, 이는 셀프리더십을 자기관리와 높은 자기주도성, 자기 동기 부여를 통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던 안중인(2014)의 논문과 일치하며, 여성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아성찰, 자기개발, 자기주도성,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량임을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문인의 삶은 민감성이 제일 중요하지요? 너무 민감해서 안 봐도 되는 것을 보니 고민이 됐어요. 너무 민감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기도했더니 마음 속에서 민감하니까 시인이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 1). (자아성찰, 자기주도성/셀프리더십)

저의 개인생활에서의 힘은 깊은 생각입니다. 자아성찰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사례 2). (자아성찰, 자기개발/셀프리더십)

칭럽하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사는 것, 이렇게 살아왔어요(사례 3). (정직성, 관계관리 능력/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내가 리더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았어요. 내가 도움이 되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더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 세상이 요만큼이라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내가 행복한 것이 최우선이지요. 수퍼우먼이 되려는 생각은 한번도 없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나이니깐 내가 행복한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지요.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원망이 생기잖아요?(사례 4). (자기인식능력/감성리더십)

도전정신이에요. 오랜 학교생활에서 어떤 일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다보니 리더가 되어있네요?(사례 5). (도전정신/셀프리더십)

자신의 역량개발이 중요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어요(사례 6) (자기개발/셀프리더십).

② 서번트리더십과 가족의 성장 지원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서번트리더십(사례 1, 2, 4, 5, 6)을 발휘한 바를 볼 수 있으며, 핵심역량으로는 구성원의 성장(사례 2, 4, 6), 공동체 형성(사례 1, 5), 나눔(사례 1)등의 역량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퍼리더십으로 모델링(사례 1)의 역량을 발휘한 바를 알 수 있었다.

사례들은 가정생활 영역에서 서번트리더십을 가장 많이 발휘하였는데, 이는 리더가 조직구성원들의 인격 성장을 추구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서번

트리더십이라고 정의한 Spears(2005)의 연구를 다시 정리한 김지아(2016)의 논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례들은 서번트리더십의 10가지 핵심역량 중에서 가족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을 구성원의 성장과 공동체 형성을 말했는데 이는 가족의 성공과 자기성장까지 이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역량임을 증명하였다. 특히 남편의 지원, 상호협력과 사례들의 헌신적 노력들이 보완되어, 일하는 여성이었지만, 가정생활에서도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해 현명하게 대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과는 서로 인격존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며 살 수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엄마는 예견자와 같아요. 시인이기 때문에 앞이 보여요. 자녀들은 때로는 엄마가 앞서 말한다고 싫어하지요. “아니 엄마는 항상 왜 그래? 항상 앞서가구, 그러지 좀 마세요!” 라고 해요. 그래도 잘 컸어요. 지금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라! 돈을 벌든지, 일을 하든지 나누는 사람이 되라!” 고 말해요(사례 1). (공동체 형성, 모델링/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남편이 일을 하도록 도와 주었고, 1남 1녀의 자녀들 학비내느라 저는 공부할 수 없었어요 대학원이 가고 싶어 올해 S대학 진학 준비했는데 합격됐어요. 그런데 학비가 걱정이지만 더 늦기 전에 다니려고 해요(사례 2). (구성원의 성장/서번트리더십)

남편과는 상호협력이 가장 중요했어요. 애들도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기 가진 것 감사할 줄 알고, 자기 역할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잘 하면 좋겠어요. 저는 박사공부하지 못했는데 자녀들 키우다보니 못했어요. 너무 가정생활 잘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결혼도 안하고 자녀도 안 낳으려해요. 가족들 간에 나로 인해 행복하면 좋겠어요. 별명이 엔조이 김, 엔터테인먼트 김이라 불러

요. 나는 우리 엄마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집에서도 내가 빠지면 재미없어요 (사례 4). (구성원의 성장/서번트리더십)

남편과 1남 1녀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사례 5). (공동체 형성/서번트리더십)

남편과 2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 사랑을 베풀었어요. 남편에게는 25년 동안 헌신했더니, 이제는 남편이 제 일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줘요(사례 6). (구성원의 성장/서번트리더십).

③ 변혁적리더십과 사회변화의 주도

사례들은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변혁적리더십(사례 2, 3, 4, 5, 6)에서 비전과 사명감(사례 2, 3, 4, 5), 이상적목표와 영향력(사례 4), 변화(사례 3), 소통(사례 6), 서번트리더십(사례 1, 4, 5, 6)에서 설득(사례 1, 4, 6), 구성원의 성장(사례 4, 5), 공동체 형성(사례 5), 슈퍼리더십(사례 1, 4, 5, 6)에서 모델링(사례 1, 4), 격려와 지도(사례 1, 5), 나눔(사례 6)의 순서로 핵심역량을 발휘한 바를 알 수 있었다. 사례들은 비전과 사명감, 목표와 영향력, 변화의 역량을 가장 많이 발휘함으로 사회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변혁적리더십은 리더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제시한 후 지적인 자극을 통해 동기 유발함으로 조직과 구성원에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이라고 말한 허남철(2009)의 논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례들도 사회생활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는데 변혁적리더십을 가장 크게 발휘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인은 변호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편하도록 도와주며 배려할 줄 알게 되요. 말을 들어주면 자신의 깊은 고민을 다 말해요. 잘 설득해서 자아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면 너무 좋아해요. 4년 짜 주민들에게 시를 지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반에 9명 학생이 배우고 있는데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다고 좋아해요. 내년에는 5년 동안 쓴 시를 모아 책을 출판해 주려구요. 시를 쓰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게 되고, 자연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편안하게 살게 되거든요(사례 1).(설득, 모델링, 격려와 지도/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저는 꿈이 있어요. 문학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못간 대학원에 이번에는 무리해서라도 꼭 갈꺼예요. S대학원에는 합격했는데 돈 때문에 걱정이지만 이번에는 일 저지르려구요. 복지를 전공해서 문학과 사회복지를 연결해서 논문도 쓰려구요. 벌써 논문제목도 만들었지요. ‘사회복지와 문학의 연계성’ 이요(사례 2).

(비전과 사명감/변혁적리더십)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았어요. 꾸준히 열심히 살아왔지요(사례 3). (변화, 비전과 사명감/변혁적리더십)

70년대부터 여성운동을 했는데 사회변화가 이루어질 때 자부심을 느꼈어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하면서 자부심을 느꼈구요.

저는 구성원들에게 “함께 가자!” 를 설득해서 함께 힘을 합해 가는 것을 강조했어요. 구성원들이 저 분이 있어야 재미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고위공직자가 되어있었어요.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살다보니

이 자리에 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인간이 되려는 노력은 했어요.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떠나면 따뜻한 온기가 남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고위공직자가 되건 안되건 크게 상관없어요. 일을 하다보니 일이 맡겨져서 일한거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40년 전부터 여성운동을 하다보니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요.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목표지점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지요(사례 4).

(설득, 구성원 성장, 모델링, 이상적 목표, 비전과 사명감, 영향력/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 협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지도자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커요(사례 5).

(구성원성장, 공동체 형성, 격려와지도, 비전과 사명감/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회에서 최초로 남성불평등을 느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반장선거를 했는데 칠판에 표시하면서 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남학생인 00보다 표가 더 나와 ‘내가 반장이 되었구나’ 하고 속으로 좋아하는데, 담임선생님이 “00가 표는 더 나왔지만 여자이니까 부반장하고, 00는 남자이니까 반장하도록 하자!” 는 거예요. 억울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남녀불평등을 경험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했어요. 나눔, 공정함, 소통을 위한 social cordonator가 되고 싶었어요. 의견이 다를 때 모임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말해주고 설득하면 다 따라와 주었어요. 국민통합을 위한 단체에도 동참하고 있어요(사례 6).(설득, 나눔, 소통/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④ 수퍼리더십과 자부심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는 수퍼리더십(사례 1, 2, 3, 4, 5,

6)에서 자부심(사례 1, 2, 3, 4, 5, 6)이, 서번트리더십(사례 1, 3, 5, 6)에서 공감, 치유, 설득(사례 1), 구성원의 성장(사례 3, 5, 6)이 나타났다. 변혁적리더십(사례 1, 2, 4, 6)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사례 1, 2, 4), 변화(사례 3), 이상적 목표(사례 6)의 역량을 발휘할 때 자부심은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사례들이 여성리더로서 각 분야에서 모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수퍼리더십을 발휘한 결과인데, 이는 21세기의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동기부여를 통해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활력 고취자(energizer)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된다고 말한 조성중(2003)의 논문과, 조직구성원들을 격려와 지도하는데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박용진(2009)의 논문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다. 사례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와 교육의 현장에서 활력 고취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구성원들을 성장시킨 수퍼리더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문인을 예견자라고 봐요. 삶을 형상화하는 사람이고 메시지를 제시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공감과 치유, 성숙, 변화를 이루는, 저는 문인의 삶은 유토피아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시집과 동화집을 30여권 썼어요(공감, 치유, 설득, 자부심, 창의적 아이디어/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1)

자부심을 느낀 경우는 깊은 고뇌 끝에 시집을 발간했을 때였어요(자부심, 창의적 아이디어/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2)

학생들이 배운 것을 잘 알고 나타날 때 자부심을 느껴요. 저는 글짓기, 독서, 논술 세가지를 16년동안 가르쳤어요(구성원의 성장, 자부심/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사례 3)

70년대부터 여성운동했는데 사회변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때가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 아시지요? 나혜석의 전기도 보면 시대를 잘못타고 난거지요?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할 때도 성취감을 느꼈어요. 예로 제가 일해서 변화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 남자만 채용하면 항의해서 항목을 바꾸어 남녀 함께 뽑도록 했지요. 전에는 기차역에서 개찰할 때 가위로 아저씨들이 찰칵 찰칵하고 표를 잘라주고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여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들도 하도록 제안했는데 결국 여자들도 개찰원들이 되었어요. 또 전기검침원을 남자들만 했는데 여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저항이 많았어요.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둥 반대했어요. 계속 설득했더니 통과되었어요. 지금도 집에 있을 때 여자검침원들이 오는 것을 보면 “내가 한건데--” 흐뭇한 생각이 들어요(자부심, 변화, 창의적 아이디어/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4)

제자가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자부심을 느껴요(구성원의 성장, 자부심/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사례 5)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슷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사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눈치보지 않고, 내 일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맘껏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있었지요. 저는 전 인건강을 중요시했어요. 국민을 치유, 사회를 치유하는 전인건강을 위해 살아왔어요. 저는 WHO 세계보건기구 선언문을 전파하고 싶었어요. 육체는 건강하지만 정신은 탐욕에 가득히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건강은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건강을 의미하지요. 개개인이 건강하면 사회가 바로서기 때문에 전인건강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참 사회성이 강하고 자부심이 있어요(구성원의 성장, 자부심, 이상적목표/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6)

⑤ 갈등극복과 변혁적리더십

일을 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에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변혁적리더십(사례 1, 2, 3, 4, 5, 6)의 장애초월(사례 1, 2, 3, 4, 5, 6), 비전과 사명감(사례 3), 변화(사례 4), 감성리더십(사례 5, 6)의 관계관리 능력(사례 5, 6), 셀프리더십(사례 1)의 도전정신, 서번트리더십(사례 2)의 구성원의 성장이 근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사례들이 갈등을 느끼는 경우에 극복하게 된 힘은 변혁적리더십의 핵심역량인 장애초월이었는데, 이는 리더들이 각 분야에서 일할 때 반드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변혁적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성원들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전 상황에서도 명료한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는 변혁적 리더십의 장애초월이라고 본 허남철(2009)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를 연구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리더에게는 장애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독특한 업적을 남긴 것이 증명되었다.

사람들에게 문학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대상이 없어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찾아가 “제가 재능 기부할테니 강좌를 열어주세요” 부탁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송파문화회관 ‘실벗뜨락’에서 ‘시와 에세이’를 4년 동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보람있고 즐거워요(도전정신, 장애초월/셀프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1)

경제적 문제가 고민이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아이들 먼저 교육시켜야 해서 힘들었어요. 올해는 힘들어도 대학원 진학 준비 다 했어요(구

성원의 성장, 장애초월/서번트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2)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직업을 바꿀까도 했지만 전공이 이거니 바꿀 수도 없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에는 학생이 한 반에 70명까지도 되었는데 지금은 문학보다는 컴퓨터나 스피드 있는 걸 좋아해서 문학은 좀 어려워졌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장애초월, 비전과 사명감/변혁적리더십). (사례 3)

가부장적인 사회질서가 팽배하니 그것을 바꾸려니 때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많이 바꾸었지요(변화, 장애초월/변혁적리더십). (사례 4)

단체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소통이 안될 때는 정말 갈등이 생겨요. 지금까지 잘 해결해 왔어요(관계관리 능력, 장애초월/감성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5)

사회생활에서 부정한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저는 투명성, 정직성, 공정성, 협동성을 강조하지요. 저는 부당하면 건의해서 관철시켜요. 많은 갈등을 해결했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제게 있어요(관계관리능력, 장애초월/감성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6)

⑥ 사회적 성공과 셀프·감성리더십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은 셀프리더십(사례 1, 2, 3, 4, 5, 6)에서 자아성찰(사례 1, 2, 3, 5, 6), 감성리더십(사례 1, 2, 3, 4, 5, 6)에서 자기인식 능력(사례1, 2, 3, 5, 6), 변혁적리더십(사례 2, 3, 4, 5, 6)에서 비전과 사명감(사례2, 3, 4, 5, 6), 서번트리더십(사례 2, 3, 4, 5)에서 구성원의 성장(사례 2, 3, 4, 6), 슈퍼리더십(사례 2, 3, 4, 5)에서

모델링(사례 2, 3, 5)순서로 모든 리더십을 발휘하였지만, 셀프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을 가장 많이 발휘한 바를 알 수 있었다. 셀프리더십에서는 자아성찰, 자기관리, 창의성, 자기개발, 자기주도성과 도전정신이, 감성리더십에서는 자기인식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관계관리 능력의 핵심역량을 보였다. 이는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때 5가지 리더십을 다 발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셀프와 감성리더십의 역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사례들의 사회적 성공 원인은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나아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리더십 역량도 발휘할 수 있음은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리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修己리더십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갖추었을 때, 나아가 여성의 治人리더십을 발휘했던 선조들의 리더십을 현대의 성공한 여성리더들도 동일하게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며 시를 쓰게 된 역량은 자기성찰,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관계관리, 사회인식이고, 구성원성장, 모델링, 자부심, 장애초월, 창의적 아이디어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성찰 및 자기주도성 때문이라 생각해요. 높은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은 다른 이들을 수용하게 만들어줘요 (자기성찰,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관계관리 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사례 1)

저는 자아성찰, 자아주도성, 자기개발,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구성원의 성장, 모델링, 이상적목표, 비전과 사명감, 변화였다고 생각해요(자아성찰, 자아주도성, 자기개발,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구성원의 성장, 모델링, 이상적목표, 비전과 사명감, 변화/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슈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2)

저의 성공 비결은 신념과 믿음, 교육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지요, 리더십 역량은 거의 다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사람이 눈이 왜 두 개이지?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많이 보라고, 귀가 두 개인 것은 많이 들으라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은 적게 하라고 만드신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문인이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구두장이 마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줘요. 보통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데, 마틴이라는 주인공은 낮에는 구두를 만들고 밤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했다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에게 해줘요(자아성찰, 자기개발, 책임감,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관계관리 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구성원의 성장, 모델링, 자부심, 비전과 사명감, 장애초월, 존경과 신뢰/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3)

거의 다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책임감, 관계관리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자부심, 이상적 목표, 비전과 사명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책임감, 관계관리 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성장, 자부심, 이상적 목표, 비전과 사명감/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4)

저는 무엇보다도 자아성찰, 자아주도성, 자기개발,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구성원의 성장, 모델링, 이상적 목표, 비전과 사명감, 변화인데 거의 다네요(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구성원의 성장, 모델링, 이상적 목표, 비전과 사명감, 변화/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5)

제가 가진 리더십은 자아성찰, 자기개발, 책임감, 창의성, 자기인식 능력, 관계관리 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이상적 목표, 비전과 사명감, 장애초월,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변혁적리더십)들이지요. (사례 6)

(2) 사례들이 인식한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변혁적리더십과 변화

사례들은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인 5가지 리더십을 모두 발휘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조선시대 여성리더십 핵심역량이 오늘날에도 유용하다는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들이 생각하는 현대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과 핵심역량은 변혁적리더십(사례 1, 2, 3, 4, 5, 6)에서 변화, 수퍼리더십(사례 1, 3, 4, 5, 6)에서 모델링, 셀프리더십(사례 2, 4, 6)에서 자아성찰, 감성리더십(사례 1, 2) 자기인식 능력, 서번트리더십(사례3, 5)에서 구성원의 성장으로 사례들의 면접결과에서도 증명되었다. 사례들이 조선시대 여성리더들이 유교의 전통문화에서 살면서 가장 추구했던 핵심역량이 변혁적리더십의 ‘변화’였음을 발견한 것을 볼 때, 본 면접조사를 통해 현대의 여성리더들은 ‘변화’를 원했던 선조 여성들의 삶에 대하여 크게 공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으로 좋은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시인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끼친 영향은 뭐랄까, 그들은 리더십 창출자였구요. 이상세계를 제시한 실천자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관을 가진 자들이었구요. 이들은 참으로 가정 밖에 대해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고, 가정 밖의 활동에 참여한 자들이었다고 생각해요(사회적 인식 능력, 모델링, 이상적 목표/감성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사례 1)

신사임당이나, 황진이, 이매창은 잘 알아요, 허난설헌에 관해서는 들어봤지만 잘은 몰라요. 이들은 자신을 알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주어진 인생을 극복하면서 살려는 모습이 보여요.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네요. 제게 이런 자료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동적이네요. 더 알고 싶어요(자아성찰, 자기인식능력, 장애초월/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2)

꼭 필요하지요. 김만덕은 확실히 알아요. 김만덕은 부자가 되어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대단해요. 옛날에 임금님도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지 못했는데, 김만덕은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해 주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써 대단한 것 같아요. 위인전에 많이 나와서 알아요. 드라마는 안 봤는데 책으로 봤어요. 김만덕은 여성인데도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구원했어요. 신사임당은 첫째로 효녀였잖아요, 부모에게도 잘했고, 남편에게 잘하고, 아들도 잘 키워줬어요. 글도 잘 쓰고, 그리고 그림을 어찌면 그렇게 잘 그려요? 치마폭에 포도를 그렸더니 닭이 와서 쪼아 먹었잖아요. 나는 왜 그림도 못그려? 생각했어요. 훌륭한 아들도 잘 키워냈잖아요. 울곡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십만대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준비했으면 우리나라가 더 강했을텐데요. 십만양병설을 말했는데 믿지 않고, 군대를 준비를 안했는데 임진왜란이 터진거지요. 허난설헌도 시가 많아요. 황진이는 글도 잘 썼어요.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여자를 멀리하고 쳐다보지 않았지만 황진이는 지극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황진이 시로 노래도 많이 만들었어요. 허난설헌의 시가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를 잘 모르겠어요. 이매창의 시도 많아요. 아주 재미있는 공부를 하시네요(구성원의 성장, 나눔, 모델링, 자부심, 창의적 아이디어/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3)

주제가 너무 재미있어요. 나중에 논문 꼭 제게도 주세요! 그건 너무 당연하지

요. 시대상황 다른데 그 시대에 뭔가 족적을 남겼다는 것은 지금 유명한 여성들보다 더 대단하지요. 과거 여성들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래요. 조선시대 후반기부터 남존여비, 여성비하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어쨌든 너무 재미있어요. 잘 배우면 선조 여성들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여성들에게 도전정신도 줄 것이고 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종시대에도 출산 휴가 있었잖아요? 몰라서 그렇지요. 본 받을 점이 많이 있어요. 여권신장을 위해서는 나혜석 전기 권하고 싶어요.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지요. 결국 길에서 헤메다 죽었으니요(도전정신, 모델링, 자부심, 변화/셀프리더십, 슈퍼리더십, 변격적 리더십). (사례 4)

신사임당은 정말 훌륭하잖아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조선시대 여성들의 변화와 도전정신은 꼭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공동체 성장, 모델링, 변화, 도전정신/서번트리더십, 슈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5)

우리나라 사대주의, 일제와 전쟁으로 역사가 연결이 안 되는데 이런 역사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해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고 하잖아요(자기인식, 모델링, 비전과 사명감/셀프리더십, 슈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6)

(3) 현대여성에게 필요한 셀프리더십의 자기개발과 변혁적리더십의 비전과 사명감

사례들은 현대 여성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과 핵심역량을 셀프리더십(사례 1, 2, 3, 4, 5, 6)의 자기개발(사례 1, 2, 3, 4, 6), 변혁적리더십(사례 1, 2, 3, 4, 5, 6)의 비전과 사명감(사례 1, 3, 4, 5, 6), 서번트리더십(사례 1, 3, 4, 5, 6)의 구성원의 성장(사례 1, 3, 4, 5, 6), 감성리더십(사례)의 사회적 인식 능력(사례), 슈퍼리더십(사례 4)의 자부심

이라고 언급하였다. 사례들이 조선시대 여성의 修己리더십에서 셀프리더십의 자기개발과 여성의 治人리더십에서 변혁적리더십의 비전과 사명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선조들의 리더십과 핵심역량은 현대의 여성리더에게도 동일하게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역량임을 밝히는 바라고 사료된다.

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책임감, 도전정신, 자기관리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개발을 해야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잖아요? 사회적 인식 능력, 구성원의 성장, 비전과 사명감, 장애초월, 변화, 창의적 아이디어 다 필요한 리더십 요인이지요. 자기 문제에 대한 장애초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책임감, 도전정신,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능력, 구성원의 성장, 비전과 사명감, 장애초월, 변화, 창의적 아이디어/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1)

현대 여성에게 다 필요하겠지만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관계관리 능력, 사회적인식 능력, 존경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자기주도성, 자기개발, 관계관리 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존경과 신뢰/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2)

문인들에게는 자아성찰, 자기개발, 도전정신, 창의성,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비전과 사명감,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와 같은 리더십 역량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아성찰, 자기개발, 도전정신, 창의성,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비전과 사명감,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셀프리더십, 서번트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3)

무엇보다도 자기개발을 해야 하구요.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 함께 가야겠지요?

이상적인 목표와 비전과 사명감을 가져야 해요. 자부심도 중요하지요(자기개발, 구성원의 성장, 자부심, 이상적 목표, 비전과 사명감/셀프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4).

전부 다 필요하겠지만 자기주도성, 책임감이 중요하구요. 모든 학생들이 같이 성장해야 하니까 구성원의 성장과 공동체 형성도 필요하구요. 모델링이 되어야 하고, 비전과 사명감도 꼭 있어야 해요(자기주도성, 책임감,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모델링, 비전과 사명감/셀프리더십, 서번트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5)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요. 책임감이 있어야 하구요. 관계관리 능력과 사회적 인식 능력도 중요하구요. 구성원의 성장도 필요하네요. 공동체 형성도 비전과 사명감 중요해요.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겠지요(자기개발, 책임감, 관계관리 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비전과 사명감, 존경과 신뢰/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사례 6)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를 대상으로 문헌연구하여 찾아낸 여성리더십과 핵심역량을 현대의 여성리더인 사례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현대의 여성리더인 사례들은 개인생활 영역에서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자아성찰)을 발휘해야 하며,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가족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서번트리더십(구성원의 성장)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사회생활 영역에서 사회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변혁적리더십(비전과 사명감)을 발휘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사례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수퍼리더십을 발휘한 결과이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초월하는 변혁적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바와도 유사하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셀프·감성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는 개인생활 영역인 여성의 修己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나아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여성의 治人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사례들의 사회적 성공비결은 여성의 修己리더십과 여성의 治人리더십을 발휘했던 선조들의 리더십을 동일하게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문제인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삶에서 나타난 여성리더십의 핵심역량은 현대에도 유용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하여 사례들의 응답을 통해 모두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들이 생각하는 현대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과 핵심역량은 변혁적리더십의 변화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전통적인 유교문화권에 살면서 삶에 변혁적리더십의 변화를 가장 원하고 있었음을 사례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현대에서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에는 유리천정⁸⁾을 비롯하여 겪어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를 극복하고 변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시대를 초월해서 삶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결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연구문제인 현대 여성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례들은 셀프리더십의 자기개발과 변혁적리더십의 비전과 사명감이라고 한 바를 알 수 있었다. 즉 사례들은 급변하는 시대에 여성리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기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과 동시에, 변혁적리더십의 비전과 사명감을 갖고 삶을 개척해야만, 성공과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함을 말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8) 1987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들이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여성과 소수인종이 겪고 있는 예로와 장애를 의미하는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학, 사회학 분야에서 인용되어져 왔다(홍미영, 2004). 조직에서 유리천장이란 인사체계에서 승진을 통해 상위직으로 오를 수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이지만 막상 진행하다 보면 더는 진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김양희, 2000).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결혼생활은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은 가정을 중심으로 남편과 자녀, 친족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남성위주의 가부장제와 가정과 가문 중심의 사회였으므로 여성의 활동이 눈에 띄게 부각되기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인과 실학자로 재능을 드러내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여성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업적을 드러내었지만 이들 여성 중에는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며 살았던 여성들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여성의 삶과 리더십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의 생활문화 환경은 사회적 제도적 환경체계의 특성상, 여성의 삶이 가정 내로 국한되었음을 전제하였으므로, 여성의 삶에 대해 가치 지향적 분석은 가능한 축소하였다. 그러나 그 시대 여성의 리더십으로 발현된 바는 여성의 생활과 일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현대 환경체계 속에서도 시대초월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전제 하에 여성의 삶을 修己와 治人으로 분석해 보았다. 修己는 개인생활 영역으로, 治人은 가정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개인생활 영역은 성장배경과 삶의 태도로, 가정생활 영역은 부부관계, 효를 중심으로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가정경제, 의식주와 가정경영의 내용들을 조사하였으며, 사회생활 영역은 학문과 사상, 업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대상이었던 4명의 문인들과 6명의 실학자들은 당시 시대와 상황에 따른 여성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조선시대 이후 일제 강점기와 전쟁으로 인한 격변의 시기가 지나 현대에 이르렀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시대와 상황에 따른 리더십이 요구된다.

현대에는 여성의 역할과 위치가 남성과 동일하게 인정되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양성평등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남녀 간의 서로 위치와 역할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도 사회적인 구조, 각자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 양성평등한 존재로 남녀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생활문화가 되고 있음을 볼 때, 여성의 修己리더십과 여성의 治人리더십은 그 가치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크다.

조선시대의 여성문인과 실학자들을 생활문화적 관점으로 조명해 본 여성리더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이다. 여성들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혼인 후에도 여훈서와 유교 경전 등을 읽고 글을 쓰며 스스로 발전을 위해 자아성찰과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둘째, 감성리더십이다. 조선의 여성들도 감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시와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회적 인식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감성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셋째, 서번트리더십이다. 여성들은 부모와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사람들과 접빈객들을 극진히 섬겼다. 여성들은 가족을 사회적 인물로 성장시키고 가문을 일으키는 역할을 함으로 서번트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넷째, 수퍼리더십이다. 가족과 집안사람들에게 역할모델이 되었고, 자녀들이 사회와 나라에 필요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여 사회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인물로 키운 수퍼리더였다.

다섯째, 변혁적리더십이다. 남존여비 사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가 금지되어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키는 변혁적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양성평등의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힘은 조선의 여성리더들의 영향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문인인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 이매창의 경우 이들이 여성문인으로 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여성실학자인 장계향, 임윤지당, 김만덕, 사주당 이씨, 빙허각 이씨와 강정일당은 일생동안 셀프리더십, 감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수퍼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선시대 여성문인과 여성실학자에게서 나타난 역량 중에서 핵심역량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修己리더십에서는 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책임감,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능력, 관계관리 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을 찾아볼 수 있었고, 여성의 治人리더십에서는 구성원성장, 공동체형성, 모델링, 자부심, 이상적목표, 비전과 사명감, 장애초월, 변화,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의 핵심역량을 발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조선시대의 여성리더십 핵심역량이 현대에도 유용함을 알기 위하여 현대 사회의 여성리더인 6명의 사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조선시대의 여성리더십이 현대의 여성리더들에게도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사례들은 선조여성들이 발휘한 변혁적리더십의 변화가 가장 현대에 유용한 리더십과 핵심역량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전통적인 유교문화권에 살면서 삶에 변화를 가장 원하고 있었음을 사례들이 공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대 여성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밝힌

여성의 修己리더십은 셀프리더십의 자기개발이고, 여성의 治人리더십에서는 변혁적리더십의 비전과 사명감이었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사례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여성리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기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과 동시에, 변혁적리더십의 비전과 사명감을 갖고 삶을 개척해야만, 성공과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함을 말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조선시대 가정을 중심으로 婦德을 강조하는 시기에 살았던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여성문인과 실학자들은 시대의 환경에 순응하면서도,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주도하고 변혁시켰던 인물들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문인과 실학자의 삶에 나타난 여성의 修己리더십과 여성의 治人리더십은 현대 여성리더들에게도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앞으로 생활문화 창조에 기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들의 삶속에 나타났던 뛰어난 리더십은 오늘날도 남녀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기의 삶을 주도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 여성들에게도 적용할 만한 리더십으로의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살았던 여성들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문인과 실학자를 당대의 리더십이라는 관점으로 재조명함으로 조선시대의 여성리더십을 현대의 여성리더십과 비교해 보는데 의미를 두었다. 조선시대와 현대를 비교해 볼 때 여성의 가정에서만

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여성리더십과 현대의 여성리더십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여성리더십 핵심역량이 현대에도 유용한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서구 중심의 다양한 가치관과 물질 위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 여성에게도 개인생활 영역에서 여성의 修己리더십과, 가정생활 영역과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여성의 治人리더십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에 근거하여 연구의 의의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에서 시작된 리더십 연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국적인 리더십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대 여성리더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을 조선시대 여성리더들의 삶에서 찾아본 것은 선조들이 발휘한 리더십이 현대에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찾아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둘째,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가부장제와 친영제의 전통이 현대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 역할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조 여성들이 발휘한 여성의 修己리더십과 여성의 治人리더십의 핵심역량을 현대 여성들은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를 사례조사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녀 교육열이 세계적이라고 볼 때, 이러한 열의는 이미 선조 여성들이 발휘했던 리더십 가운데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곡을 키운 신사임당과 칠현자를 키운 장계향이 자녀교육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데 선조 여성들의 삶에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데 연구의 가치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발휘하는 리더십은 여성리더십, 여성적리더십과 여성주의리더십으로 분류되어 연구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리더십들이 상호 연결되어 구현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여성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실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인과 실학자 10인을 택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조들의 여성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대 여성리더십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조선시대의 문인과 실학자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참고문헌이 부족하였던 제한점도 있었다.

셋째, 오늘날 여성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서양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 발전되었다. 여성의 역할이 이미 국제적으로 활발해졌기 때문에 국외 여성리더십의 변천 과정과 핵심역량에 비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관련 연구들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넷째, 선조들의 여성리더십을 드라마나 영화라는 콘텐츠로 담아 보여줄 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지역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사임당이나 황진이에 관하여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허난설헌에 관하여도 난설헌 허초희 문화제가 강릉에서 열리고 있다.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는 음식디미방을 중심으로 당시 양반가의 음식을 재현함으로써 장계향을 소개하고 있고, 2011 KBS ‘한국의 유산’ 프로그램에서 ‘음식디미방’을 재조명하였다. 거창 김만덕에 관하여도 2010년 KBS1 방송국에서 30회의 드라마에서 상영되었다. 이매창에 관하여도 ‘매창 꽃

에 높다' 라는 무용서사극이 2015년 4월 16일 전라북도 국악원 주최로 열렸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의 인물들을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이 이어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선조들의 여성리더십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현대 여성들에게 소개됨으로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민수(2011). 신사임당의 정서능력 발현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정애·태정원·양혜현·김현아·조은영(2010). 『리더십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고부섭(2016). 감성리더십과 직무태도 간 관계에서 적합성의 조절 효과 분,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은영(2007). 어머니리더십 실천 인물 연구 : 신사임당과 전해성 박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부옥(2014). 17세기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여성리더십 유형과 현대적 조명 : 여성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자기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혜(2013). 슈퍼리더십이 멘토링 기능, 셀프리더십 및 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애(2006). 현대사회에서 김만덕 삶의 의미, 김만덕과 파워여성 토론회, 13-14.
- 김구현(1999). 『위대한 어머니 정부인 안동장씨』, 영양문화원.
- 김명희(2013). 『허난설현의 시문학』, 서울: 국학자료원.
- 김미란(1992). 『총명이 무던 붓끝만 못하니』, 평민사.
- 김민성(1999). 『매창전집』, 서울: 도서출판 고글.
- 김선주(2014). 보육교사의 표정언어와 대인관계문제의 상관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문(2014). 한·중 기녀시인 비교 고찰-황진이와 蘇小小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36, 317-342.
- 김숙경(2007). 여성 리더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간의 상관성 연구 :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쌍연(2009). 상사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과 구성원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양희(2000). 『기업 내 남녀관리자의 리더십 비교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양희(2006). 『여성, 리더 그리고 여성리더십』,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영민(2005). 형용모순을 넘어서 : 두 명의 조선시대 여성성리학자, 철학, 83, 7-33.
- 김영학(2009). 상사의 수퍼리더십이 종업원의 셀프리더십 구성요소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 자원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구(2008).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따른 여행사리더십과 조직 유효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임(2008).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문(2004). 자기에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2016).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감성리더십, 학습조직,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 및 조직 유효성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희(2014).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준형(2013). 『이매창평전』, 서울: 한겨레출판(주).
- 김지선(2010). 신사임당의 자녀교육관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아(2016). 여성 방문판매 조직에서 서번트 리더십이 직원들의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희(2012). 장계향의 여중군자상과 군자교육관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2004). 학교장의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주(2013).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에 관한 연구 : 조각보 수업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2003). 허난설헌의 한시의 소재 연구, 동양한문학논집, 11, 550.
- 나정순(2002). 간호장교의 군 생활 경험에 관한 심층면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다니엘 골먼 외(2009). 『감성의 리더십』, 청림출판사.
- 류은영(2008).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여성리더십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희(2011). 황진이와 삶, 사랑 그리고 교육, 한국교육학연구, 17(1), 57-81.
- 문미희(2012). 빙허각 이씨의 여성교육관, 한국교육학연구, 18(1), 5-23, 문일평 외 26인(1988), 『조선명인전』, 조선일보사.

- 민족문화추진위원회(2009). 「柳木川夫人李氏夫人墓誌銘」, 『石泉遺稿』 卷3
雜著: 한국문집총간 279, 550.
- 박무영·김경미·조혜란(2004). 조선의 여성들, 과주: 돌베개.
- 박미선(2013). 여성적 리더십 사례 연구 : 김만덕, 안철수, 유한킴벌리
CEO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경(2008). 『선교와 여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박선민(2016).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셀프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일 : 생활 균형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영(2012). 조선중기 여성상에 대한 고찰 :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을 중
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숙(2015).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 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임파워
먼트, 직무만족 및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1983). 황진이의 문학연구 : 그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진(2009). 학교장의 수퍼리더십과 교사의 셀프리더십, 교사의 학교조
직 몰입 및 학교 조직건강간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박재완(2013). 허난설헌과 매창 한시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박찬식(2004). 김만덕과 조선 후기 제주사회,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
사 연구 보고서, 54.
- 박철상(2009). 조선시대 여성학자의 서재 윤지당. 국회도서관보, 46(12),
pp. 72-76.

- 박현숙(2002). 조선시대 여성한시 작가의 문학관, 국제학술대회. 9, 63-79.
- 박혜숙(2004). 『허난설헌평전』, 건국대학교 출판부.
- 배병철(2005). 『다시보는 태교신기』, 성보사.
- 백기복·신제구·김정훈(2011). 『리더십의 이해』, 서울: 창민사.
- 서보미(2013). 간호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예지(2016). 미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성숙도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용희(2013). 학교장의 여성적 리더십 특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남문화원(2002). 『국역 정일당 유고』, 경기: 삼문인쇄.
- 성미석(2000). 여성적 가치의 리더십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율자(1998). 『조선사의 여인들1』, (주)도서출판 넥서스.
- 성율자(1998). 『조선사의 여인들2』, (주)도서출판 넥서스.
- 성혜진(2016). 팩션소설과 시대의 관련성 연구 : 규장각 각신들의 나날을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인수(1990). 『한국교육사상가평전』 I, 서울: 문음사.
- 송영수(2011). 기업 내 셀프리더십 필요역량 탐색, HRD연구, 13(3). 51-74.
- 신구문화사(1965). 『한국의 인간상 5』, 신구문화사.
- 신화출판사(1979). 『역대인물 한국사 4』, 신화출판사.

- 심경호(2009). 사주당 이씨의 삶과 학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241-279.
- 안남연(2007). 황진이 재조명, 한국어문학연구, 49, 161-178.
- 안동청년유도회(1995). 『제8회 정부인안동장씨 추모 여성회호대회 자료』, 안동청년유도회.
- 안중인(2014). 초등교사의 셀프리더십, 교사효능감, 학습조직문화,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촉진자 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성구(2009). 항공사 객실팀장의 리더십 유형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시림(1991). 『신사임당과 자녀교육』, 서울: 민예사.
- 우수명(2010). 『사랑 행복 여성리더십』, 서울: 아시아코치센터.
- 유혜림(2004). 한국여성 리더십에 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순(2005). 17세기 인물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3, 359-409.
- 이길표(1987). 가정생활문화의 미래와 전망, 생활문화연구, 창간호, 1.
- 이길표·주영애(1999). 傳統家庭生活文化研究. 서울: 신광출판사.
- 이덕일(2003). 『이덕일의 여인열전』, 김영사.
- 이문호(2002). 『한국 역사를 뒤흔들었던 여성들』, 도원미디어.
- 이미영(2011).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의 사상과 한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배용(2005). 『한국 역사속의 여성들』, 서울: 어진이
- 이성미(2002). 『우리 옛 여인들의 멋과 지혜』, 대원사.
- 이성진(2015). 『격몽요결』로 본 율곡 리더십 프로그램 모형개발, 성신여

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화(2012). 리더의 감성지능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신복(1981).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이애련(2010).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이해 및 적용에 관한 사례 연구 : 서울지역 어린이집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299-321.

이영란(2011). 양성평등교육 유아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미(1989).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춘(2002). 『강정일당』, 가람 기획.

이영춘(2001). 『국역윤지당유고』, 원주시.

이은상(1994). 『완성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서울:성문각.

이은주(2013). 효과적인 목회사역을 위한 여성리더십과 여성리더십 고양을 위한 시리즈 설교,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혜(2003). 조선시대 강릉지방의 여류문학 : 허난설헌과 신사임당을 중심으로, 나랏말, 짬, 18, 87-101.

이이화(1989). 『역사인물이야기』, 역사비평사.

이이화(1993). 『이야기 인물한국사』 2,3,5, 한길사.

이향숙(2011).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화형(2014). 황진이와 이매창의 한시 비교 고찰, 우리문학연구, 41, 241-266.

이혜순, 정하영(2003). 『한국고전여성문학의 세계: 산문편』, 이화여대출

관부.

일신각(1979). 『역사의 인물』, 일신각.

임선택(2005). 신사임당의 자녀교육에 나타난 효사상 연구, 성산효도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정인(2011).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 저술과 태교교육,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혜리(2015). 『사임당』, 서울: 인문서원.

장산(2016). 허난설헌과 이청조 한시 작품의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인자(2007). 강정일당의 문학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동주(2013). 『장계향 조선의 큰어머니』, 경기: 돌베개.

정용락(2014). 호텔기업의 변혁적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이 조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창권(2006).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경기: 푸른숲.

정혜은(1997). 조선후기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 여성과 사회 8, 297-317.

정현영(2006). 위탁급식업체 종사자의 감성리더십과 감성지능이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민정(2016). 셀프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중(2003). 변화되는 리더십 패러다임,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논총 제5집, 84-105.

조주홍(2010). 여성정치리더십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 남녀리더십 비교연구 문헌과 여성 정치리더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애(2014). 신사임당의 생애에 나타난 셀프리더십과 어머니 리더십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80, 170-201.
- 주영애(2015). 전통생활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실천도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지역 거주 어머니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3, 471-496.
- 진엄홍(2014). 한국어 교육을 위한 황진이와 유여시의 삶과 시 세계에 대한 비교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2000). 또래에 의한 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단기종단적연구와심층면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섭(2014). 여성 학교장의 리더십 특성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연미(1999). 윤지당의 생애와 윤지당유고. 서지학연구, 17, 291-313.
- 하성란(1996). 허난설헌과 황진이의 문학에 대한 페미니즘 의식 연구, 강남어문, 9, 147-173.
- 한국여성개발원(1998).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 상, 한국여성 개발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1). 『규합총서』, 서울: 정인사.
- 한희숙(2004). 조선시대 여성인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1, 99-117.
- 한희숙(2008). 조선후기 양반여성의 생활과 여성 리더십, 여성과 역사, 9, 1-48.
- 허경진(1993). 여류한시선, 평민사.
- 허남철(2009).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신뢰와 역할 내 행동 및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라금(2005). 여성주의 리더십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여성철학, 5,

55-80.

허미자(1984). 『허난설헌 연구』,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허미자(2007). 『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허미자(1986). 이매창 연구 : 시를 통해 본 매창의 생애, 이화어문 논집, 8, 351-375.

허미희(2007). 수기치인 철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여형(2015). 황진이와 설도의 한시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미영(2004). 여성공무원에 대한 유리천장 현상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 비교를 통한 시론적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3), 329-363.

홍은설(2016). 여성 태권도 지도자의 감성적 리더십이 중, 고선수의 선수정서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ABSTRACT

Analysis on Women's Leadership during Chosun Dynasty in Perspective of Living Culture – Focusing on Women Writers and Silhak Scholars –

Park, Young-Sook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roughout Korean history, a woman's traditional role was limited as a supporter not a leader that women were involved primarily in children's upbringing and helping their husbands. In those times, the concept of woman's leadership was rarely considered to be studied.

However, studies regarding woman's leadership has been started actively with social changes such as development of social consciousness, economic growth, democratiz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refore, these studies in woman's leadership are meaningful to define a woman's role in modern society.

In Joseon Dynasty, except some of high social standing in the palace, there are very few women left their names behind in history compared to

the number of men from the same period. Patriarchy with Confucianism pervaded the era and it was difficult for women to show their capabilities. While men took proper education, women became educated in Confucian ideals of proper behavior: moral conduct, proper appearance and womanly tasks. Therefore, many women did not even get a chance to live up to their full potential but had to help their family and society.

Nevertheless, there were few female leaders in the era who were highly respected for realizing their own goals and achieving them. Various studies on the female leaders from Joseon Dynasty are being conducted as social consciousness regarding women's role in the society is also being increased. Studying women's leadership is meaningful that it will help recognize the role and status of modern women.

In this study, specific cases showing female leadership have collected considering various cases, relics and related researches and the cases were divided into 2 categories of 'Su-Gi' and 'Chi-In', then analyzed in the perspective of living-culture. 'Su-Gi' was about self-management and attitude to the life and 'Chi-In' is about home-life and social-life. It is critical to apply the leadership that female writers and scholars have shown in Joseon dynasty to modern society,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all be the stepping-stone for creation of living culture.

Among female leaders from Joseon Dynasty, this study limits its case study objects to 10 women of Shin Saim-dang, Hwang Jin-Yi, Heonanseolheon, Lee Mae-chang of women Literator, Jang Gye-Hyang, Im Yunjidang, Kim Man-Duk, Sajudang Lee, Bingheogak Lee and Kang

Jeongildang of Women Silhak Scholars. All these women were born and raised in the Confucian-influenced patriarchal society. However, they grew capabilities to lead their lives successfully with remarkable achievements and also became significant marks in their own field of studi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Shin Saim-dang, Hwang Jin-Yi, Heonanseolheon and Lee Mae-chang, the literary women, were found to be exercised Self leadership, Emotional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is study also found that Jang Gye-Hyang, Im Yunjidang, Kim Man-Duk, Sajudang Lee, Bingheogak Lee and Kang Jeongildang of Women Silhak Scholars. , Jang Gye-Hyang, Im Yunjidang, Kim Man-Duk, Sajudang Lee, Bingheogak Lee and Kang Jeongildang of the women Silhak scholars exercised Self leadership, Emotional Leadership, Servant leadership, Super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econd, core competencies such as self-reflection, self-direction, self-development, responsibility, challenge spirit, creativity, self-management, self-awareness, relation management ability, social recognition ability were demonstrated in cases of women's Su-Gi leadership as the result of this study and core core competencies as growth of members, community formation, modeling, self-esteem, ideal goal, vision and sense of mission, conquest of disability, change, respect and confidence and creative idea were shown in cases of women's Chi-In leadership.

Lastly, this study found that the core competencies of women leadership during Chosun Dynasty can also be useful for modern women leaders as the result of studying modern cases through interviewing modern women leaders. It was discovered that core competencies the modern women leaders highly regard in Su-Gi leadership are self-leadership and

self-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vision and sense of mission were found to be the most critical competencies for modern women leaders in Chi-In leadership.

It is critical for women to have leadership according to the times and circumstances. The concept of Su-Gi and Chi-In that are found in the leadership of female leaders lived Joseon dynasty will help women in modern society to understand leadership as one of basic competences required for social life.

- * Su-Gi(修己) cultivation of one's morale and education
- * Chi-In(治人) rule people

<부록 1> 연구 동의서

연 구 동 의 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조명(여성문인과 실학자를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로 여성문인과 리더인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정보는 연구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 진술한 내용은 녹음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특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생활문화전공 박사과정

지도교수 : 주영애

연구자 : 박영숙

날 짜 : 2016년 월 일

연구 참여자 : (인)

<부록 2> 여성문인 면접 질문 목록

구성	질문내용
I 인구통계학적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3. 귀하의 학력은 어떻습니까? 4.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5. 귀하가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신 경력은? 6. 결혼하셨습니까? 미혼입니까? 7. 자녀는 몇 명입니까?
II 리더십핵심역량	<p>자신의 삶에서 나타낸 리더십 역량은 무엇이었습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은 무엇입니까? 2. 가정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은 무엇입니까? 3. 사회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은 무엇입니까? 4.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5. 갈등을 느꼈다면 어떤 경우이며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6. 사회적으로 여성문인으로 성공하게 된 가장 큰 리더십의 핵심역량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조선시대 여성리더들에게 나타난 핵심역량입니다. 관계되는 것은 모두 선택해주세요. (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책임감,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관계관리 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모델링, 자부심, 이상적 목표, 비전과 사명감, 장애초월, 변화,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
III 여성문인재조명	<p>7. 본 연구에서는 현대여성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조선시대 여성문인이었던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 이매창과 여성실학자였던 장계향, 임윤지당, 김만덕, 사주당 이씨, 빙허각 이씨, 강정일당의 삶에서 재조명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대여성에게도 유용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부분인지요?</p>
IV 현대여성핵심역량	<p>8. 현대 여성문인에게 필요한 여성리더십의 핵심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조선시대 여성리더들에게 나타난 역량입니다. 관계되는 것은 모두 선택해주세요. (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책임감,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관계관리 능력과 사회적 인식 능력,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모델링, 자부심, 이상적 목표, 비전과 사명감, 장애초월, 변화,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p>

<부록 3> 여성리더 연구 면접 질문 목록

구성	질문내용
I 인구통계학적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3. 귀하의 학력은 어떻습니까? 4.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5. 귀하가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신 경력은? 6. 결혼하셨습니까? 미혼입니까? 7. 자녀는 몇 명입니까?
II 리더십핵심역량	<p>자신의 삶에서 나타낸 리더십 역량은 무엇이었습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은 무엇입니까? 2. 가정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은 무엇입니까? 3. 사회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리더십 역량은 무엇입니까? 4.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5. 갈등을 느꼈다면 어떤 경우이며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6. 사회적으로 여성리더로 성공하게 된 가장 큰 리더십의 핵심역량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조선시대 여성리더들에게 나타난 핵심역량입니다. 관계되는 것은 모두 선택해주세요. (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책임감,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관계관리 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모델링, 자부심, 이상적 목표, 비전과 사명감, 장애초월, 변화,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 </p>
III 여성리더재조명	<p>7. 본 연구에서는 현대여성에 필요한 리더십을 조선시대 여성문인이었던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현, 이매창과 여성실학자였던 장계향, 임윤지당, 김만덕, 사주당 이씨, 빙허각 이씨, 강정일당의 삶에서 재조명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대여성에게도 유용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부분인지요?</p>
IV 현대여성핵심역량	<p>8. 현대 여성리더에게 필요한 여성리더십의 핵심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조선시대 여성리더들에게 나타난 역량입니다. 관계되는 것은 모두 선택해주세요. (자아성찰,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책임감, 도전정신, 창의성, 자기관리, 자기인식, 관계관리 능력과 사회적 인식 능력,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모델링, 자부심, 이상적 목표, 비전과 사명감, 장애초월, 변화, 존경과 신뢰, 창의적 아이디어)</p>